

제429회 국회
(정기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 1 호

국회사무처

일시 2025년11월12일(수)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교육부 소관
나.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교육부 소관
-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가. 교육부 소관

상정된 안건

-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1
가. 교육부 소관
나.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1
가. 교육부 소관
-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1
가. 교육부 소관

(10시06분 개의)

○소위원장 조정훈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교육부 소관
나.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교육부 소관
-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가. 교육부 소관

○소위원장 조정훈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2026년도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교육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면 어제 11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이후 서면질의를 반영하여 전문위원실에서 늦게까지 작업을 하셔서 작성한 자료를 오늘 아침에 전달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료를 중심으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순서에 따라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입장을 듣고 위원님들이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특별한 다른 제안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국회 상임위 예산결산심사에는 차관이 배석을 하는 게 관례였는데요, 오늘 실장이 배석을 한 게 지금 장관…… 잠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지금 장관님이 오늘 이재명 정부 처음 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오전에 장관님은 거기로 가셔야 되고 그래서 차관님이 지금 예결위 대참 중이시고요. 그래서 오전에는 불가피하게 제가 하고 오후에는 차관님이 출석하실 예정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예결위 아무도 질문 안 할 것 같은데 차관님 여기 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오늘 오전에 김대식 위원님 질의 있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런데 김대식 위원님이 여기 계신데.

(웃음소리)

○**정을호 위원** 안 하신다고 하시고 모셔 오세요.

○**김대식 위원** 나 오늘 교육부에 질의 없어. 예결위 때문에 안 하기로 했어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아니, 예결위에서 질의하신다고요.

○**김대식 위원** 예결위 질의 없어요. 내가 질의가 있는데 교육부에는 질의를 안 하려고.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아니, 왜냐하면 실장님이 다 결정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차관님하고 오전에 다 상의해서요 지금 교육부 입장은 정해서 갖고 왔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일단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목차 간단히 설명드리면 자료는 감액사업, 증감이 동시에 있는 사업 그리고 증액사업 순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한 현황표를 보시면 감액을 요구하신 건수가 15건, 증감 동시 요구 사업 12건, 증액 요구 사업이 64건입니다. 그래서 먼저 감액 의견이 있는 15건에 대해

서 순서대로 소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 내용입니다.

대변인실 소관으로 첫 번째 내용은 대변인실의 기본경비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여비나 관서업무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비인데 증액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14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2번 내용, 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 이해도 제고 사업과 관련해서 뉴미디어, SNS 등을 운영하는 사업인데 증액 사유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도 2억 2000만 원에 대해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대변인실 기본경비는 대변인실 실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경비입니다. 또 증액분은 공공요금이나 임차료 부족한 예산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그동안 금액도 얼마 안 됐고 실집행률은 100% 그렇게 해 왔던 것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 교육정책 이해도 제고도 요새는 미디어 환경이 변화해서 홍보도 온라인으로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점점 이쪽의 홍보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정책 홍보 기조도 디지털플랫폼 기반으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돼 있고 민간 협업도 SNS를 통해서 많이 하고 정책 대상별로 학생 학부모 다 우리가 교육부의 여러 가지 정책을 홍보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려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호 위원 그런데 운영비 같은 경우는 아마 지난번하고 똑같이 책정이 된 것이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정을호 위원 됐는데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좀 증액한 것인데 증액된 부분들이, 쉽게 말하면 운영할 때 허리띠 더 졸라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런데 대변인실은 기자단이 100명이 넘습니다. 이것도 운영을 해야 되고, 이게 상당히 최소한의 경비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25년도 이·전용 내역 보면 그때 기본경비가 부족해서 2억 3000 지원을 받았거든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백승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경비가 오히려 좀 증액이 필요한 부분 같은데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재부나 이런 데서 방침이 기본경비를 증액을 못 시키고 있기 때문에 증액하기는 또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껴서 쓰는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원안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발언을 하실 때 발언권을 좀 얻어 주시면 질서 있게 해 보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손을 들까요?

○소위원장 조정훈 예.

○강경숙 위원 저도 백승아 위원님하고 유사한 의견인데 이게 불가인상률도 좀 있기도 하고 또 인상 폭도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일하는 데 원활하게 하도록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안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다른 위원님들, 김용태 위원님.

○김용태 위원 이게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인가요? 예를 들면 25년도도 증액을 요청했었는데 감액된 것인가요, 아니면……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24년부터 6억 8500이었고요. 25년도 6억 8600, 이번에 7억, 그렇게 약간 오른 겁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다 되셨습니까? 김용태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겁니까?

○김용태 위원 예.

○소위원장 조정훈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조정훈 간사님께서 1400만 원 삭감했어요?

○소위원장 조정훈 예.

○김대식 위원 이것은 좀 해 주시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또 열심히 일하라고. 어떻습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저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실은 교육부가 이번에 예산 올리실 때 큰 틀에서 정부 협의를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제가 김대식 위원님하고 같이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이기도 해서 정부 예산 전체를 봤는데 이렇게 정부가 작년보다 증액으로 제출한 부처가 몇 개 없어요. 교육부가 그중의, 아주 소수의 부처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가장 큰 예산은 역시 서울대 10개 만들기 예산이 그냥 무더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덩치가 커진 것이지요. 그래서 교육부가 증액된 것은 맞는데 저는 그만큼 허리띠를 졸라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결위에서도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본 예산, 정부제출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우리 국민들 4인 가족 기준으로 빛이 1억 9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일인당 이자 비용만 수백만 원씩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변인, 기자들 밥 사는 데 돈 들이기 위해서……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밥 사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기자실을 운영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하여튼 운영, 관서업무비 하는 데 국민들이 지금 빛내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교육정책 이해도 제고하는 데 지금 한 푼도 안 드린 게 아니고 23억 이미 드렸잖아요. 그렇지요? 20억은 이미 반영되어 있고, 그러니까 25년 예산으로 운영해 보라는 것인데 저는 제안드리기를, 분명히 내년도 추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기본경비나 교육정책 이해도 제고 이게 그러니까 부처 홍보잖아요. 그렇지요?

열심히 해 보시고 다 쓰시면 추경에서 반영해 드릴게요. 저는 그게 맞지 이렇게 조금

씩 조금씩 다 올리고 그다음에 큰 것까지 다 올리고 마지막에 적자…… 이제 예결위 가면 부채의 증액 갖고 크게 논의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 DSR 40%로 집 못 사게 한 상황에서 지금 국가부채가 거의 40% 찍기 직전입니다.

제가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진짜로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건들지 않을 테니 해보시고 6개월 만에 다 썼다 그러면 예비비 쓰시고 그래도 안 되면 추경으로 하시면 어떨까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위원님, 기본경비는 예비비로 쓸 수가 없고요. 그것은 그런 긴급수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쓸 수가 없고 결국은 또 이 안에도 인건비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고 기본경비는 기본적으로……

○**소위원장 조정훈** 어디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교육정책 이해도 사업이나……

○**소위원장 조정훈** 기본경비?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교육정책 이해도 제고에도 인건비가 있어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대변인실 누가 나왔나요?

공무직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부디지털소통팀장 윤정현** 교육부 디지털소통팀장입니다.

교육정책 이해도 제고 사업 내에 교육공무직 임금이 일부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증액할 때 처우개선키를 포함한 소폭 예산 반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이해가 됐으니까 속도감을 위해서 일단 이걸 보류하겠습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면 기본경비가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데 기본경비는 기본적으로 기재부에서 굉장히 통제가 심합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걸 이렇게 탄 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기재부가 더 깎으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출 구조조정이나 또 집행률이나 이런 노력을 평가를 받아 가지고 기본경비에 반영을 해 주는데 교육부가 그래도 상당히 집행도 잘하고 지출 구조조정도 해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이만큼 확보한 겁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저렇게 확보해 놔는데 교육위에서 이걸 삭감해 가면 예결위에서는 그냥 바로 삭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해 왔던 노력이 다 허사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기본경비 항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좀 지켜봐 주시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만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건의 말씀 올립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반영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보류하고 계속 진행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다음은 두 번째로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연번 3번에서 5번까지인데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동일 맥락의 논의 내용이고 13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연번 4번은 사회복지요원 운영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인건비성 경비인데 매년 6억 원대의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연번 5번, 국립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사업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경상대, 제주대, 강원대의 경우에 사업비의 최대 집행률이 46.3%에 그치는 등 집행이 부진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130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 정책기획관 기본경비는 앞에 대변인 기본경비와 마찬가지로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정책기획관 기본경비 수요가 생긴 게 차관보, 사회부총리 하던 그 조직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지만 거기에 일부 기능이 좀 있거든요. 글로벌 HR 포럼이라든가 인재정책 총괄이라든가 그런 게 정책기획관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올라간 부분도 있기 때문에 1300만 원은 감액을 안 해 주셨으면 하는 게 희망이고요.

그다음에 4번 사회복지무요원은 본부, 소속기관, 국립대학에 사회복지무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동안은 병무청에서 배정을 조금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떨어졌는데 최근에는 이게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올해는 작년의 86%밖에 안 돼서 이렇게 불용이 나와 가지고 지적을 받은 건데 올해는 벌써 93% 배치가 되는 걸로 돼 있고 내년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100% 가까이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완전 인건비입니다, 사회복지무요원한테 주는. 그리고 또 병무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깎아 버려서 만약에 인건비를 못 주게 되는 상황이 오면 상당히 큰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무하는 분들을 위한 인건비 예산이니까 감액을 안 하고 꼭 반영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다음에 5번입니다. 국립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이것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현재 경상대, 제주대, 강원대 여기서 동물실험센터, 이것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 가지시고 어렵게 구축을 하는 건데 원래 이런 게 시작할 때 집행률이 좀 부족합니다. 여러가지 설계하고 또 바뀌고 입찰하다가 안 되고 그래 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본궤도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26년도에는 이것들이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이걸 다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이 부족하거나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130억 원을 감액하지 않고 원안 유지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제가 먼저.

○소위원장 조정훈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이게 불용액이 이렇게 높으니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맞습니다.

○김대식 위원 사회복지무요원이 옛날 방위 그거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맞습니다.

○김대식 위원 방위병들 그거 하는 거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김대식 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작년에 6억 정도가 발생했는데 지금 현재는 93%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올해는 한 3억 정도 불용될 걸로 예상되고 내년에는 불용이 거의 없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김대식 위원** 올해 3억 정도 불용액을 미리 예측을 하면 굳이 6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이게 배정을 못 받…… 이게 우리가 불용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사회복지요원은 병역자원 수요에 따라서 각 대학이나 이렇게……

○**김대식 위원** 병무청에서 지정해 주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맞습니다. 덜 줘서 그런 거……

○**김대식 위원** 이번에 교육부에 몇 명 가라 이렇게 하는 거.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덜 줘서 그런 거거든요.

○**김대식 위원** 그래서 예산은 확보해 놓고……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맞습니다.

○**김대식 위원** 거기 숫자에 따라서, 인원에 따라서 적게 오면 불용액이 그만큼 생긴다는 거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다음에 제주대, 경상대, 강원대 이게 국립대인데 왜 이렇게 13억씩이나 그거 되는 거예요? 이게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아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시설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지요.

○**김대식 위원** 왜 이렇게 낮습니까? 일단 예산을 따고 보자는 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남게 되면 이걸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 이기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지. 어떻습니까?

○**교육부교육시설담당관 최문태** 시설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대학 내 의견 수렴 과정이라든가 설계 과정에서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서 집행률이 좀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이 공사가 완료 예정입니다.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남은 사업비를 다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완성하고 건물 짓는 데는 문제 없는 걸로 저희가 다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완공 사업비를 반영한 상황입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연말 되면 없는 정상한 도로도 파고 이런 거잖아요. 불용액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실상. 그리고 연초부터 각 대학들에 중간점검을 봄, 여름, 가을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어느 정도 집행하는 거냐 이것을 체크를 미리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교육부교육시설담당관 최문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집행 관리 철저히 해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완성해서 사업비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저도 좀 질문을 하면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나중에 일괄해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고.

복무요원은 예산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실 때 노력을 해서 쓰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교육부 소속 사회복무요원 자리를 병무청에 요청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교육부는 병무청에서 배정하는 대로 받는 겁니까? 이게 결국은 인원 곱하기 단가일 텐데 인원의 결정을 우리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근거로 6억을 늘립니까? 병무청에서 더 보낸다는 그게 있어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이것 담당은……

○**교육부예산담당관 김아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본부나 소속기관 그리고 대학에까지 전체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정원이 기관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은 보통 연고지 같은 데를 위주로 병무청에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수요가 정원을 다 채우는 경우도 있고 못 채우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만약에 근무지를 옮기게 되면 원래 저희가 일병으로 받기로 했는데 병장이 오면 비용이 늘어나지만 대신에 피복비는 안 줘도 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를 왔으면 안 줄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서 배치를 했는데요.

병역자원 감소나 이런 측면 때문에 저희가 몇 년간 배치를 못 받았을 때는 집행률이 지적하신 대로 81%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지속적으로 병무청에서 학교나 이런 데 배치를 잘해 주고 있어서 올해는 한 93%까지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말씀 주신 만큼 감액을 하게 되면 내년 사회복무요원들의 피복비나 중식비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 감액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미안한 얘기지만 직책이 어떻게 되시지요?

○**교육부예산담당관 김아영** 예산담당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게 좀 설득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예산은 병무청에서 배정된 인원 곱하기 단가 그다음에 조금씩 변동하는 부대비용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병무청에서 내년에 교육부 산하 지역 기관들의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증가하겠다고 하는 입장이 있습니까, 문서가 있습니까? 제가 예결위 때 물어볼 거예요.

○**교육부예산담당관 김아영** 정원 기준으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니까요. 자리는 다 있지만 지금 못 채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걸 지금 빚내서 하는 상황에서 6억을 이렇게 해 놓고 마지막에 불용 나면 교육부는 뻔하게 ‘병무청에서 사람 안 보내서 다 못 썼습니다’ 이러고 말 거 아닙니까? 확실한 수요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그냥 톱 잡아 놓습니까? 이거 세세한 상세 계산 내역 제공할 수 있어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소위원장 조정훈** 이거 몇 명 안 들어오면 어떻게 겁니까? 저는 이거 이렇게 할게요.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해 주시면 그대로 해 놓고 감액하지 않고 다만 예결소위 가서 병무청하고 상의해서 병무청에서 교육부 관련된 기관에 더 보낼, 그러면 댄 데서 뻔다는 소리거든요. 분명히 빠질 겁니다. 그 감액 부처가 확인되지 않으면 6억 삭감합니다, 제가. 아셨지요? 병력 인원은 다 정해져 있는데, 내년에 사회복무요원 얼마인지 대충 나오는데……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이게 병력 인원이 310명인데요. 그게 늘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정원 310명이 있는데 이게 사회복지요원이 말한 대로 요원이 일병도 있고 병장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또 다르고요. 또……

○**소위원장 조정훈** 알겠습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제대한 다음에 바로 채워지지 않고 2~3개월 있다 오는 경우도 있고 이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3년 동안 계속 6억 원대 불용해 놓고 이번에도 또 증액을 요구했다는 건 그거는 예산 원칙에 맞지 않아요. 지금 어떻게 불용을 그렇게 계속 3년 동안 해 놓으면서 또 증액을 요구하십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단가 인상분이 있습니다. 이거 이분들 지원해 주는 단가가 다른 것처럼 물가 상승분이나 반영해서 오르고……

○**소위원장 조정훈** 제가 백번 양보해서 무슨 소리인지 이해했으니까 여기다 두고 예결위 때 가서 병무청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아마 다른 기관도 비슷할 겁니다. 올린 부분이 우리만 올린 게 아닙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전체적으로 다 깎으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자재 확충인데 제가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에서 주신 자료를 봤더니 특히 경상대 집행률이 7%로 아주 저조하네요, 세 대학 중에. 경상대학교 집행률은 7.5%인데 이거 예산이 지금 130억 배정돼 있는데 이거 다 진짜 쓰실 수 있으세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소위원장 조정훈** 지금 몇 년 동안 집행률 이렇게 낮게 된 상황에서 저희가 추경에서도 20억 더 추가했었어요. 아시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소위원장 조정훈** 그런데도 집행률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교육부교육시설담당관 최문태** 죄송합니다. 시설과장입니다.

한 말씀드릴 수……

○**소위원장 조정훈** 경상대 얘기해 주세요.

○**교육부교육시설담당관 최문태** 세 군데 대학 중에서 경상대가 착공이 가장 늦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대는 25년 5월 달에 착공이 됐고 강원대는 24년 2월, 경상대가 이번, 지난 6월 달에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아무래도 집행률이 좀 많이 늦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끝내는 데는 내년도 말까지 다 끝내는 걸로, 이상 없이 다 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어서 내년도 집행에는 크게 문제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런데 그 집행되는 계약 금액은 2025년 예산에 다 이미 녹아져 있잖아요.

○**교육부교육시설담당관 최문태** 25년도 예산도 있고 26년도 예산까지 해서 완성 사업비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지금 138억이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이 저희가 요청한 사항입

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이거는 그러면 일부……

○교육부교육시설담당관 최문태 예, 올해 예산 중에서 일부 집행 못한 거는 일부 이월이 되고 또 내년도 예산으로 138억 해서 내년도 11월 완공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위원님, 이거는 이미 다 설계가 돼서 이렇게 짓기로 돼 있는데, 이 예산을 깎아버리면 예를 들어서 3층짜리가 2층으로 줄어듭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행은 철저히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약속을 드릴 테니까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정책기획관 어디 계십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정책기획관은 자리에 없습니다. 제가 다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요.

○소위원장 조정훈 정책기획관 산하 예산인데, 이거 내년에 집행 안 되면 27년 예산 때 그거 반영합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속기록에 남겨 둡니다.

이거 일단 전체 다 의결하는 거지요, 하나씩 하나씩 해 가지고 한꺼번에 의결하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예, 마지막에 의결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글로벌교육기획관 관련 예산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자료 7페이지 연번 6번, 글로벌교육기획관 기본경비에 대해서 1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본경비 감액 의견은 원안 유지 의견을, 다른 위원님께서 여기에 원안 유지 의견도 있으십니다. 있는데……

○소위원장 조정훈 기본경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끝나고 한번 총괄해서 제가 입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소위원장 조정훈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시면 디지털교육기획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7번 에듀테크 관련 내용입니다.

에듀테크 산업 활성화 차원의 박람회 개최 비용 관련 내용인데 이것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년 예산과 동일한 수준 유지를 위해서 1억 4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이 사업도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AI 인재 양성 방안도 지난 월요일에 발표를 했고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지금 역사가 있습니다. 2006년부터 해 왔고요. 매년 3만 명, 4만 명씩

관계자, 학생들 이렇게 와서 보는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박람회 사업이라 이걸 당장, 이게 국고가 없으면 바로 중단되거든요. 그래서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저희들이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호 위원님.

○정을호 위원 이 부분은, 에듀테크 산업 성장이란 이런 부분에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여기서 조금 주안점에 두는 것은 뭐냐 하면 세부 사업 중에 박람회 개최 예산안 있지 않습니까. 박람회 개최 예산안을 이 부분에 대해 증액한 것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박람회 개최 예산안입니다.

그래서 에듀테크 산업 활성화 명분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전혀 저한테는 오지 않거든요. 특히 에듀테크 산업을 공교육 혁신에 기여할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그동안에 교육위랑 국회 예정처랑 예결위에서도 많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는 그런 개발이라든가 활용되어서 공교육 혁신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보이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고 있고 단순한 행사에만 이렇게 증액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년도 수준을 해도 전혀 무리 없을 것 같아서 저는 1억 4000을 감액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행사성 예산을 이렇게 증액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우리 디지털교육기획관께서……

○교육부디지털교육기획관 김현주 디지털교육기획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실제 사업을 해 보니까 지금 3만 5000, 3만 6000, 3만 8000 이런 식으로 사실은 참관객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저희가 공교육 혁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 예산을 활용하고 싶어서 사실은 기재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세부 사업 계획이나 그런 거를 정을호 위원님께 보고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위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김용태 위원님.

○김용태 위원 이거 내역 보니까 초중등 교육 에듀테크 예산은 32억 감액됐는데 왜 없어진 거예요?

○교육부디지털교육기획관 김현주 제가 듣기로는 이 초중등 사업이 아무래도 교육청과 연계돼서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국고보다는 저희가 지방비로 하는 것이 옳겠다고 해서 이렇게 조정이 된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정을호 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을호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교육위라든가 예정처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던 상황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기여도 및 평가 지표가 없이 지금 단순 행사성 예산으로 지금 지출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고.

이게 오늘 처음으로 지적된 상황이 아니고 그동안에도 계속 지적된 상황인데 지금 계속 이게 수리가 되지 않고 같은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교육부를 위해서라도 나름대로 감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다른 위원님들 입장은 어떠십니까?

○김대식 위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을호 위원 예, 이게 처음으로 지적된 상황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교육위라든가 예정 처라든가 같은 말로 계속 지적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 지표라든가 없이 해 왔던 부분들이 있어서요, 평가 지표.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니까 1억 4000을 감액하면 결국은 박람회의 규모를 좀 줄이는 거지요, 쉽게 얘기해서?

○교육부디지털교육기획관 김현주 예, 지금 사실은 현장에서 많이들 원하셔서 저희가 기업과의 연계 그리고 실제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더 강조해 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예산이 없으면 이제 좀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을호 위원 올해 행사를 했잖아요.

○교육부디지털교육기획관 김현주 예.

○정을호 위원 올해 예산 수준에서 하자는 건데 뭐가 부족한 게 있나요?

○김대식 위원 올해 예산을 어느 정도 그걸 했어요?

○교육부디지털교육기획관 김현주 올해 2억 7000으로 진행을 했었고 그 부분이 아무래도 호응이 많아서 저희가 기재부하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더 반영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2억 7000을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해 보니까 성과는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교육부디지털교육기획관 김현주 현재 저희가 봤을 때는……

○김대식 위원 반응은 어떠세요?

○교육부디지털교육기획관 김현주 사실은 저희가 홍보를 그렇게 많이 해 보지 못했는데도, 아무래도 여러 상황 때문에 못 했는데 정말 많이 오셨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원래 2023년에 3만 5000명이었는데 3만 8000명 넘게. 사실은 참석자도 많고 그랬습니다.

○정을호 위원 그런데 이 결과가 어떻게, 선순환적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보탬이 되는지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없이 그냥 계속 일회성 행사로만 지금 증액을 요청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성과 지표가 정량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적 지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명인데 얼마나 늘었고 그런 거예요?

○교육부디지털교육기획관 김현주 저희가 성과 지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교육부디지털교육기획관 김현주 참석자가 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수요자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박람회 개최 비용 이러니까 일

회성 박람회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학생들이 와서 자주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현장실습 같은 것처럼?

○**교육부디지털교육기획관 김현주** 예, 그리고 사실은 이게 국제 행사였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에는 3억 원 이상으로 진행이 됐다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사실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국내 중심으로 가고 있었고 좀 더 국제적인 행사로 확대해 보고자, 그런 부분도 들어 있기는 했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정 위원님, 보류?

○**정을호 위원** 하시고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렇게 하고 다음에 논의해 보지요.

○**소위원장 조정훈** 예, 보류.

보류되는 것들 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진행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다음은 지역인재정책관실 8번, 대학혁신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가번 항목으로 사업 관리비 관련하여 실집행 가능 등을 고려해서 사업 관리비 중에서 1억 50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현재는 사업 관리비가 27억 원 편성돼 있습니다. 나번 항목은 이와 별도로 기관평가 인증기구 역량 강화 지원 내용인데요.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서 1억 1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인 기간 동안에 인건비가 미지급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2220만 원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9번 항목은 인천대학교 출연지원 사업입니다.

출연금 지원 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이제 성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전년과 동일한 예산 규모 유지를 위해서 81억 16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8번 대학혁신 사업에서 사업 관리비 감액 의견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26년에 특성화 대학을 신규 선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15개. 이게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하다 보니까 사립대에 대한 지원도 필요해서 새롭게 하는 사업인데 이걸 하려면 새롭게 평가도 해야 되고 사업 관리비가 필요하고요.

이미 지금 25년 대비로 사업 관리비는 많이 구조조정이 됐습니다. 이미 3억 원이 감액돼 있기 때문에, 사업 관리비가 30억 원이었던 게 27억 원으로 줄어났거든요. 그래서 1억 5000만 원 감액은 안 하시고 원안 유지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기관평가 인증기구 역량강화 지원 1억 1000만 원 이거는 인건비가 미집행될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2220만 원 감액 필요 의견이신데요. 이것도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24년에 이미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은 집행률이 100%였고 대교협 및 전문대 교협에서 실시하는 기관평가인증 결과가 정부 재정지원 및 학자금 지원 여부와도 연계되는 중요한 평가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인천대학교, 9번입니다. 이것도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현재 출연지원 예산은 교직원 인건비, 기관운영비 등 대학 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 예

산입니다. 공무원 인건비가 3.5% 올라서 여기도 그냥 바로 그대로 올라가고요. 또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금액만 올린 것이기 때문에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호 위원님.

○정을호 위원 저는 두 번째 말씀 주신 기관평가인증 기구 역량강화 지원에서 평가인증기관이 전문인력 등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 주셨지만 근무인력 구하는 기간 동안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미지급 예상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게 맞다 그래서 2200만 원 관련해서 이야기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대학규제혁신추진단장 최하영 담당 과장입니다.

지금 인력 구하는 동안 인건비가 필요없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전문인력이 구해져서 2024년부터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전문인력이 고용이 되어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정부주도 평가를 할 때는 이 평가가 한 38억 정도 들어서 했던 평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학이 수수료로 근근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최소한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감액이 되면 조금 더 평가가 힘들어질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 꼭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을호 위원 근무인력이 100% 다 구해졌다는 건가요?

○교육부대학규제혁신추진단장 최하영 저희가 1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2개 기관에 대해서 전문인력이 각각 1명씩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분들은 2024년부터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정을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하는 게 아니라 구해졌다, 앞으로 그러면……

○교육부대학규제혁신추진단장 최하영 감액이 되면 오히려 그분들의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준다는 얘기입니다.

○정을호 위원 이게 맞다면 제가 이 부분은 철회하겠습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정을호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인천대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면 인건비 증액을 90억 요청하셨는데 그중에 인건비 3.5%와 관련된 인건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전액 다 인건비 인상분입니까? 10페이지 인천대.

○교육부지역인재정책과장 최우성 지역인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액 다 인건비 인상분은 아닙니다. 다만 처우개선비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증액분이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알겠습니다.

저는 실은 법인화된 대학이 인천대·서울대 등인데 그 대학 자체 경영효율화 노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돈을 계속 쏘 주는 이 제도가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국정감사 때도 얘기했고, 서울대학의 경우는 우리가 수십 조 넣는데 인건비 3.5% 올리면 자동 반영, 처우개선훈도 자동 반영, 도대체 이런 식의 운영이 어디서 가능합니까? 그러면 학교 측에서는 도대체 경영효율화, 정말 돈을 조금이라도 아껴 쓸 인센티브가 어디서 나오니까?

저는 이번은 3.5% 인상분, 처우개선 등이 있지만 제가 부대의견으로 남겨두는 건 그 법인화된 대학 출연에 관해서 효율화 그러니까 대학의 노력과 관련해서 노력과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한다에 대한 부대의견을 첨부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 전제로 저는 이견 동의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그 산식이 어떻게 되는지 되게 궁금한데 출연지원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산출물이 불확실하다는 게 그런 면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지표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있어서 그것을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있겠지요.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구성되는 건가요?

○**교육부지역인재정책과장 최우성** 지역인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립대 출연사업 같은 경우에는 법인화된 대학들이 매년 운영성과평가를 따로 관련 법령에 따라서 받고 있습니다. 성과평가는 KEDI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성과평가 결과가 향후 차년도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감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너무 자율성만 제공되는 것보다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돈이 투여가, 서울대도 마찬가지고 서울대도 그 뒤에 보면 감액이 있거든요, 인천대만이 아니라. 둘 다 그런 품질관리가 정확하게 되어야 되겠다, 돈을 이렇게 많이 투여하니까.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교육부가 그리고 정부가 돈 찍어내는 공장이 아니잖아요. 인천대는 지금 요청하면 당연히 받는 거예요. KEDI 저도 그것 봤어요. 별 거 없어요. 기본적으로 사고치지 않고 운영하면 다 받는 돈이에요, 이것은. 그렇게 가면 안 되지요.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인천대학에 이 1300억을 주는 것에 대해서 박수 칠 수 있도록 조금 더, 제가 지금 인천대에 우리가 1300억 눈 먼 돈 줘니다 하고 한번 여론을 만들어 보면 어떻게 나올지 저는 걱정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지요, 과장님?

○**교육부지역인재정책과장 최우성** 예, 정책할 때 새겨 들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제가 부대의견으로 만들 테니까 내년 예산 과정에서는 꼭 반영해 주십시오.

진선미 위원님.

○**진선미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81억의 증액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상세내역을 정리해서 저희한테 미리, 저희가 결정은 나중에 할 거니까요, 빠르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평생직업교육관 관련 예산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상열** 전문위원입니다.

평생직업교육정책관 관련해서는 역시 기본경비에 대해서 증액 필요성이 없어 증액 부분은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나중에 총괄적으로 판단하시기로 하셨으니까 넘어가고 다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원학부모지원관 관련해서는 역시 기본경비에 대해서 증액 부분인 9100만 원 감액 필요 의견이 있고요. 12번 항목,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고객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사학연금지 발간이나 구독률 점검 등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전반적인 지출구조를 검토한 후에 증액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고 45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10번 평생직업교육정책관 기본경비 과목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본예산 중에 전문대학 소송 관련된 비용도 있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경비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최소한의 필요경비입니다.

11번입니다. 교원학부모지원관 기본경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원 관련 집단 소송이 여러 건 있는데 이런 것들 대응하기 위한 꼭 필요한예산입니다.

12번입니다. 고객지원 관련해서 4500만 원 감액은 위원님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드디어 수용도 하나 나왔습니다.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 논하겠지만, 교육부 실장님.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소위원장 조정훈** 교육부 차원에서 기본경비가 부처별로 조금씩 다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교육부 차원에서? 그것 좀 의결하기 전까지 각 부처별로 한 표로 정리해서 주십시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계속하시지요.

국립국제교육원 소속기관 예산 검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상열** 예, 소속기관 세 군데는 내용이 유사하므로 한꺼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3번, 국립국제교육원 글로벌역량 지원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연간 4000여 명이 연수를 실시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가 부재하므로 81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연번 14번,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생 교육훈련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존 교육훈련 및 연수프로그램 효과 검토가 우선해야 되므로 2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 연번 15번, 중앙교육연수원 기본경비 관련해서는 외유성 연수나 형식적 프로그램 운영 등 예산낭비 행태가 지속되므로 1억 1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13번 글로벌역량지원센터는 국립국제교육원이고 제주에 있는 센터입니다. 여기서 영어교사라든가 학생이라든가 해서 연간 한 4000명이 연수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공무원이 상주하고 있고요. 또 이게 10여 년 됐기 때문에 개보수비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최소 필요 경비이기 때문에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14번입니다.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생 교육훈련지원 관련인데요. 중앙교육연수원은 평가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고 또 외부평가가 있는데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이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앙교육연수원은 최우수 기관으로 여러 차례 선정되어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외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액을 하지 않아주시기를 희망합니다.

15번입니다. 중앙교육연수원 기본경비도 역시 예산낭비 형태가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전자교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필요해서 넣은 것이고요. 여러 가지 사업운영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기관 차원에서 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중앙교육연수원장 이난영 저희 연수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31개 전체 정부부처 연수기관 중에서 대통령 표창이 1, 2등 하는데요. 저희가 근래에 다섯 번을 받았고 작년에는 3, 4등한테 주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만족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한 95점 정도 되는데 최근에는 하반기에, 제가 지금 자료에는 작성을 못 했지만 97~98점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다 아시다시피 가장 까다로운 고객을 모시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시·도교육청의 핵심 관리자급인 장학관들, 그리고 9급·7급 교육부의 공무원들, 이렇게 교육정책을 앞장서서 리드해 가는 리더들을 연수하고 있는데요, 가장 어려운 연수 대상자들이십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과정이나 강사 만족도를 아주 꼼꼼이 살피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높은 만족도가 나오고 있고 혹시 이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아주 세밀히 분석을 해서 다음 과정에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산에 대해서 열심히 아껴서 잘 쓰고 있는데요. 최소한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요청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자교탁 같은 경우에도 14개 강의실 중에서 다 바뀌야 되는데, 내구연한은 이미 지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년 연차로 해서 올해 8개, 가장 많이 쓰는 교실 위주로 먼저 바꾸고 그다음에 6개 바꾸고 이렇게 저희 직원들이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아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셔서 내년에 또 국정과제나 교육 핵심 사업들이 나오면 교장이나 리더들을 열심히 교육부랑 협의해서 연수를 기획하고 운영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셔서 가지고 내년 연수원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잘 살피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 올립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위원님.

○정을호 위원 저희가 지금 감액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보니까 아까 중앙교육연수원이 본래 교육공무원들을 연수하는 것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리고 최우수상도 많이 받으셨고, 그 부분에 감사드리고 공감하고요.

다만 최근 연수프로그램 보면 외유성 출장이라든가 형식적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련해서 비판받은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경종을 울리게 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도 그와 같은 생각이고요. 기관의 도덕적 해이 부분들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집행의 투명성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수용비 10% 정도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는 동결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일반수용비 10% 감액하고 불요불급한 포럼 개최비 등 그런 부분들은 동결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또한 강의실 노후시설 교체 공사, 전자교탁 설비 교체 관련해서 아마 저희 의원실에서 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몇 번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노후화 판단기준이라든가 우선순위 선정자료 부재,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바로 삭감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추가 근거자료 제출 후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진선미 위원 지금이라도 자료를 주시면 좋겠네요.

○소위원장 조정훈 김용태 위원님.

○김용태 위원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중앙교육연수원 예산 내역을 보니까 다른 기관들, 다른 부처 같은 경우에는 기본경비를 늘리고 일반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을 올렸는데 반면에 중앙교육연수원은 일반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 그다음에 심지어 급식비까지 올해 삭감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줄이시고 필요한 부분이, 제일 많이 늘리신 것이 시설 지원에 대한 비용인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연수원에서 이런 기본경비를 좀 많이 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평가하고 시설비를 증액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좀 같이 봐 주셨으면 좋겠다. 기관에서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교육연수원장 이난영 팬찮으시면 잠깐 추가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아니요, 팬찮습니다.

연수원장님, 기본경비를 줄이셨습니까?

○중앙교육연수원장 이난영 저희는 여러 가지 정부 방침에 따라서……

○소위원장 조정훈 참 대단하십니다. 교육부에도 그 노하우를 좀 전수해 주십시오. 매 모든 부처마다 기본경비 늘리겠다고 갖고 왔는데……

○중앙교육연수원장 이난영 하여튼 간에 저희가 정부 방침에 최대한 협조해서 고민을 해서 짜고 있고요.

정을호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추가말씀 올리면 저희가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42개 과정 중에 1개 과정이 1년 동안 운영하는 고급관리자 과정이라고 시·도교육청에 4급·3급 대상으로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1년 과정인데

다섯 번 정도 국내 현장연수를 가고 국외 시찰을 한 번 갑니다. 저희가 최대한 교육기관들을 방문해서 사실 시·도교육청의 우수사례들을 살피느라고 현장연수를 가는데 그 부분을 일부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일반수용비나 다른 것에서 되는 게 아니고 시·도교육청에서 다 분담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연수원의 기본경비나 이런 것을 삭감해서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말씀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내년에 기획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현장연수가 조금 줄 수 있도록 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경비 삭감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장……

○소위원장 조정훈 됐습니다.

정을호 위원님.

○중앙교육연수원장 이난영 그리고 한 가지 꼭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관반이 이번에 분임과제평가 이런 것을 열심히 해서 정식 학회지에 2개나 지금 실렸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운영하는 관리자반이라든지 이런 연수에서 이런 부분들을 짚는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정을호 위원님.

○정을호 위원 원장님이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제가 아까 외유성 출장이라든지 형식적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 한번 구체적인 사례를 좀 이야기할 것인데요.

아까 고급관리자반 이야기를 하셨고 보니까 최장 50주 과정이더라고요. 50주 과정이고 1인당 국내 연수비가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모든 비용은 아마 교육청에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좀 확인을 해 봤습니다. 봤더니 2월에 부산, 4월 제주, 9월 해외 연수 등 전국 주요 관광지와 명소, 카페 등을 순회하며 출장형 관광 연수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고요. 아까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한 수고비 명목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되고 있었고요. 특히 작년에는 48명에게 565만 원 상품권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연수 목적과 직접적 연계성이 좀 낮고 아까 예산 집행의 도덕적 해이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고요. 해소한 사례고요.

또 연수과제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공공기관 강화 목적 중심의 프로그램의 전면 재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삭감을 제안한 것이고요.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시고요.

특히 제주도는 보니까 오설록 카페, 신화월드, 놀이동산 이런 부분으로 가셨어요. 강원도도 하슬라아트월드 테마공원, 이런 부분들로 가셨고 불가피한 경우 교육 목적을 위해서 가실 수는 있겠지만 모든 프로그램이 이런 외유성이라든가 또 형식적으로 짜여 있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것이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소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당연히 저희는 감액을 요청한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요.

○중앙교육연수원장 이난영 말씀해 주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고 지금 교육기관 방문은 하나도 예시를 안 하셨는데 제가 충남의 꿈빛학교를 방문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 같은 경우에는 소멸지역을 실제로 가 본 사례가 있고요. 그렇게 가 보게 되면 사실 꿈빛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특수시설을 충남에서 굉장히 진정성 있게 잘한 시설 사례거든요, 장애인 특수학교인데요. 그런 곳을 가서 다른 시·도교육청의 자극을 받고 우리 시·도교육청도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라는 아주 강한 동기 부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기관들을 굉장히 선별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거기에 중간중간에 섞여 있는 그런 명소 방문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사실 연수생자치회랑 이것을 같이 기획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에 할 때 많이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강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삭감하겠다는 일반수용비나 포럼행사나 이런 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육연수지원 예산은 시·도교육청하고 협의하거든요. 그러니까 17개 시·도교육청하고 이런 부분을 줄여서 내년에는 더 적게 편성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 기관운영비 삭감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취지는 저희가 내년에 설계할 때 다시 재조정해서 짜고 그 부분을 시·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많이 감축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태 위원님 말씀에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렇게 좀 재고해 주시면……

○소위원장 조정훈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원장님,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정을호 위원님하고 김용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다른 경비를 줄이고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 상당히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왜 외유성이라는 게 나오겠어요? 사실은 이게 꼭 원장님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교육부 전체가 한번 반추해 보고 반성해 볼 부분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런 금액 가지고 쪽 해서 나중에 연말에 행사를 위한 행사를 만든다고. 우리가 지금 현재 부족한 게 아니라 넘쳐 가지고 과유불급이에요. 행사를 위한 행사야. 그러니까 이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행사를 또 만드는 거예요. 당일치기해도 충분할 수 있는 것을 1박 2일로 만들고, 2박 3일로 만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아니, 오설록 같 수 있지요. 연수하다 보면 거기 가서 차 한잔 했던 금액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케이크 하나 추가하면 더 추가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연수받으면서 차 한잔 할 수도 있지요.

프로그램을 짤 때 이런 부분이 누가 봐도 타당성 있게 짜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 자체가 외유성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을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 아니겠습니까?

○중앙교육연수원장 이난영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위원장 조정훈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2000만 원과 1억 1600만 원 감액에 지금 거의 한 30분을 썼기 때문에 연수원장님 입장도 알겠고요, 보류해서 정을호 위원님 최종 입장 듣고 결정하도록 하고.

○백승아 위원 국립국제교육원 지나갔나요? 그냥 읽고 넘어간 것 같은데……

○소위원장 조정훈 아니요, 국제교육원 지금 할 것입니다. 국제교육원 예산에 관해서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실 때 이게 교사들 그다음에 교육업무 관계자들, 영어 역량 등 교육을 담당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취지는 이해가 되

고 목적도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지금 9억 또 올해는 10억을 요청하셨는데 그분들이, 4000명이 연수를 받고 나서 글로벌 역량이 증가됐다는 객관적 지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4000명 수업 들었다, 이것은 저는 이제 더 이상 수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한다는 것을 부대의견에 달면서 내년 예산에서는 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저는 제안드립니다.

백승아 위원님.

○백승아 위원 여기 예산 산출내역 보면 지적사항과는 좀 무관하게 증액 요청하신 사유가 인건비 그리고 청사 유지관리비, 이 두 개로 보이는데 맞나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맞습니다.

○백승아 위원 이것 설명 좀……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맞습니다. 그 2개입니다, 합쳐서 8100만 원입니다.

○백승아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육원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이지 어떤 성과와는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하지만 저는 이 논의를 제기한 게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냥 가서 몇 시간 영어수업 듣고 세미나 듣고 돌아오는, 제주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소위원장 조정훈 이 경비가 얼마든지 대충 그림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진짜 마치 효율적으로 성과에 대해서…… 그냥 며칠 쉬다 가는 프로그램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좀 부대의견에 달고 싶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 아마 감액 예산은 다 종료가 된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증액과 감액이……

○김대식 위원 그러면 중앙공무원 연수 1억 6000만 원 감액을 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조정훈 아니요, 일단 보류해 두고……

○진선미 위원 다 보류, 일단 빠르게 다 점검하는 거예요.

○김대식 위원 일단 보류지요?

○소위원장 조정훈 지금 다 보류, 어차피 의결 안 하니까.

○백승아 위원 그러면 지금 국립국제교육원 이것도 결정된 게 아니고 다 그냥 훑어보고 나중에 하는 것인가요?

○소위원장 조정훈 예, 나중에.

○진선미 위원 최종 결정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소위원장 조정훈 원래 다 해서 전체적으로 증감 테이블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결을 한번 하는 것입니다.

증액 의견과 감액 의견이 함께 있는 사업 12건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상열 디지털교육기획관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사업 관련해 가지고 내역사업인 경상비에 대하여 기관장이 외부활동을 줄이고 기관 본연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원장실 예산 3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내역사업인 사업비 관련해서는 노후화가 심화된 학술연구정보서비스 통합 플랫폼을 클라우드 기반 AI 지능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중장기 ISP 수립 예산 6억 3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AI 디지털 유니버시티 혁신교육 플랫폼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미 원격교육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기술 및 시스템이 강화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3억 5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세출 목적 중 하나인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편성하기보다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으로 일반회계에서는 3억 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3억 500만 원을 편성하는 내용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1번, 교육학술정보원 원장실 예산은 이게 22년에는 3100만 원이었던 게 지금 2770만 원, 이렇게 줄여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최소한의 원장실 운영 예산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정보 유통 네트워크 구축 운영 사업의 증액 의견, 김준혁 위원이 제시하신 의견은 수용합니다.

2번입니다. AI 디지털 유니버시티 혁신교육 플랫폼 구축 3억 500만 원 감액 의견을 조정훈 위원님께서 주셨는데 26년에 뭘 당장 다 하는 게 아니고 AI를 활용한 혁신적인 고등교육 모델을 대한민국이 선도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해 가지고 ISP를 합니다. 정보화 기본 설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일반회계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ISP 결과가 잘 나와 가지고 이것을 본격적으로 구축하자 하면 당연히 고틱으로 전환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3번은 같은 답변입니다. 고틱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고민정 위원님 말씀이 신데 일단은 일반회계로 ISP 먼저 하고 구축하는 단계에 27년 이후에는 고틱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호 위원님.

○정을호 위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같은 경우는 이번 국감 때 제가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기관 외부활동을 줄이고 기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3000만 원 감액을 요청을 했는데요. 알다시피 운영비라는 게 같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난번 국감 때 이야기했던 것 보면 출장이 근무일의 절반에 가까운, 근무일 340일 중 출장이 156일입니다. 기관의 고유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과도한 외부 강의가 77건이었고요. 정관에 명시된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한 외부 강의도 9건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래서 기관장의 과도한 출장 등, 본인은 이게 자기

업무라고 주장을 할 수 있을지언정, 그러면 다른 기관에 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관장의 과도한 출장 등 외부 활동을 줄여야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기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원장실의 예산 삭감, 이 원장실이라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체 운영경비에서 지난번에 원장실에 30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한 감액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저는 두 번째 것 나 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리스 포유 말하는 거잖아요? 통합 플랫폼 클라우드 기반으로 한다는 건데 이게 ISP 수립이니까 준비 단계인 것 같아요, 좀 빨리 하실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98년 개통한 이후에 그러면 전혀 이 플랫폼에 대한 무슨 업그레이드가 없었나요?

○교육부디지털교육기획관 김현주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강경숙 위원 98년 이후에 계속 이렇게 리스 포유를 그냥 썼던 거였어요? 굉장히 많은 연구진들이 이걸 활용하고 있기는 한데, 리스 포유를.

○교육부디지털교육기획관 김현주 제가 98년 이후부터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최근에는 아무튼 간에 계속 지원이 없어서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관련 부분들은 많이 공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저는 이것은 필요하다고, 김준혁 위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뒤의 것 고민정 위원님이 한 것은 회계 간 증감액을 하는 거라서 이것은 그냥 판단하면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조정훈 백승아 위원님.

○백승아 위원 AI 디지털 유니버시티 혁신교육 플랫폼 2번의 가 항 보면 저는 이것 증액된 걸 유지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게 저희 정부 AI 교육 사업의 일환이고 이게 그러니까 방송대에서 교수자 1명이 다수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어떤 맞춤형 교육에 필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정부 교육 사업이고 저는 좀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강경숙 위원 원안유지로?

○백승아 위원 예, 원안유지.

○소위원장 조정훈 저도 입장을 좀 드리면 아까 김준혁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는 동의하고 아까 경상비, 기본경비와 관련해서는 정을호 위원님이 입장 주셨고.

AI 디지털 유니버시티 혁신교육 플랫폼인데 이게 실은 저희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 정부 예산의 가장 고속도로는 AI예요. 그 두 단어만 들어가면 거의 노 터치, 이걸 마치 건들면 미래를 막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당 차원에서는 'AI' 자가 들어 있는 예산을 한번 다 모아 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실은 지금 이것 동 사업은 방송통신대에서, 지금 플랫폼 사업계획안까지 봤어요. 2030년까지 ISP 해 가지고 지금 3억 들어가면 앞으로 수십억 들어가야 될 사업의 시작인데 솔직히 AI 기반으로 한 원격교육 플랫폼은 여기저기서 지금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소위원장 조정훈 아까 말한 에듀테크도, 이게 아마 핵심 중 의핵심 아니겠습니까? AI 기반한 원격교육 플랫폼 만드는 게 에듀테크의 핵심 중의 핵심인데 방통대는 또 뭘 방통

대 버전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지…… 이게 중복 투자 가능성이 너무 농후해 보입니다. 차라리 에듀테크에서 검증되고 이미 확정된 사업을 사용료나 라이선스를 주고 사 와서 방송통신대에 특화시켜서 만드는 비용은 기꺼이 드리겠는데 각 기관마다, 대학마다 이렇게 AI 기반 원격교육 플랫폼은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분산해서 예산 투자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이것은 다른 대학들이야 개별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방송대는 조금 다른 특성이 있다고 봅니다. 방송대는 기본적으로 원격교육을 하다 보니까 교사 1인이 수십 명, 수백 명 많은 학생을 상대를 하기 때문에 개별 지도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튜터 기반 만들고 또 학습 데이터로 개별적으로 학생들을 분석을 시켜 가지고 내가 뭘 부족한지 튜터하고 어떻게 연계를 해서 배울지 그런 것을 방송대에서 하자는 거지요.

○**소위원장 조정훈** 실장님, 그것은 지난 2년 동안 한참 논란이 됐던 AIDT의 기본 기능이에요. AIDT 교과서가 그거예요, 이제 교과서가 아니고 교육자료가 됐지만.

그래서 저는 AI 기반 원격 플랫폼을 방송통신대가 따로 만든다?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은 동의가 안 돼요.

○**백승아 위원** 저도 발언……

○**소위원장 조정훈** 백승아 위원님.

○**백승아 위원** 이게 내용이 달라요. 방통대는 교육 형식이 일반대랑 달라요. 그래서 충분히 특화된 플랫폼을 따로 만들어야 되고, 다수와 1인이 온라인을 통해서 수업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제가 코로나 시기에 다 그렇게 수업해 봤는데 굉장히 집중도 안 되고 어렵거든요. 여기에 특화된 기반은 필요하다, 그게 제 입장이고.

이 뒤에도 이따 또 나올 내용인데 AI 교육과정 만드는 것도 일반 대학생 대상으로 만드는데 ‘교대 교육과정 왜 또 만드냐? 중복 아니냐?’ 이런 게 또 나오는데 굉장히 달라요. 내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필요한 어떤 기능·역할·능력과 내가 AI를 활용하는 능력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게 아니다라는, 특화된 게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보류로 넘기지요. 일단 보류로 해 가지고 또 다음에 하지요.

○**소위원장 조정훈** 예,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교육 현장에 계신 백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존중합니다만 지금 사이버대학 등등 온갖 대학에서 다 이것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가가 또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재정책기획관 관련 예산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재정책관실 소관 중에서 4번의 가 번 항목부터 우선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학 AI 기본 교육과정 개발 지원 사업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본 교육을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93억 6000만 원 전액 삭감의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과기부 사업에 대한 중복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정부 측 입장.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대학 AI 기본 교육은 원안유지를 희망합니다. 과장이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걱정하시는 게 과기부에서 하는 사업이랑 중복되는 것 아니냐 그런 건데 그 중복은 과기부랑 이미 협의를 마쳤습니다. 올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게 논란이 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양 부가 협의해 가지고 역할 분담을 해서 우리가 할 일과 과기부가 할 일 역할 분담이 돼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교육부인재양성지원과장 구본억 인재양성지원과장 구본억입니다.

저희 기본 교육은 지적해 주신 게 총 세 가지가 있는데요. 과기부에서 하는 카이스트에 의뢰해서 하는 5억짜리 사업이랑 그다음에 AI 중심 대학 그리고 RISE 이 세 가지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카이스트 내용은 저희가 예정처 검토보고서를 보고서 확인을 해 봤더니요 여기는 대학생이 아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과정이고요. 저희 기본 교육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대학교에서 정규 교과로 편성할 수 있는 대학생 과정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대상이랑 범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저희 RISE에서도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는 비용이 예산 항목에 들어 있는 한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AI로만 특화돼 있지는 않고 RISE는 범위 자체가 되게 크기 때문에 별도의 좀 특화된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AI 중심 대학입니다. 과기부에서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지원하고 있었고 내년도에 AI 중심 대학 10개를 운영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파악해 보기로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은 사업단장님들이 대부분 컴퓨터 공학과라든가 아니면 인공지능학과, 공대 쪽 기반이 좀 많이 있으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대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교육과정도 그쪽으로 개발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기본 교육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수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교수학습센터나 아니면 교양교육원 그쪽을 통해서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교수님들이셨던 위원님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저희가 KEDI 통해서 보니까 학문 분야가 대분류는 한 7개 정도가 되고 소분류로 하면 한 123개 예컨대 행정학이라고 해도 거기에는 인사행정, 조직행정, 지방행정 이런 식으로.....

○김대식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교육부인재양성지원과장 구본억 죄송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를 AI 중심 대학이라든가 이쪽으로 강의 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사업으로 조금 보완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기본적으로 대학생 AI 기본 이것은 제가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지금 현재 RISE라든지 카이스트라든지 과기부라든지 이게 전부 분산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일반 국민들로 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맞아요. 앞으로는 AI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이것 계속 분산을 해 놓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늘 강조하지만, 몇십 년 동안 제가 이것을

강조한 겁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라, 그렇게 해야 무슨 성과가 나올 것 아니에요?

외교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그래요. 지금 외교부에서 하는 사업과 산자부에서 하는 사업과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사업과 똑같이 병용되는 사업들이 중복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참석하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고, 결국은 그래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카이스트도 마찬가지고 지금 과기부도 마찬가지고 자기 부처 이기주의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과기부하고 카이스트, 카이스트는 뭐 과기부의 산하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교육부가 이것의 중심이 돼 가지고 대학생들 기본적으로 AI 수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뭔가가 좀 협의가 되어야지 예산이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나는 중복되기 때문에 이 AI 이것을 일단 삭감을 했는데 일단 구체적으로 나한테 따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내가 또 예결위고 예결위 소위에 들어가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교육부인재양성지원과장 구본익** 예, 위원님 보고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이어서 백승아 위원님, 정을호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진행하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이게 과기부랑 교육부 사업의 목적은 다를 것 같아요. 아까 또 서로 협의 완료하셨다고는 했지만 목적이 좀 다른 게 무엇보다 교원을 양성하고 이런 것들은 교육부가 해야 될 영역이지요, 과기부가 아니라.

23쪽 보시면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개발 지원 사업 감액의견이 있는데 교육부가 대학을 총괄해야지요, 기초 기본 교육, 교원 양성 총괄하는데. AI 기초 교육과정 개발 확산 이것 과기부가 아니라 교육부가 오히려 더 전문성이 있고 주부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초중등교사 양성 교육과정 만드는 것 이것은 교육부가 끌고 가야 될 부분, 과기부가 할 수 없는 고유의 영역이잖아요.

그리고 AI 기본 교육도 제가 전에도 교육부에 말씀드렸었는데 단순히 기술 교육이 돼서는 안 됩니다. 기술은 계속 바뀌어요. 그것 가르쳐 봤자 사실 예산 낭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과정 설계하고 교수 학습 지원하고 이것은 다 교육부가 제대로 하셔야 된다, 당부 말씀과 함께 또 의견을 드리면 제대로 하셔야 돼요, 단순 기술 교육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것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이런 교육과정 총괄은 교육부 핵심 기능이다, 끌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과기부랑 교육부랑 사업 목적은 어떻게 다른지, 아까 협의하셨다고 했는데 단순히 중복이 안 되게 협의를 하신 건지, 어떤 성격이 다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인재양성지원과장 구본익** 위원님,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지적해 주신 것 외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AI 거점대학 지역 3개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그게 있는데요. 이게 과기부 AI 중심 대학이랑 좀 겹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주셔서 과기부랑 저희가 실무 협의하기로는 그쪽 선정하는 곳에서는 9개 거점대학은 제외를 한다 그렇게 일단 실무 협의를 했었고요.

기본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과기부에서도 선정이 되고 그 교육과정을 개발한다라고 했었을 때 거기는 아마 기초 교양 쪽에 조

금 더 활용도가 높을 거고 저희는 융합 강좌들을 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강좌 과목이 겹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대학별로 어떤 것들을 개발할지 수요를 받아 보고 저희가 조절을 해서 개발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할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정을호 위원님.

○정을호 위원 아까 백승아 위원님 질의하고 비슷한 질의인데요. 과기부 AI 중심 대학 사업은 공대 또는 AI 전공 중심이라고 이해해도 맞는 거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맞습니다.

○정을호 위원 그리고 교육부의 AI 기본 교육 지원 사업은 인문사회, 예체능 등 다양한 학문을 포괄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맞습니다.

○정을호 위원 그리고 보니까 또 과기부의 AI 중심 대학 사업은 개별 대학의 전반적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고도 나와 있더라고요. 교육부 AI 기본 교육 지원 사업은 AI 및 AI 전공 융합 교육과정 개발이 목표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이처럼 두 사업은 사업 목적, 수행 내용 등이 전혀 다르고 해서 중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과기부의 공학 중심 지원이 아니라 인문사회, 예체능 계열 소외가 우려되므로 기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원안 의견을 드립니다.

제 의견이 맞나요?

○교육부인재양성지원과장 구본억 예, 위원님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저도 결이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AI 생태계에서 굉장히 여러 갈래 사업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복성의 문제가 포인트인데 보니까 대상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것이 다른 게 명확하게 설명이 된다고 하면, 겹치지 않도록 교육부에서 해명이 된다고 하면 저는 원안유지가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중에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AI 거점대학 3개에 대한 것, 그런데 과기부에서 할 때는 그걸 9개 뺀다고 그랬던 거잖아요.

○교육부인재양성지원과장 구본억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3개일지 9개일지 나중에 그건 얘기를 하겠습니까만 어차피 그것도 제외되고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건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저도 좀 질의를 드리면, 이게 큰 꼭지라 제가 이걸 찾아봤더니 결국 이 대학생 AI 기본 교육 지원은 크게 2개네요. 하나는 대학 AI 기본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두 번째가 교원양성기관 개발 지원이 2개지요?

○교육부인재양성지원과장 구본억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지금 논의가 되는 게 첫 번째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부인재양성지원과장 구본억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사업 위탁기관이 대학교협이고 대학을 선정하는데 선정하는 대학의 숫자도 있습니까?

○교육부인재양성지원과장 구본억 저희가 30개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사립대학과 국립대학을 다 포함해서?

○**교육부인재양성지원과장 구본억**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 기준이 뭐니까?

○**교육부인재양성지원과장 구본억** 저희가 대학에서 일단 교양교육원이나 이쪽에서 어떻게 강의들을 개발할 것인지 그러니까 어떤 강의를 개발할 것이고 어느 교수님이 AI 전문가랑 어떻게 결합해서 강의를 하실 거고…… 총 15주가 보통 한 학기인데요. 한 학기 교육과정을 어떻게 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예체능 계열 이랑 AI를 결합한다라고 하면 10주에서 12주 정도 동안은 아마 전공 수업 내용 중심이 될 거고요. 나머지 기간 동안은……

○**소위원장 조정훈**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대학에서 발굴한 기본 교육과정은 공유 가능합니까, 아니면 그 대학의 소유물입니까?

○**교육부인재양성지원과장 구본억**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사업 위탁기관을 대교협으로 설정한 게 이게 잘되려고 하면 한 대학에서 만들어진 강좌가 다른 대학에서도 학점으로 인정이 돼야 될 텐데요. 그래서 대교협이랑 같이 협의해서 대학들의 학점 인정을 좀 넓혀 가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공유가 기본입니다, 위원님.

○**소위원장 조정훈** 학점 인정을 한다는 게 지금 이 사업만으로 될 문제가 아닐 텐데요?

○**교육부인재양성지원과장 구본억**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는 각 대학이 일단 근거상으로는 학점……

○**소위원장 조정훈** 실장님, 학점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제도가 필요합니까? 꿈 같은 얘기 하실 필요 없어요. 국립대학 간에 학점 인정도 지금 잘 안 되는 판에 국립대-사립대 여기 사업 위탁기관 간에 학점 인정을 하겠다고요? 진짜로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제도적으로?

○**교육부인재양성지원과장 구본억** 위원님, 혹시 답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소위원장 조정훈** 예.

○**교육부인재양성지원과장 구본억** 지금 고등교육법상에 학점 인정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일단 마련이 돼 있고요. 대학에서 결정할 문제인데요. 진선미 위원님께서 많이 애정 갖고 말씀해 주시는 혁신융합대학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대학별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건데요. 거기에서 실제 학점 인정하는 사례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좀 결정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이라서 저희가 대교협과 함께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려고 합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계속 질문드리면, 김대식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신 지역혁신대학 RISE 사업에서도 교과목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미 2100억 원 이상 반영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인재양성지원과장 구본억**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ISE에서도 그 항목을 쓸 수 있는 것은 맞기는 한데요. RISE는 워낙에 해야 될 일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교육과정 개발 쪽에 포커싱이 돼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기도 하고, AI 같은 경우는 지금 수요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특화된 교육과정 개발 사업을 특징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게 이번 사업의 목표였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아까 그 과기부하고 합의가 됐다는 얘기는 예결위 가서 확인을 하

고 계속 논의가 되겠지만.

이 정도로 하고 일단 보류해 놓고 어차피 검토하는 거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2·23페이지는 이미 논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연번 5번 두뇌한국21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 번 항목은 지금 감액 의견입니다. 4단계 사업이 이미 중반기에 진입했기 때문에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비용 절감 요소가 있어서 사업관리비를 14억 원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하단에 있는 의견도 사업관리비의 증가 규모가 과도하기 때문에 6억 4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 번 항목은 지금 이공 우수인재 성장경로 지원과 관련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다 번 항목은 지금 거점·중소대 연합형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3개교를 선정해서 연간 10억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에 잡혀 있는데 이것을 9개교로 확대하기 위해서 15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연번 6번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 사업입니다.

가 번 항목은 감액 내용으로 경상경비 관련하여 2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기관장과 이사진의 기관 운영 관련된 문제점 지적 내용입니다. 나 번 항목은 정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27페이지, 다 항목은 이와 별도로 한국학중앙연구원과 관련하여 인문·이공 AI 융합 연구를 위하여 12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정부 측 입장 얘기해 주십시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의 가 번 14억 감액 의견에 대해서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그 이유는 최근 우수인재의 이공계 기피 현상이 굉장히 심각한 단계고 학부부터 박사 과정까지 전 주기 관점에서 맞춤형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4단계 두뇌한국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 사업에 필요한 사업관리비도 감액보다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또 나 번의 내역 산업인 이공 우수인재 성장경로 지원 이것은 원안 유지를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 다 번입니다. 내역사업의 15억 증액 의견 주신 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다음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입니다. 가 번의 경상경비 2500만 원 감액 필요인데, 이것은 경상경비는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이 기관에서도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기관장이 정상적으로 직무수행하려면 어느 정도의 경비는 필요하고 또 이사회 운영에도 이게 없어진다면 개최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다음 나 번은 김용태 위원께서는 원안 유지를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수용합니다.

그리고 다 번은 증액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업비 예산 중 한국학 기반 AI융합 연구 사업 신설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수용합니다. 한국학 기반에서도 우리가 전통 지식과 AI

기술을 창의적으로 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문정복 위원님.

○문정복 위원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과 관련해서는 최선영 전문위원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미 중반기 진입으로 들어가서 이것은 경상비를 조금 감액하자는 내용이고, 이미 인력체계가 안정화돼 있어요. 그래서 경비를 좀 축소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연구재단 전산 시스템 전자평가 정착으로 서면심사, 오프라인 평가 및 인쇄·우편·출장 경비의 상시 감액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가 점검주기를 조정해서 유사 지표는 통합하고 중간 점검을 간소화해서 외부용역 회의비를 좀 감축하자라는 내용인 거거든요. 그래서 방만 운영을 고려해서 오프라인 예외 승인제, 출장비 상한제, 분기별 투명 공시를 병행해서 경상비 절감을 제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세금은 눈먼 돈이 아닙니다. 한국연구재단이 두뇌한국21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고 이제 전반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경상비를 절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절감을 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감사합니다.

정을호 위원님.

○정을호 위원 저는 감액 요청을 했는데, 사업관리비 5번 항인데요. 보니까 사업규모가 증가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기존에 운영이 됐던 내내역사업인 TOP-Tier 연구장려금이 새로 신설된 내내역사업인 AI융합 교육연구단으로 돌려줬잖아요. 돌려줬고, 또 25년도 사업과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어 보이는데 사업비는 좀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이에 대해서 저는 6억 4500만 원 정도는 증액된 만큼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육부인재양성지원과장 구본익 인재양성지원과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년도 사업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정을호 위원님께서……

○소위원장 조정훈 죄송합니다.

우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그러니까 전문위원께 검토의견을 묻고 정부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토론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인 질의가 없으시면 더 이상 정부 의견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정 질의에 대한 답은 듣겠지만 정부 입장은 이미 실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문정복 위원님의 입장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아까도 안 계실 때 기본경비 얘기도 나왔지만 교육부 예산 중에서 지금 서울대 10개 등등의 큰 꼭지가 들어오는 이유로 교육부가 내년 예산이 증액된 아주 소수 부처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다른 예산은 더 아껴 써야 된다는 데에 큰 틀에서는 동의가 되고요.

그다음에 일단 증액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시고 정부도 동의를 하시는 거니까 증액은 예결위에서 검토가 어떻게 될지는 가 봐야 되겠지만 교육위 차원에서 증액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한국학중앙연구원도 경상경비…… 이것 잠깐 얘기하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 김용태 위원님과 정을호 위원님 입장이 약간 다르신데 그리고 감액 유지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한번 보면서 나중에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위원님과 정을호 위원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중앙연구원?

○**정을호 위원** 중앙연구원은 기존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김낙년 원장과 김주성 이사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어느 정도 경종을 울릴 필요도 있고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기에서는 그동안 국민 혈세로 뉴라이트 연구 사업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원장이 경제학 교수를 지속적으로 채용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비서 부정 채용 의혹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사장은 리박스쿨 정치학교장을 맡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원 정상화를 위해서 원장실과 이사의 불필요한 운영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저의 의견이고요.

그래서 저는 26년도 경상경비 25억 7000만 원 중에서 원장실 운영 및 이사회 회의비 명목 예산 2500만 원 정도는 감액해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같이 활동한 연구원분들도 왜 본인들이 이런 부분들에서 지속적으로 같이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경종을 울리지 않을까 하는 의견에서 2500만 원 감액 의견을 제안합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김용태 위원님.

○**김용태 위원** 정을호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다만 한국학이라는 것은 해외에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케이팝이라든지 한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에 해외에 출장 가는 것에 대해서도 몇몇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것이,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 더 많이 해외를 다녀서 우리 대한민국의 우수한 문화라든지 이런 한국학에 대해서 전파할 기회를 드리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을호 위원님께서 삭감하려고 하시는 취지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부분을 좀 고려해 주셔서 기관의 중요성을 같이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백승아 위원님, 이어서 김대식 위원님.

○**백승아 위원** 저도 정을호 위원님과 같은 입장인데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역할이 크다, 지원을 해야 된다는 김용태 위원님 말씀에는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 이사장이 그러한 역량과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물음표입니다.

해외출장, 너무 필요하지요. 왜? 가서 한국을 알려야 되고 외국과 차별화된 우리나라의 한국학을 어떻게 부각시킬지 아이디어도 얻고 벤치마킹도 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서 외유성 출장을 하는 게 문제지요. 그 일정표를 보면 그것은 놀러간 건지 일하러 간 건지

구분할 수가 없을 지경이고, 심지어 가서 개선점이 뭐였어요? 국감 때 말씀드렸잖아요. 글씨 크기 줄이는 거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원장과 이사장이 그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 감액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김주성 이사장은 국회도 불출석한 사람이에요, 제가 요청했을 때도. 그 태도가 아주 불량하다. 지금의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원장과 이사장을 교체하지 않는 이상 재기능을 할 수 없다.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감액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존경하는 백승아 위원님 말씀도 있고 김용태 위원님 말씀도 있는데 저는 지금 이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원장을 보고 예산을 짜는 게 아니라 기관을 보고 짜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동안 원장의 일련의 행동 하나하나 자체가 조금 적절치 못한 행동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 국회에서 국정감사나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지적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APEC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평가를 하고 또 한글 교육이라든지 K-문화, K-푸드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서 우리가 한국학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500만 원이라는 돈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경고하고 이 기관을 보고 예산을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백승아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짧게 한마디만 할게요.

○소위원장 조정훈 예, 짧게.

○백승아 위원 김대식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에요, 기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원장의 문제다. 그런데 이 경상경비는 원장실 업무추진비예요. 그리고 이사장이 국회에 불출석하고 여러 가지 문제적인 행보를 보이는데 이사회 회의비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감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앞으로 이 얘기가 조금씩 더 나오겠지만 저는 양당 위원님들의 입장 그리고 강경숙 위원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예산 심의를 할 때 지난해에 불용이 되었다 또는 새로운 사업이 그 타당성과 효율성에 있어서 문제가 됐다라고 해서 적극 검토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 특정 이사장과 원장이 했던 활동이 적절치 않았다고 해서 약간 별책성……

○백승아 위원 아니, 별책성은 아닙니다. 별책성은 아닙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제가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으로 예산을 감액한다는 게 과연 큰 틀에서, 우리 작년에 대통령실 특별비 감액 그리고 다시 원복,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와 똑같은 논리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활동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사회 회의비를 삭감하면 이사회를 열지 마라 또는 무료로 이사회를 하라 이런 결론이 나는데 과연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활동을 정지시키는 게 맞는가, 혹시 여

당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면 이사장과 원장의 교체를 정치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인 판단이시니까 저는 입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연구원의 기본 기능은 살려 두는 것이 만에 하나 이사장과 원장이 바뀌더라도, 이사장과 원장 바뀌면 여러분 또 추경해서 업무추진비, 이사회 회의비 바로 원복시킬 것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기관에서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은 과연 큰 틀에서 볼 때, 또 정권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뀌는 게 민주주의에서 맞는 것이고.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게 과연 우리가 아끼고 키워야 될 중앙연구원에 또는 다른 교육기관에 맞는 방식인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이것은 제가 좀 기록에 남겨 드리고. 이것은 정을호 위원님, 김용태 위원님을 비롯해서 한번 논의를 계속하고……

○진선미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저희가 지금 되게 많은데 말도 좀 빠르게 하고 어쨌든 의견을 일단 다 듣고, 지금 결정할 것은 아니니까 의견들은 담아 보고 진행을 좀 빨리하면 좋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사실은 그 말씀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진선미 위원 말도 좀 빨리해 주세요.

○소위원장 조정훈 예.

이어서 지역인재정책관 예산.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지역인재정책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7번부터 9번 사항입니다.

먼저 7번 RISE 사업 가변 항목입니다. 가·나 항목은 감액 의견인데요.

첫 번째 사항은 글로벌대학 사업이 30개교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27개교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150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가변 내용입니다.

나번 부분은 지금 RISE 사업의 인프라 구축이 어느 정도 완료되었기 때문에 사업관리비 절감 요소가 있으므로 16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이어서 29페이지 상단입니다.

정을호 위원님 내용은 지금 사업관리비와 관련된 내용으로 26년도에 마이스터대 지원과 대학의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관리비 1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다번 항목은 증액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의대와 관련해서 지원액을 최소 5억 원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160억 원의 증액 내용입니다.

라번 항목은 신설되는 지역혁신 허브화 인센티브 관련 내용입니다. 현재 국립대 지원으로 200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을 9개 대학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15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8번 국립대학 육성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과 국정과제 관련된 사업입니다. 거점국립대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분야의 연구대학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내용입니다.

먼저 감액 의견 관련된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나·다 항목입니다.

먼저 첫 번째, 가의 조정훈 위원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물 중심의 성과지표가 없기 때문에 4492억 5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이어서 김대식 위원님께서 지역 사립대학교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있기 때문에 468억 2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하단에 있는 김용태 위원 의견은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54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31페이지 내용입니다.

나번 항목은 사업관리비와 관련된 감액 의견입니다.

문정복 위원님께서 대학혁신지원과 RISE 사업과의 성과 통합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관리비 절감을 예상해서 14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하단에 있는 정을호 위원님 내용은 사업관리비가 과도하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9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32페이지, AI거점대학과 관련해서는 앞서 논의하신 과기부의 AI중심대학과 중복 소지가 있기 때문에 300억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33페이지 내용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라와 마 항목입니다.

먼저 서지영 위원께서는 지금 예산의 원안을 유지하되 거점국립대 9개교를 대상으로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세부 산출근거를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하단 박스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정복 위원께서는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주요 사업인 만큼 예산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4페이지 마번 의견은 AI거점대학과 관련해서 과기부 사업과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34페이지의 마·바·사 항목은 증액 의견인데요.

먼저 바 항목은 연구중심대학 인센티브 관련입니다. 9개교로 전반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3개 학교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600억 원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내용입니다.

사 항목은 AI거점대학 관련해서 이 부분도 9개교로 확대하기 위해서 1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아 항목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과 조금 관련성이 없는 일반국립대 지원 사업인데요. 국가중심 국립대 17개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630억 5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역인재정책관실 마지막 사업으로 서울대학교 출연지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번 항목은 감액 사업인데요. 법인화 이후 지원 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성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408억 4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나번 항목은 증액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서울대학교가 관리하고 있는 선교사 유적과 관련된 학술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시간 관리가 필요해서, 지금 이것 하면 한 2시 되겠지요? 제일 중요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은 점심 이후로 좀 미루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선미 위원 정부 의견은 듣고 하시지요.

○소위원장 조정훈 그래서 정부 의견도 7번 지역혁신 RISE 사업까지만 논의를 해서 끝내고 8번 국립대학 육성사업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점심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7번도 오래 갈 수 있습니다만 7번에 관해서만 정부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번입니다. 가번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 주셨는데 RISE 내의 글로벌대학 지원 예산 감액에 대해서는 수용이 좀 곤란합니다. 그 이유는 글로벌대학 지원금은 RISE 사업의 인센티브로 우선 지원되는 구조로 여기에 3개를 덜 뺐었다고 그래서 잔여 예산이 필요 없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 RISE 체계 내 타 대학 지원금으로 활용됩니다. 예산을 삭감할 경우에 타 대학에 지원할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나번입니다. RISE 사업 사업관리비를 문정복 위원님과 정을호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이것은 수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RISE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과평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지금 초광역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이랑 같이 하는 사업 확대 또 RISE로 통합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성과 확산을 위해서는 사업관리비 유지가 필요합니다.

다번입니다. 이것은 증액인데 의과대학 교육혁신 지원사업 증액 의견을 수용합니다. 의정 사태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의대교육의 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개선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 의견 주신 것에 공감하면서 수용합니다.

라번입니다. 지역혁신 허브화 인센티브 내의 거점국립대 지원이 비수도권 9개 대학으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150억 원을 증액해야 된다 그런 의견 주셨는데 RISE 사업에서 비수도권 거점국립대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김문수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RISE 체계가 국가균형성장 기조에 더욱 부합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거점국립대학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감사합니다.

그러면 증액 2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견이 없으므로 나머지 감액에 대해서만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님, 백승아 위원님, 문정복 위원님.

○김대식 위원 제가 먼저입니까?

○소위원장 조정훈 예,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내가 150억 이렇게 감액한다니까 많이 놀라셨지요?

○정을호 위원 다 놀랐어요.

(웃음소리)

○김대식 위원 이게 원래 국민과의 약속이 30개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이 150억 삭감을 하게 되면 다른 대학에 영향을 준다, 영향을 줄 수가 없지요. 원래 예산상 27개를 했으면 27개에 맞는 예산 편성을 그동안 했잖아요. 그러면 30개 대학을 만든다고 했는데 3개 대학이 빠졌고 27개만 선정을 해서 27개만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 아십니까? 점수가 어떻게 됐든 간에 심사해서 3개 대학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27개 대학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3개 대학에 대한 150억 삭감을 한다고 해서 다른 대학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 다른 27개 대학이 김대식 위원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김대식 위원한테 질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런데 지금 내 생각과 교육부 생각과 27개 대학 의견과 다른 탈락된 그리고 지방에 있는 대다수 대학들의 생각은 또 다 다를 것이란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27개 대학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고, 그러면 3개 대학을 안 하고 기본적으로 27개 대학으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해 갖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 번이라도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27개밖에 안 했으니까 3개 대학을 안 하니까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고 해야, 지금 저하고 조정훈 위원님 둘이 예결위 들어가 있지요. 거기에서 또 소위 6명 속에 우리 둘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경숙 위원 그런데 이게 총액 베이스여 가지고 따로 갈 수 없어요.

○김대식 위원 아니, 총액 베이스인데 27개의 총액 베이스, 그러면 3000억을 나눠서 1000억씩 준다고 했는데 1100억씩을 줍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1000억을 지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1000억에 한계가 딱 묶여 있잖아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RISE 사업 전체 예산이, 여기 큰 틀 안에서 이렇게 7개를 뽑아낸 겁니다. 이렇게 뽑아낸 것이기 때문에.....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7개 뽑아냈는데 그러면 7개 대학에다가 3개 대학, 10개 것을 대학을 합하면, 그러면 다른 대학은 1000억 주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대학한테 1100억, 1200억을 주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과장님이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지역인재정책과장 최우성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장 최우성입니다.

저희가 지방대학 육성이라는 큰 틀에서 RISE 체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이 RISE 체계라는 것 자체가 지방대학 전체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RISE 체계 내에서 모든 지방대학을 지원을 하되 그 안에서 혁신성과 모델의 실현 가능성이 있는 대학을 일부 뽑아서 다른 대학의 모델로서 글로벌 대학을 육성으로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구조 내에서 이런 취지에서 인센티브로 편성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글로벌 대학으로 지원이 되지 않는, 아까 말씀 주신 그 예산은 지역에 있는 RISE 체계 내에서 다른 사립대나 전문대, 국가 중심대 등에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RISE 사업과 글로벌 대학의 항목 자체가 다르잖아요. 같은 게 아니잖아요. RISE는 RISE 사업대로 해 왔고 글로벌은 글로벌대로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십니까? 그 RISE 사업은,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육성을 하고 그렇게 맞습니다. 그것은 교육부의 설명이 맞는데 RISE 사업과 글로벌 사업은 완전히 항

목 자체가 다르다니까, 기본 설계할 때부터. 그렇지 않아요?

○**교육부지역인재정책과장 최우성** 조금 더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김대식 위원**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교육부지역인재정책과장 최우성** 지금 RISE 사업 예산 내에 글로벌 사업 예산이 지원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글로벌 사업 예산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매년 조금 유동적으로 편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개수뿐만 아니라 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까지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의 산출 기초를 저희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에 따라서 RISE 체계 인센티브, 사업 취지를 고려해서 인센티브로 지원이 되고요. 이 인센티브가 만약에 소요가 될 되면 나머지 대학들이 기본사업비나 아니면 시도에서 운영하는 과제 등으로 지원이 되게 됩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복잡하네요.

○**김대식 위원** 하여튼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시간이 지나가니까.

○**소위원장 조정훈** 이어서 백승아 위원님.

○**문정복 위원** 저는 조금만 바꿔 주십사 하고……

○**소위원장 조정훈** 문정복 위원님.

○**문정복 위원** 실장님, 한국연구재단의 홍원화 이사장이 이번에 미국과 사우디를 갔다 왔잖아요. 그 갔다 온 비용이 어디서 충당됐는지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못 받았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못 받았습니다.

○**문정복 위원** 한국연구재단의 이사장은 출장비가 300만 원이고 관공비가 3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미국하고 사우디를 갔다 왔을까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사업 관련해서……

○**문정복 위원** 미스터리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문정복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에서 쪼개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RISE 사업 관리비에서 돈을 쪼개 가지고 그것 가지고 이사장이 출장을 갈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지역 혁신 중심 RISE 사업 체계에서 16억 감액하는 것은 실제로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연구재단이사장이 혹여라도 갖다 쓸 수 있는 경상경비 삭감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 반대하지 마세요.

국민의 세금을 그렇게 허투루 쓰면 안 됩니다. 연구재단이사장 해외출장 가서 놀고 먹는 데 이런 국가예산 쓰라고 경비 편성해 주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16억, 저희가 13억과 1억, 1억, 1억 이렇게 조목조목 다 정리해 놓은 것은 사업별로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이 사업 감액하는 것 받아들이십시오. 나라도 어렵고 교육비 예산도 어려운데 허리띠 졸라 매는 차원에서 RISE 사업에서 한국연구재단이 경상비로 쓸 수 있는 이 돈 감액하시자고요. 반대하지 마세요.

○**소위원장 조정훈** 문정복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 취지에 동의하고요. 그야말로 교육부 기본경비도 다 일괄적으로 원복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정을호 위원 갑자기?

○문정복 위원 왜, 이것하고 그것하고 다른 거야.

○강경숙 위원 감액으로 원복?

○소위원장 조정훈 그거랑 그거랑 똑같지. 지금 나라가 어렵고 교육부도 어려운데.

○강경숙 위원 다르지. 그거랑 이거랑 달라요.

○소위원장 조정훈 백승아 위원님.

○백승아 위원 아까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요. 확실하게 하려고 다시 여쭙면 글로컬 예산이 30개 대학 전제로 1개교당 사업비 기준으로 편성된 거 아니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백승아 위원 그걸 확인을 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원래 10개 이내로 했었고요.

○백승아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30개가 아니라 27개로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여러 차례 말씀 올렸습시다마는 3개하고 나머지하고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백승아 위원 심하게 나세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백승아 위원 그러면 덜 선정된 만큼 사업비 남는 거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는 3000억이 되잖아요, 3개교니까. 지금 당장의 사업관리비, 시작하는 건 50억이지만 그 3000억 예산이 원래는 3개에만 갈 게 흠어져 가지고 전문대 포함해서 사립대까지 가는 겁니다. 이거 여기서 깎아 버리면 대학 예산이 지금 늘어도 시원치 않은데 김대식 위원님께서 그걸 깎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김대식 위원 백승아 위원님한테 답변하세요.

○백승아 위원 궁금한 것 다 충족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정을호 위원님.

○정을호 위원 저는 사업관리비 중에 50억을 40억으로 10억 감액하는 부분인데요. 중앙 RISE센터 한국연구재단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내역사업 중에 보니까 마이스터대 지원 그다음에 대학의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사업 이 두 가지가 내년 2월에 종료되더라고요. 맞지요?

○교육부지역인재정책과장 최우성 예, 맞습니다.

○정을호 위원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후 지역 RISE센터에 운영이 넘어가지요. 넘어가는데 관리 사업 개수가 감소했음에도 사업관리비가 증액이 됐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증액된 만큼은 제가 봐도 증액될 이유가 없는데 증액돼 있어서 저는 10억을 감액 이야기하는데 혹시 할 말 있으면 해 주시지요.

○교육부지역인재정책과장 최우성 지역인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관리비는 50억으로 25년 전년 동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 사업관리비 감액에 대해서 한번 제고를 해 주십사 저희가 정말 요청을 드리는 게 내년에 저희가

RISE 사업 2년 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1년 차 성과평가를 해야 됩니다. 시도가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저희가 시도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시도를 평가할 때 단순히 문서만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에 직접 가 가지고 현장에서 어떻게 시도의 계획을 느끼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17개 시도를 다 가려면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새롭게 내년부터 수행하는 초광역 과제가 있습니다. 시도 간 협력을 하는 과제인데요. 지금 경제권은 17개 시도 단위가 아니라 거의 5극 3특, 부울경 이런 체제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 경제권 내에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시도 간 협력을 촉진하려고 합니다. 이런 시도 간 협력 촉진은 중앙 단위에서 아무래도 역할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사업관리비에서 저희가 써야 된다는 부분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RISE로 통합되는 사업들이 있기는 한데 진선미 위원님께서도 국정감사에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COSS 사업이 통합이 될 예정입니다. COSS 사업에 사업관리비가 25억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COSS 사업이 RISE 사업 내에서 사업 성과를 계속 유지하고 사업단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반영시켜 주기 위해서는 이 사업관리비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정을호 위원님 수용이 되십니까?

○정을호 위원 예.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10억 감액 필요 철회하시겠습니까?

○정을호 위원 아니요.

○소위원장 조정훈 계속 유지하시겠습니까?

○정을호 위원 예.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보류하고.

김대식 위원님 150억 감액 필요에 대해서는……

○김대식 위원 일단 보류.

○소위원장 조정훈 일단 보류하시겠습니까?

○정을호 위원 철회하시지요.

○소위원장 조정훈 전문위원실에서 이따가 마무리할 때 시간이 꽤 걸릴 듯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고 2시에 다시 모여서 가장 중요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예산에 대한 토론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조정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오셨군요. 고생하셨습니다.

들으셨겠지만 오전에 저희가 28쪽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프로그램)까지 검

토를 마쳤고 국립대학 육성 사업에 대해서 전문위원 의견 주셨고 이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RISE 사업에 대한 의견 말씀……

○**소위원장 조정훈** RISE 사업은 끝났고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아, 국립대 육성 사업이요.

○**소위원장 조정훈** 국립대학 육성 사업, 30페이지 8번부터 저희 위원들의 증감액 의견에 대한 정부 측 입장 주시면 됩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국립대 육성 사업 감액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 교육부에서는……

○**소위원장 조정훈**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가 있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의견 주시면 됩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우선 가,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 거점 국립대를 5극 3특 성장 엔진과 연계해서 균형 성장을 뒷받침하는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거점 국립대의 교육연구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입시경쟁을 완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나.

○**교육부차관 최은옥** 나의 감액 의견에 대해서도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AI 거점대학 특성화 연구중심 대학 신규 선정 그리고 거점대 글로벌 사업 중간 평가 관리를 위해서 해당 예산 반영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차관님, 가, 나, 다, 라, 마, 바, 사까지 그 사업에 있는 모든 위원 의견에 대한 정보, 의견을 일괄적으로 주시면 됩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잠시만요.

○**소위원장 조정훈** 박성민 실장은 예결위에 내려가셨나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예결위 배석하러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냥 감액하지요, 300억인데. 아무 논리가 없으신데요.

차관님, 바쁘신 건 알겠지만 이건 조금 당황스럽네요. 어떻게 준비를 전혀 안 해 오셨습니까? 예산소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르시는 것 같고……

○**교육부차관 최은옥** 아니요,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소위원장 조정훈** 부처 직원들은 어떻게 차관님을 보좌했길래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합니까? 오전에 차관 배석 안 한 것도 실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하는데.

준비되셨습니까, 차관님?

○**교육부차관 최은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순서가 조금 달라서 그거 맞추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다변에 지역 전략산업에 따라서 지산학연 협력 기반 연구대학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도……

○**소위원장 조정훈** 그게 아니에요. AI 거점대학 사업에 대한 코멘트였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AI 거점대학 육성 사업은 과기부의 AI 중심 대학과 목적 그리고

지원 대상, 내용 등이 다르고 과기부와 실무 협의를 저희가 거쳐서 중복 없이 지원하기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감액 의견은 수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변에 있어서 다시.....

○소위원장 조정훈 가변이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아까 감액 의견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다시 가에서 원안 유지.....

○강경숙 위원 서지영.....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서지영 위원이 원안 유지하라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에 원안 유지가 필요하고 저희가 대학의 준비도나 지역 여건, 학무 분야 등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어서 산출 근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우리 행정실, 어떻게..... 자료가 다른 버전을 보고 있는 겁니까, 됩니까? 왜 그러지요?

○김대식 위원 차관님이 보는 버전과 우리가 보는 버전이 좀 다른 것 같아.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거를 통일시켜야 조금 설명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차관님께 최종 보고를 안 드린 것 같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래요?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예.

○소위원장 조정훈 정을호 위원님, 이렇게 잘못하면 패널티로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학연구원처럼?

○백승아 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오늘 오전 7시에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준비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런 것 같은데 좀 양해하면서 하지요.

○강경숙 위원 그리고 솔직히 너무 시간이 없는 것은 진짜 문제입니다. 볼 시간이 없어요.

○백승아 위원 우리 보좌진들 지금 얼굴 누렇게 뜬 것 보세요.

○강경숙 위원 다 어제 밤새고 진짜 볼 시간도 없고, 정부도 정리할 시간 없고.

○백승아 위원 그러니까 정부도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거잖아요.

○정을호 위원 위원장님, 한번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10분만 정회해서 정리하고 하세요.

○김대식 위원 그래요. 10분 정회하고 좀 준비해 가지고 하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10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조정훈 준비가 됐으니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생각할 때 33페이지 라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33페이지 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가를 낮추어서 균등 배분하는 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아니요. 이거 원안 유지안인데요, 이게. 33페이지 라……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러니까 산출 근거가 원안 유지인데 대상을 9개로 하라는 안이라서요.

그 다음에 34쪽에 마, AI 거점대학에 대해서 원안 유지안은 수용입니다.

그리고 바 번에 연구중심대학 인센티브를 9교로 확대하여 하는 것은 저희가 증액은 수용을 하고요. 그렇지만 9개 대학에 일률 배분이 아니라 좀 차등 배분하는 안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5쪽 사, AI 거점대학 150억 증액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증액은 수용하지만 단가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 번입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 일반국립대 지원에 대해서 630억 증액하는 것은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좀 여쭙보면 이거 워낙 중요하고 국정감사, 현안질의 등에서도 많이 나왔던 정책인데 큰 틀에서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3개입니다.

하나가 사업관리비 감액이 흥미롭게 여당 위원님들이 다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중심대학 인센티브를 3개에서 9개로 늘려라라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AI 거점대학 이 세 가지인데 일단 하나씩 보면 사업관리비 절감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뭐지요, 구체적으로? 아니, 죄송합니다. 그 상황이기 때문에 정을호 위원님부터 의견 좀 내주시지요.

○**정을호 위원** 저도 지난번에 발표하신 거 봤거든요. 봤고, 정부가 하려고 했던 부분이 이해도 갑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거점 국립대 9개 이야기했을 때 모든 부분들을, 균형발전이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등한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가야 된다는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재명 정부가 처음에 나와서 탄생했을 때 이야기했을 때도 아마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했을 거고 모든 분들이 그렇게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과라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세금이라는 부분들이 허투루 쓸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느 정도 성과지표의 부재, 정책 목표 등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한 재정 확대가 아니라 5극 3특 지역별 전략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연구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처음 시작하고 성과가 좀 미진할 수도 있겠지만 9개 국립대 맨 처음에 이재명 정부 출범했을 때 이야기했을 것 같은 그런 부분을 함께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증액 부분들 증액을 좀 하시는 부분들이 낫지 않겠냐는 그런 의견입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위원님, 저희가 이 부분은 첫 시작이고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역점을 두어서 해 나가야 되는 사업인데 그렇기 때문에 국민 세금인 예산을 들여서 하는

데 그만큼 성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저희가 더 많이 배정이 돼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만큼의 예산을 모든 거점대학에 줄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저희가 예산이 한정된 한도 내에서 우선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이게 저희가 대학만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략산업은 산자부에서 지방시대위원회랑 같이 해서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지정이 되고 또 거기서 성과가 빠르게 날 수 있는 지역부터 저희가 해 나가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가를 낮추어서 좀 고르게 배분하자 하는 것은……

○**정을호 위원** 증액하고 단가를 낮추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런데 증액을 지금 3개 지역에 줄 수 있는 그 수준으로 모든 지역을 증액하면 몰라도 단가를 낮추…… 물론 증액은 하시지만 단가를 낮추어서 좀 고르게 배분하자는 거는 저희가 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을호 위원** 그러면 각 국립대 총장들께서 하셨던 부분 문제점도 아마 인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그렇습니다.

○**정을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하려고 하시는지……

○**교육부차관 최은옥** 지금 저희가 국립대 육성사업 예산이 8700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는데 그것을 전체를 3개 대학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해주신 대로 그중에 교육 연구에 있어서 성과 관리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3개 대학을 하고 다른 교육 혁신하는 부분은 전체 9개 대학에 다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개 전체 대학의 전체 가는 예산이 있고 그중에 일부는 3개 지역에 있는 대학만 가고 그렇게 좀 이중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서요.

○**정을호 위원**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3개교 이상 더 확대하는 거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생각을, 더 여기서 논의를 해도 수용이 불가하다는 건가요? 3개교 이상, 예를 들면 3개교가 아니라 더 확대하는……

○**교육부차관 최은옥** 전체를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9개 대학. 단가를 낮춰서 9개 대학에 이렇게 좀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은 저희가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을호 위원** 잠깐 하면 저는 균형발전이라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아마 이 안에도 들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그다음에 우리 정부에서 했던 생각도 저도 수용을 하고 인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이라는 부분들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감안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그런 의견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저는 전략산업 분야가 5국 3특에 대해서 지방시대위원회인가 거기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함께 논의 중인 거잖아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아까 성과 지역부터 한다 그 말씀은 저는 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9개는 9개대로 가고 몇 개는 AI 중점이니 이런 것들은 인센티브도 따로 주는 건데 제가 사실 궁금한 건 이 3개의 교를 선정하는 건지 지정하는 건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선정하는 거는 사실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쟁을 거쳐야 될 것이고, 선정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정이야 찍어서 주는 것이겠지만 그 절차를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명확하지가 않아 보여서 그 3개에 대한 것도 의구심이 있어요.

하여튼 3개를 따로 하는 거 저는 그냥…… 서지영 위원님도 9개를 균등하게 배분하자, 정을호 위원님이랑 유사한 의견인 것 같은데 명분으로는 되게 맞지만 실제적으로 추진할 때는 교육부에서 기획하는 것이 저는 좀 괜찮은 것 같기는 해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이거는 정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워낙 큰 꼭지라 일단 한두 가지만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교육부는 몇몇 위원님들이 제안한 학교 단가라 그럴까요, 학교당 배당된 금액을 나눠서 선정 대학 숫자를 늘리는 건 반대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유일하게 학교를 늘리는 방법은 총액 예산 증가하는 건데 여러 정황상 현실적으로 정부 차원의 동의를 얻기 힘들다라고 짐작하시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3개 학교를 선정하는 기준은 뭐니까? 그냥 영남 하나, 호남 하나, 충청 하나 이렇게 됩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건 아니고요.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진짜 블라인드로 하실 겁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아닙니다. 전략산업과 연계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산업 혁신이 좀 빠르게 될 수 있는 지역의 거점대학을 지원하게 될 텐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방시대 위원회와 산업부와 같이 논의해서 정하게 될 겁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결국 지역 안배를 할 거라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런 건 아닙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저는 실은 시간 때문에 넘어가겠지만 3개를 집중하겠다, 그 다음에 또 3개 선정하고 이걸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지역균형을 하게 되면 같은 지역에 강한 대학이 두세 개 뭉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산업 거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당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저희 야당 위원에게도 총장님들이 다 오셨는데 3개 하는 건 좋다, 3개 간다면 쉽게 얘기해서 블라인드 테스트로 뽑아 달라. 진짜 학교의 경쟁력으로 뽑아 달라, 지역 배분하지 말고. 그러면 오히려 역차별 당하는 국립대학이 있을 수 있다. 이것도 솔직히 할 만한 주장이지 않습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맞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저희 정부로서는 성과를 정말 제대로 내야 되기 때문에 준비된 대학부터 해야 성과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준비되고 실력 있는 대학부터 해 달라라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여야 위원님들,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논의가 꽤 클 거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리면 여야 위원 모두 증액 감액 다 철회하고 정부안으로 넘어가면 어떨까요? 괜찮으십니까?

○정을호 위원 예.

○백승아 위원 예.

○강경숙 위원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9개로 늘리지 말고……

○강경숙 위원 그것은 처음 아닌 것 같아요.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니까 증액 감액 다 없이 정부안으로.

○강경숙 위원 예.

○김대식 위원 차관님, 원래 취지 자체가 국립 거점대학 9개로 하는 거잖아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김대식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지역 안배 관계없이 한 지역에 하면, 예를 들어서 부산이다 그러면 부산에 국립대 4개니까 부산에서 2개가 될 수 있겠네?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런데 저희가 5극3특하고 연계를 해서 하니까, 지역은 4극3특이잖아요. 처음에 3개를 선정하면서 그 4극에서 한 지역 안에 2개를 선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김대식 위원 지금 경남에 국립대가 몇 개 있잖아요. 그다음에 부산에도 몇 개 있잖아요. 울산에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울경 같으면 거점대로……

○교육부차관 최은옥 거점대만 아니까요?

○김대식 위원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부산에 하나, 경남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일극, 거점대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5극이 됐든 4극이 됐든 간에 지역 안배 관계없이 하겠다’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경쟁력 있는 준비된 대학부터 하겠다’ 이랬잖아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준비된 대학부터 하지만 그게……

○김대식 위원 그러면 부울경에서 한 2개 갖고 가고 호남에서 나머지 하나 갖고 가고 이렇게 하면 다른 대학이 그거 할 수도 있잖아요. 이번에 글로컬대학 3개가 한꺼번에 충청도로 가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위원님, 지역을 베이스로 해서 특화산업과 연계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3개를 선정하면서 그 지역 안에서 2개의 대학을 선정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식 위원 없는데 이번에 글로컬대학을 그렇게 했잖아.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것은 전체 27개의 글로컬대학을 선정하기 때문에……

○김대식 위원 이번에 7개 중에서 3개가 충청도로 갔잖아. 그러니까 대부분은 우리 생각을 이해하는데 다른 대학의 관계자들은 아무리 그렇게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 하지. 7개 중에서 3개가 충청도로 갔으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라. 그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진선미 위원 그 이전에 경상도에 많이 갔잖아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글로컬대학은 앞에 20개가 선정될 때도 일부 지역 편중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7건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마지막으로 부대 사업관리비인데 그것은 14억을 제안한 문정복 위

원님과 정을호 위원님 제안 중에 그래도 가장 적은 금액인 9억 원 정도의 삭감을 수용하시면 어떠세요? 그 나머지는 건들지 않고 그냥 넘어갈게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위원장님, 그런데 이 사업은 정말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잘해야 되는 사업인데 사업관리……

○**소위원장 조정훈** 안 그러면 예결위 가서 본체가 잘릴 수 있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위원장님도 예결위에 계시고 한테 정말 당부드리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적은 돈을 너무 아끼는 것은, 저희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기획하고 평가할 거기 때문에 그것은 삭감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알겠습니다. 일단은 무슨 뜻인지 이해했고 다만 예산 검토를 다 마치고 나서, 지금 현재 교육부가 동의한 예산 금액이 4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것. 이렇게 동의를 안 하시면 마지막에는 위원들이 자의적으로 감액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소위원장 조정훈** 넘어가겠습니다.

36페이지, 9번 서울대학교 출연 지원에 정부 이견 있으십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서울대학교 출연 지원 관련해서 출연 지원 금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예년 수준으로 감액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교직원 인건비라든지 기관운영비 이런 것이 인상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을, 기본 경비를 줄일 경우에 대학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대학교가 관리하고 있는 선교사 유적에 대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 종교단체나 환경단체 관련 문제가 합의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당장 예산편성을 했을 때 이것을 집행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일단 저희가 의결은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출연금에 대해서는 아까 인천대학교에 대해서 논의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니까 증액·감액은 철회를 하되 부대의견 ‘교육부는 출연금을 지급받는 법인화된 국립대학이 경영 효율화 노력 등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동의하시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진선미 위원** 위원장님, 그것과 관련해서도 아까 인천대에 대해서 부탁한 것처럼 증액한 그 부분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정리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차관님 아까 보고받으셨지요?

○**진선미 위원** 서울대 따로 전달했는데 혹시 체크되면 그것을 보고 저도 의견을 내려고 하거든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부대의견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감사합니다.

그러면 평생직업교육정책관 관련 예산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소관입니다.

자료 37페이지 10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흥원 출연과 관련해서 학점은행제 수수료 관련 사항입니다. 예상 수입이 121억 정도 되는데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현저히 적고 관련 수수료를 낮추어서 학습자의 부담 완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17억 5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나번 항목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점은행제 운영과 관련해서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하여 22억 5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연번 11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학재단 출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가번 항목은 감액 의견입니다. 상임감사·감사실장의 해외출장 등의 기관 방만 운영에 대해서 증액분에 대해 1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나번 항목은 제도개선에 따른 학자금 대출 수요를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안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차관님, 여야 위원들이 정회 시간에 상의를 했는데요. 저희가 부탁 드리는 것은, 증액 중에 동의를 하시는 것은 그냥 ‘동의합니다’라고 간단히 말씀하시면 되고 수용하기 어려운 것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액 의견은 물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진행해 주시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과 관련해서 가번, 동 사업만 보면 그렇겠지만 진흥원 자체가 수지차보전기관이고 저희가 수수료를 98년 이후에 인상한 적이 없기 때문에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번은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장학재단 출연 관련해서 가번, 1000만 원 감액하는 것은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번, 원안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정을호 위원님.

○정을호 위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지금 이야기한 것 중에 제가 17억 5000만 원 감액을 이야기했는데요. 아까 내용으로 보면 어느 정도 인정하신다고 하셨나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러니까 이 사업 관련된 예산만 보면 이게 좀 남고 그렇다고 보실 수 있는데 이 진흥원 자체가 수지차보전기관이라서 이것을 전체 자체 수입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액하면 전체 예산이 삭감되는 결과가 돼서 예산 편성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을호 위원 그런데 보시면 학점은행제 수수료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121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수수료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수수료라고 하면 이왕이면 학점은행자들한테 수혜가 가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그분들한테 가는 돈은 한 70몇 억이 되는 것 같고 나머지 58억은 아마 다른 데에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수료라고 표현하시는 것, 예를 들면 평가인정 수수료가 아마 개별 과목당 7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기관당.

○정을호 위원 예. 그리고 1명당 수수료가 1000원씩 부과되는 것도 있고 4000원 정도

부과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또 나이스에서 다 인증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점 조회할 때 비용을 추가로 내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학습자 부담이 계속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높이고 깎아 주지 않으면서 수수료는 좋은 데에 사용하시겠지만 다른 데에 사용하고, 낸 수수료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벌었으면 학점은행제 당사자들에게 사용되면 몰라도 다른 것에 사용되는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만큼 감액하는 게 맞다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위원님, 이 사업을 감액하면 정부예산에 그만큼 더 넣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기관을 운영하려면.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을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의견을 제시했구요. 그러면 아까 차관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학점은행제 운영 수수료 관련해서 나중에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에 담아 주시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원장 조정훈** 감액 필요는 철회하시고?

○**정을호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감액 필요 철회하시고 부대의견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차관님, 38페이지에 22억 5000만 원 증액 수용하신다고 했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김대식 위원**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 18억으로 학점은행제 글로벌화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담당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교육부평생학습지원과장 이진영** 학점은행제 글로벌화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고요. 외국인을 대상으로, 특히 K-컬처와 관련해서 한국어 교육과정을 외국인이 학점은행제로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재외국민이 꼭 국내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원격 형태로 해서 한국어 강좌를 듣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교육위 상임위원회에서도 끝까지 계속 주장했던 게 이거예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국에 사이버대학이 22개 있는데 사이버대학 전체에 이것을 풀어 줄 겁니까?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부평생학습지원과장 이진영** 현재 사이버대학에는 학위 과정으로서 한국어 강좌가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서 한글을 사이버로 듣고 이렇게 할 수 있게 그것 풀어 주실 거냐고요.

○**교육부평생학습지원과장 이진영** 사이버대학의 평생교육시설이 학점은행제 기관으로 되어 있는 기관이면 이렇게 풀어 주는 것 가능합니다. .

○**김대식 위원** 그것을 전 세계적으로 다 풀 수 있다고요?

○**교육부평생학습지원과장 이진영** 예. 그래서 다국어……

○**김대식 위원** 제도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방송통신대학교

총장은 지금 상황이 제도적으로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육부하고 의견이 좀 틀려요. 글로벌화하는 것에 나는 적극 찬성합니다. 이것에 적극 찬성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시스템 자체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다고요. 사이버대학도 안 되고 방송통신대학도 안 돼요. 그것을 한번 해 가지고 저한테 보내 줘 보세요.

○**교육부평생학습지원과장 이진영** 예.

○**김대식 위원** 이것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도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저한테 한번……

○**교육부평생학습지원과장 이진영**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아마 다음 주 예결소위 시작하기 전까지 하셔야 될 겁니다.

○**김대식 위원** 다음 주부터 예결소위가 들어가거든요.

○**교육부평생학습지원과장 이진영** 예.

○**문정복 위원** 제가 육성사업에 대해서 발언을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이따가 마무리 발언 할 때 다 다시 한번 볼 거니까 그때 발언하시지요.

의대교육지원관 관련 예산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40페이지 연번 12번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입니다.

가 항목은 정책사업 관련된 내용으로 전공의 복귀에 따라서 당직 필요성 등이 감소했기 때문에 당직비 지원 126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나번 항목도 정책사업으로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관련된 내용으로 2억 1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다·라 항목은 시설 확충·보수 관련인데요. 세종충남대병원에서는 지금 정부안에 포함된 5억 8100만 원에 대해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병원에서 중장기 계획 수정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번 항목은 시설확충 보수내용으로 서울대병원의 디지털 보안체계 강화사업비 12억 1300만 원 관련이고요. 또 이어서 설명드리면 서울대병원 R&D 관련 임상병원 설립 해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마번 항목이 마지막 내용인데 이것은 전남대병원 관련해서 노후장비 교체에 필요한 5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우선 가번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126억 감액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번 정책사업은 저희가 수용이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다는 세종충남대병원건은 수용하겠습니다. 라, 시설확충 및 보수 관련해서는 제가 수용이 좀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번 전남대병원건은 수용이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일단 가번은 수용했으니까 논의할 것 없고, 나번은 수용 어렵고 곤란, 그다음에 다번도 수용하신 거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소위원장 조정훈** 라번은 수용 곤란, 그다음에 마번도 수용 곤란.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소위원장 조정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차관님, 실은 큰 틀에서 감액에 대한 반대는 저희가 좀 토론하려고 하는데 증액에 대해서 수용 불가는 실은 저희도 저희지만 예결소위에서 진행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완벽한 중복 예산이기 때문에 또는 저희가 해 드려도 기재부를 설득해도 교육부의 사업에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면 수용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참고로 기재부의 역할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차관님.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맞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래서 감액은 수용하셨고 서울대병원 증액도 반대하시는 겁니까?

○김대식 위원 수용 곤란이지요.

○정을호 위원 서울대 R&D 예산.

○소위원장 조정훈 R&D 예산과 디지털 보안체계 강화예산 증액을 반대하시는 게……

○교육부차관 최은옥 병원의 시설사업비 같은 경우가 예산이 급하게 증액 편성이 됐을 때 저희가 집행을 못 하는 사례가 왕왕 있었어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도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검토가 필요하고, 병원 전체 예산 통으로 있는 데서 한 병원당 한 사업 해서 배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좀 곤란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김용태 위원님.

○김용태 위원 차관님 설명이 납득이 좀 어려워 가지고. 서울대병원의 스마트 보안 및 재난복구 예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다른 병원하고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하고 그다음에 집행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이유 두 가지인 걸까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저희가 병원 시설예산을 편성을 할 때 병원이 우선순위를 해서 리스트를 주면 그것을 병원이 요구하는 사업 우선순위, 그다음에 시급성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전체 14개 대학병원에 대해서 배분하는 것도 고려를 해서 편성을 하는데요.

이것은 그렇게 순위가 높게 올라오지 않은 예산인데 갑자기 증액 요구가 되어서 저희가 집행 가능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이건 김용태 위원님이 예산 요청하신 건데 일단은 증액을 해 놓고 다음 주에 예결소위에서 서울대 등등과 확인한 후에, 어차피 차관님 예결위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소위원장 조정훈 그때 기재부의 입장은 예측 가능한데, 그렇게 정리하시면 어떨까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감액을 수용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증액에 대해서도 확인 결과 진짜 대학병원이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면 김문수 위원 여기 안 계시긴 한데 본인의 지역인 전남대하고 또 칠곡경북대학 훈련센터 등등, 칠곡경북대병원은 저희가 작년 국감 때 봐서 너무 시설이 안 좋다는 것을 여야 위원들이 방문한 그것에 대한 예산 반영

이거든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위원장님,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병원의 디지털 보안체계 강화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증액을 하고 예결위 가서 심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중에 서울대병원 R&D 임상병원 설립 사전타당성 용역비 그것은 저희가 교육부의 지원 대상도 아니고 서울대병원이 이것을 하겠다라고 결정하지도 않아서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사전타당성은 큰 예산으로 이어지는 발 집어넣기니까 일단 좀 신중하게 하겠다 그건 알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위원장님, 저도 발언 한번……

○**소위원장 조정훈** 예, 백 위원님.

○**백승아 위원** 저는 40쪽에 국립대병원 지원 가, 수용이긴 한데 공급해서요. 여기에 전문의 등 교수의 당직 필요인력 감소 등으로 집행 예상액이 감소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9월 이후에 전공의 복귀가 안 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충원율이 특히 지방 필수과는 20%, 30%인 대학들도 있는데 이렇게 집행 예상액이 감소될 걸로 예상된다고 해서 이것 전액 감액하면 병원 운영이가능할까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이것은 건강보험비에서 당직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것과 중복되고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도 당직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아 위원**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충원율이 지방에 20, 30%인 곳이 있어도 전공의가 당직해도 충분히 비용을 지급할 여력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그렇습니다.

○**백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정을호 위원님.

○**정을호 위원** 라와 관련해서 아까 서울대병원 R&D 임상실험 5억 원 용역비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5차 첨단의료 복합관 종합계획에 보면 K-바이오 조성사업이 반영된 사항으로 여기에는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내에 서울대 R&D 임상병원 건립비 내용이 담겨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 맞습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충북에서 하고 싶은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울대병원은 이것에 대해서 현재까지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정을호 위원** 국가산업단지 내에 병원을 건립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기초 임상 생산의 연계를 통해서 바이오산업을 발전시키겠다,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다 이런 부분도 이해가 가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용역비 그 부분의 사전타당성조사로 5억 원을 더 추가해 달라는 부분인데 왜 이게 안 되는지 다시 한번만 이야기해 주실래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사업의 취지는 좋다고 저희가 생각하는데요. 이게 서울대병원을 찍어서 서울대병원이 거기에 오는 것에 대해서 용역을 하려면 서울대병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서울대병원이 지금 그런 의사결정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서울대 상황은 알겠지만 아직 결정하지 않은 예산을……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가번 감액 동의, 나번 불수용, 다번 동의, 라번에 디지털 보안체계 수용, 그다음에 R&D 5억 불수용, 그다음에 전남대병원 54억 불수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액·증액이 있는 것은 다 마쳤고요. 이제 좀 속도를 낼 수 있는 증액 의견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일독……

문정복 위원님.

○**문정복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왔다 갔다하고 정신머리 없이 만들어서 정말 죄송하고요.

○**소위원장 조정훈** 지금 뒤에 대해서 말씀하실 건가요?

○**문정복 위원** 조금 아까 30페이지의 국립대학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31페이지 보면 참고사항 표에 8735억 5000만 원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세부적인 부기내역으로 보면 거점국립대, 서울대 10개 만들기 해서 우선 차관님, 3개만 먼저 하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문정복 위원** 그런데 당에서의 입장이 조금, 죄송합니다. 상황이 변한 게 이것은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국정과제 55번에 있는 과제이고 교육 분야 1호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께서 국회에 와서 한 시정연설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우선 교육부가 3개만 특화해서 한번 해 보자라고 하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이것은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기본 취지가 조금 협소하게 적용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수정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400억 곱하기 3개 교를 하는 게 아니라 서지영 위원님도 아까 의견은 내셨는데 200억 곱하기 9개 교를 하면 600억이 더 증액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기타 AI 거점대학 150억, 그다음에 국가연구소 지역 250억, 인문사회대학 기초연구소 지원 60억, 그다음에 거점 중소연합형 교육재단 지원 15억 기타 등등해서 1225억을 증액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200억 플러스 1225억을 증액을 해서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거점 국립대 지원을 3개가 아닌 9개 전체로 확대해서 하자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그게 선택과 집중에는 참……

○**소위원장 조정훈** 그 의견이 위원님 개인의 의견이십니까?

○**문정복 위원** 개인의 의견이라기보다는 당의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당의 의견이라는 건 알겠고 늦게 오신 것도 알겠는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좀 난감한 게 아까 위원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증액, 감액 없이 정부 원안대로 일단 교육상임위에서 넘기고 예결위에 가서 증감을 논하자.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의견이 있었는데 제 입장을 좀 말씀드리면 아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그렇게 3개 학교에 400억 원인대 9개로 늘리고 200억 원으로 낮춘다…… 그런데 위원님, 이게 애들 용돈 주는 것도 아니고 산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400억 원을 어디다 쓸지 대략 뭐가 좀 나온 다음에 400억 원을 달라고 예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200억 원으로 나누면 뭐가 빠지는 건지 교육부 답변할 수 있어요?

○**문정복 위원** 아니, 지금도 차관님 제 기억으로는 400억을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기초적인 것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연구용역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 400억을 어떤 용도로 쓸 건지는 추후에 초입 단계에서 다시 논의하자라는 얘기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의

견을 들고 와서 말씀드리는데 죄송스러운데 제가 그래서 우리 당 위원님들께도 따로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이 증감액은 나중에 예결위 가서 어떻게 정리 할지는 모르지만 저희 소위에서는 증액 의견으로 해서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위원님 발언은 들었고 조금 이따가 정회를 할 거니까 오늘 예산회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문정복 위원님하고도 상의도 하고, 지금 결론 낼 수는 없습니다. 조금 고민해 보시고, 정회하고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걸로 마무리하고 증액 의견만 있는 사업 검토를 시작하는데요, 차관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하면 동의하신다고 간단히 넘어가고 만약에 수용이 곤란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관 관련 예산 진행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상열 감사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관 기본경비 중 총액대상 관련해 가지고 국정감사에서 사립대학의 비리가 증대되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 1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번도 동일 내용으로 감사관 기본경비 중 총액비대상에 대해서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 10억 20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1번, 2번 모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위원님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정책기획관 관련 예산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상열 정책기획관 설명드리겠습니다.

3번 국립학교 인건비 사업은 교육부 관할 국립학교 영양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식생활지도수당 2700만 원 신규 반영 필요 의견입니다.

다음 연번 4번, 정책연구개발 사업 관련해서는 가변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의 교육시설에 대한 정비 및 시설 개선, 학교 재배치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성동구는 초·중학교에 대한 연구용역이 필요해서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나번 같은 경우는 새 정부 초기인 만큼 방향을 도출해야 할 사항들이 산적해 있으므로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 다번 항목은 방학 중 비근무 근로형태 교육공무직원의 생계대책 마련 등 정책연구 수요가 있으므로 333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연번 5번, 특수목적대학 실습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가변에서 한국교원대학교 생활관 의무입사생에 지원하는 교원대 급식비 예산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9억 6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나번 항목은 국립한국교통대학교의 항공운항학과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비행훈련원 임차료 6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6번 항목 국립대학 시설 확충 사업과 관련해서는 가번, 내역사업인 확충사업과 관련해서는 경북대학교 간호대학의 신축건물 내 대학원 전용 강의실이 없는 상태이므로 증축을 위한 3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그다음은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설립을 위해서 설계비 20억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다음 페이지, 경북대학교 AI-X 융합연구동 신축사업 기본설계비 10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한국교원대에 24시간 안전 여자화장실 구축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충북대학교의 글로벌인재양성관 설계비, 오송약학대학 설계비 등 총 4억 7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나번, 내역사업인 보수사업과 관련해서는 부산대 양산캠퍼스의 미개발 부지 내 외부공간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서 133억 7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급경사지 2개소에 설치할 장애인용 옥외 승강기 예산 65억 6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경북대학교 수전용량 증설사업을 위해서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55페이지, 국립순천대학교 스킨라 광장 조성사업 그리고 종합운동장의 인조잔디 교체를 위해서 총 1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국립공주대학교 개방형 교환경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다음 페이지, 국립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 부지매입비로 13억 8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국립공주대학교의 노후된 체육시설 개선을 위하여 공사비 13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기숙사 환경개선 사업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번 7번, 사학진흥기금의 행복기숙사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가번 항목은 대방동·광주 연합형 행복기숙사 신규를 위해서 설계비와 부대비 22억 9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다음 페이지,전북대 남원글로벌캠퍼스 개교에 따라 연합형 행복기숙사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14억 9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3번, 국립학교 인건비 증액은 수용하기 좀 어렵고요.

4번, 정책연구개발 사업 중에 가는……

○소위원장 조정훈 수용이 어려우시면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저희가 국립학교는 국고로 편성을 하지만 이 인건비는 시·도 국립학교랑 다 묶여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영양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시·도의 노사 간 협약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증액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예산을 드려도 어렵다는 것이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소위원장 조정훈 일단 다 해 주시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4번, 정책연구개발 사업 중에 가는 특정 지역이고 이것은 서울시에서도 좀 연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가는 수용이 어렵고요. 나번 수용하고 다도 수용입니다.

5번, 특수목적대학 실습지원은 가변 수용이고요. 나도 수용이고.

그다음에 6번, 국립대학 시설 확충은 가변 중에서 두 번째 것, 충남대 내포신도시 관련 된 것은 저희가 수용이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이유는?

○교육부차관 최은옥 이유는 건립을 하려면 그 부지가 충남대 소유여야 하는데 지금 충남대 소유가 아니어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2쪽의 경북대학교 융합연구동은 수용이고요. 그 아래 한국교원대 건 수용입니다.

그리고 53쪽은 충북대학교에 2건이 있는데 그중에 글로벌인재양성관 1건은 수용이고 저희가 동시에 한 대학에 2건을 하기가 어려워서 약학대학 설계비는 수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53쪽 나는 수용입니다, 부산 양산캠퍼스 건 수용.

그리고 54쪽, 강원대 삼척캠퍼스 건 수용, 경북대학교 증액하는 것은 수용이고요.

55쪽, 국립 순천대 수용이고 국립공주대도 수용입니다.

그리고 56쪽입니다. 국립공주대 천안공대 부지매입비 수용이고요. 공주대학교 체육시설 수용입니다. 그리고 경북대학교 간호대 기숙사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한 건 더 남았습니다.

○김대식 위원 하나 더 있어요, 행복기숙사 또 하나 있더라.

○교육부차관 최은옥 7번에 행복기숙사 지원 사업은 57쪽에 있는 대방동하고 광주 건은 수용이고요.

58쪽에 남원글로벌캠퍼스는 전체적으로 여건이 저희가 동의하기에는 아직 좀 미흡한 상황이라 불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백승아 위원님.

○백승아 위원 국립학교 인건비 식생활지도수당 건이요 이게 2021년도 예산안 때부터 마련된 것이고 23년·24년·25년 예산안에도 이 식생활지도수당 지급을 구체화하는 부대의견이 채택돼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고 그런데 지역에서 교육감들이 미실시, 한번도 실시를 한 적이 없어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사 협약에 의한 것도 있겠고 여러 교육 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특정한 어느 직군에만 이렇게 지급하기 어려운 현장의 어려움도 알긴 알겠으나 부대의견에 넣어서 통과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미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예산을 이렇게 쓰라고 정해 준 것인데 교육감이 자의로 이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금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국회에서 국립학교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국립학교도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국립학교만이라도 먼저 시작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실제로 영양사들이, 저는 마음 같아서는 더 많이 증액해서 고등은 아니더라도 유·초 정도는 담임선생님들까지 다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들 밥이 진짜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아이들 계속 생활지도하면서, 급식지도하면서

밥 먹습니다. 그런데 다 드리지는 못할 망정 국립학교에 계시는 영양사님들 먼저부터라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의견드립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다른 위원님들 토론 이어 가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저도 한 가지 좀 제안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나올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정책연구개발 사업, 김문수 위원님 2억 원 증액에 동의했고 실은 제가 좀 더 추가 증액을 요구하고 싶고 그 내용은 다른 야권 검정고시에 대한 정책의 효과성, 그 제도에 대한 효과성입니다. 아까 제가 다른 항목에서 요구를 했더니 이것은 집행예산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반응을 받았는데 저는 진선미 의원님실에서 낸 보도자료 등등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을 가는 비율이 꾸준히 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검정고시가 그렇게 쓰이는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어떤 이유든지 일반 학교보다 검정고시가 대학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안 되고 또는 검정고시생이 일반 고등학생보다 불이익을 당한다,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검정고시 만점받은 학생을 내신 몇 등급으로 간주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하늘과 땅 차이가 벌어지지 않을까? 대학마다 평가가 다르고.

지금 70년 동안 이어져 온 제도인데 한번도 손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는 좀 현대화, 검정고시라고 불려야 될지부터도 저는 좀…… 쉽게 얘기해서 학력 인증시험이잖아요. 그렇지요? 좀 더 통합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필요하다면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희 의원실 예산으로는 한 2억 정도면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여기 2억에 2억을 추가해서 4억 정도로 해서 검정고시 제도에 대한 검토 용역까지 한번 포함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예,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차관님!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김대식 위원 58페이지 있잖아요, 글로벌대학30 전북대 남원글로벌캠퍼스, 이것 왜 지금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제가 잠깐 놓쳤는데.

○교육부차관 최은옥 행복기숙사는 기숙사의 충원 계획 그리고 그 지역의 원룸이나 다른 데와의 단가, 그러니까 기숙사비 단가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공실 우려가 조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시한 것이 인근 원룸이 36만 1000원으로 평균이 나타났는데 여기가 36만 원으로 지금 설정을 해서 그 단가도 좀 조정이 필요하고 해서 저희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남원글로벌캠퍼스 주위에 원룸이 많이 있나요? 원룸이 수요가 어떻게 되나요? 그 지역 상권에 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이 상권이 원룸이 돼 있나요? 어떻습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과장님이 좀 답변하시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시설과장님이지요?

○**교육부교육시설담당관 최문태** 교육시설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주변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룸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없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리고 가려면 남원 시내로 나가야 되는 상황은 맞고요.

행복기숙사는 사학진흥재단에서 기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논한 결과 우려되는 사항이,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2027년부터 신입생이 들어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명씩인가 들어오게 돼 있는데 공실이 굉장히 좀 많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김대식 위원** 그것은 교육부 판단입니까, 전북대 판단입니까?

○**교육부교육시설담당관 최문태** 저희하고 사학진흥재단에서 같이 검토한 결과입니다.

○**김대식 위원** 사학진흥재단에서?

○**교육부교육시설담당관 최문태** 예.

○**김대식 위원** 그러면 전북대하고 한번 의논해 보셨어요?

○**교육부교육시설담당관 최문태** 전북대하고 같이 의논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완성되는 연도가 30년인가 31년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요. 실제 학생수에 비해서 기숙사 수용 규모가 지금 250명으로 돼 있는데 기숙사비도 인근에 비해서 저렴하지 않은 형태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실이 되었을 때는 또 남원시라든가 전북대의 재정적인 부담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렇게 되면 전북대학교가 적극성이 없구먼.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수용할게요.

○**진선미 위원** 10초만……

○**소위원장 조정훈** 진선미 위원님.

○**진선미 위원** 저도 아까 백승아 위원님과 함께 영양사 관련한 문제, 굉장히 오래 전부터 사실은 영양사의 위치의 빈약함 때문에 계속 논쟁이 됐던 것이고요. 결국 2019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를 했고 그리고 저희가 부대의견까지 냈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육부가 적어도 부대의견으로 해 주십사 이렇게 얘기했을 때의 의지를 조금 더 보여 주신다면, 자꾸 시·도교육청 얘기하실 게 아니라 교육부 직할이라도 뭔가 변화를 주시고 그것을 선례를 만들어서 시교육청에도 전달하고 이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나마 이것만, 이 아홉 분에 대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감사합니다.

이어서 글로벌교육기획관 관련 예산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상열** 글로벌교육기획관입니다.

연번 8번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재외교육기관 지원 내역사업에 37억 28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번 9번 해외 한국어보급 사업과 관련해서는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채택 지원 내역사업에 1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현지학교 한국어교원 파견 내역 사업에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프랑스 한국어 국제섹션 지원 내역사업에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8번과 9번 전체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감사합니다.

토론할 위원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디지털교육기획관 관련 예산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상열 디지털교육기획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0번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사업에 관해서 교육기본통계조사·분석 내역사업에 6억 11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학생맞춤지원실태조사 내역사업에 4억 1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또 다른 내역사업인 국제교육지표사업 참여에 5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번 11번 교육정보보호 사업 관해서 내역사업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과 관해서 90억 94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번 12번 국립대학 정보통신 고도화 사업 관해서 고속 전산망 구축 내역사업에 국립순천대학교의 공공와이파이 지원을 위해서 62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클라우드전환 지원 내역사업 관해서 역시 국립순천대학교 지산학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서 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61쪽의 10번 통계조사관리는 가·나 모두 수용입니다.

62쪽은 첫 번째 국제교육지표사업 참여하는 것은 수용이고요.

11번 교육정보보호 사업 중에 가 번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관해서는 저희가 탐지장비 교체하는 4억 100만 원은 국립대병원이 복지부로 이관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량조정이 가능해서 증액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SSL 가시화 모듈은 증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63쪽의 12번은 가 번과 나 번 모두 수용이 어렵습니다.

가 번은 저희 교육부가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특정 대학에 신규사업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구요. 나 번도 같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교육정보 사업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4억 100만 원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니까 90억 9400만 원 증액 중에 4억 100만 원은 불필요하고 나머지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잘 정리해 주십시오.

토론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정책기획관 예산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재정책기획관실, 자료 64페이지입니다.

연번 13번부터 22번까지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3번 2026 이노베이트 코리아 사업은 신규사업 편성을 위해서 5억 93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연번 14번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 사업이 가나다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 항목은 첨단산업 특성화 전문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전문대학 대상 별도 지원 트랙 신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19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나 항목은 산학협력 기반조성 및 성과확산 관련해서 중앙의 핵심 정책기능 수행에 필요한 3억 4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다 항목은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관련해서 정부안과 동일하게 현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15번 항목은 인문사회 기초연구 R&D 사업입니다.

먼저 가 항목은 인문사회연구소지원 관련해서 84억 5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요. 이어서 설명드리면 이 부분은 지금 정부안에 있는 과제는 27개 과제인데 50개 과제를 추가로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는 그 과제 수가 증가되는 부분이 11개 과제가 추가돼서 18억 5900만 원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나 번 항목은 인문사회대학기초연구소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정부안에서는 3개의 학교에 40억씩 120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20억으로 단가를 낮추고 9개교에 확산하기 위해서 180억, 총 60억이 증액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내용입니다.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대학 관련해서 5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학문후속세대 관련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석박사 연구장려금을 인문사회 대학원생에 대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인데 과제를 100개 과제 정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6번 인문학진흥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가 항목은 번역저술출판지원 관련해서 7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과제 수가 100개 과제가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17번은 학술자원 공동관리 체계 구축 관련 내용인데요.

기초학문자료센터와 관련해서 연구성과 대중화를 위해서 4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71페이지 내용은 고전번역원 출연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가나다 항목이 있고 가 번 항목에 지금 3개의 내용이 있는데요. 순차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 항목은 고전문헌 수집·정리·번역 관련해서 번역 사업량 감소에 따른 일자

리 축소 등을 고려하고 신규 연구자 유입을 위해서 11억 5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부분은 예산 증액 요구 규모가 6억 5400만 원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특수고전번역 5억 원 증액이 빠진 내용입니다, 박스를 비교해 보시면.

그리고 72페이지 상단의 세 번째 내용은 지금 한국문화콘텐츠 확충을 위해서 권역별 거점연구소 협동 번역을 위해서 2억 5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나 번 항목입니다.

이 부분은 전문인력 관련해서 10억 9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다 번 항목은 지금 인문고전 불전사기 번역 사업 관련해서 강원도 설악권역에 새로운 사업 유치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사업 개요는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 19번 이공학학술연구 R&D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가나다 사업이 있는데요. 먼저 가 사업 관련해서 대학연구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3760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국가연구소 관련해서 거점국립대 아홉 곳을 포함해서 비수도권에서도 대학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25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보시는 부분은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 관련해서 신규 연구지원센터 지원을 위해서 지금 59억 2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나 번 항목은 학문후속세대지원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박사과정생들에 대해서 연구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75억 원 증액을 통해서 예산을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연번 20번 국가석좌교수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 예산에 없는 내용을 신규로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국내 정주를 유도하고 해외인재 유치를 위해서 20억 원 증액이 필요한데 5명분에 대한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1번 연번도 정부 예산안에 없는 내용을 신규로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 역시 마음건강 진단검사 관련된 사업이고 15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22번은 인권센터 통합 지원 관련 사항으로 39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전문인력 확충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64쪽입니다. 13번은 카이스트 관련된 거라서 이것은 과기정통부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반대고요.

65쪽, 14번은 가·나 수용입니다.

66쪽, 다 수용이고요.

15번, 가 수용입니다.

그리고 67쪽, 15번의 동그라미 2번은 수용이고요. 67쪽의 나 번 인문사회대학기초연구 소지원은 그 앞에 국립대 육성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3개교 40억 원인데 단가를 낮추고 전체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수용이 좀 어렵고요. 단가를 그대로 유지하고 숫자를

늘리는 것으로 하면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68쪽 다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대학 사업은 수용입니다.

그리고 69쪽, 학문후속세대 관련 사업 수용이고요.

70쪽, 인문학진흥 수용.

그리고 17번의 학술자원 공동관리 체계 구축 사업 수용입니다.

그리고 71쪽, 18번 고전번역원출연 사업은 그 내역 중에 특수고전번역 5억 원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타당성, ISP 수립해서 하는 것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곤란하고 다른 것은 수용입니다.

그리고 19번 이공학학술연구 기반구축 사업, 73쪽입니다.

○김대식 위원 72페이지 안 했잖아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72페이지는……

○김대식 위원 72페이지 안 했어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그러면 지금 내역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고전번역원출연 사업 중에서 6억 5400만 원 증액 전부 수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특수고전번역 5억 증액만 저희가 수용이 어렵다는 것이고요. 전체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다 수용이라는 거지요?

○김대식 위원 다 인문고전 불전사기 번역 이것은?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것 수용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식 위원 왜요?

○소위원장 조정훈 뭐가 수용이 어렵습니까? 나가 수용이 어렵습니까, 다가?

○백승아 위원 나 수용, 다 수용 불가.

○소위원장 조정훈 맞습니까, 차관님?

○교육부차관 최은옥 다 번이 아까 말씀드린 특수고전번역으로 한국 인문고전 불전사기 번역 신설 5억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다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김대식 위원 특수번역 어렵고, 72페이지 여기에 다가 있잖아요, 설악권 인문고전 번역 사업.

○소위원장 조정훈 5억 원 증액이 2개가 있습니다, 차관님.

○김대식 위원 2개가 있어요. 하나가 인문고전 불전사기 그것 있잖아요, 번역. 나하고 김준혁 위원님하고 강력하게 주장한 게 이건데……

○진선미 위원 그게 안 된다는 건데……

○김대식 위원 이것은 해야 돼, 내가 교회 장로지만 불교 이것은 국가의 유산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아니면 내가 소위에서 집어넣을 거예요. 수용을 해야지, 왜 그래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위원님 잠시만요.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예, 한번 해 보세요.

○교육부학술연구정책과장 채홍준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전번역원이랑 실무 협의를 하고 그러는데 이 고전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원문에 대한 정리랑 그다음에 교점·표점 그런 선행 작업이 일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상으로는 5억 곱하기 20년 해서 100억짜리 사업으로 번역을 하겠다는 계획이여 가지고요.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걸 내년에 바로 이렇게 번역 사업을

하기보다 정책 연구식으로 해 가지고 이 원전을 한번 정리를 하고 거기서 필요한 부분을 뭔가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좀 더 계획적이고 합리적일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고전연구원에서는 이것을 지금 자기네들이 반대를 합니까? 국회에서 이렇게 해 주겠다고 해도 자기네들이 반대합니까?

○**교육부학술연구정책과장 채홍준** 위원님 아시겠지만 특수 고전 번역일지라도 고전번역원에서 계획 물량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대식 위원** 자기네들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교육부학술연구정책과장 채홍준** 일단은 이 원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이 원전의 번역 물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먼저 판단한 다음에 시작을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입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일단 정책 연구로 시작을 해 가지고 한번 사업타당성을 한번 보자 이거지요?

○**교육부학술연구정책과장 채홍준** 특수 번역 지금 5억으로 아까도 말씀 올렸듯이 5억 곱하기 20년 100억짜리 사업이여 가지고요. 내년에는 이것에 대해서 정책 연구 용도로 해 가지고 고전번역원에 한 1억 정도 혹시라도 배정을 해 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고전번역원과 함께 판단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김대식 위원** 김준혁 위원님이 이것 나한테 강력하게 얘기하신 건데.

○**정을호 위원** 부대의견에 달아 주시지요.

○**소위원장 조정훈** 부대의견으로 다시지요.

○**김대식 위원** 부대의견으로 좀 달아 줄게요.

○**교육부학술연구정책과장 채홍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정리하면 차관님, 71페이지 가의 동그라미 1번의 11억 5400만 원 중에 특수고전번역 5억 원 증액을 뺀 6억 5400만 원 증액은 동의하시는 거고,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다음에 나머지 동의하고 72페이지 다, 불전사기 번역은 수용 어렵고 대신 부대의견으로 정책연구를 할 것 동의하시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소위원장 조정훈** 정리됐습니다.

○**진선미 위원** 나 번에 일부 수용으로 돼 있는데, 아니에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나요?

○**진선미 위원** 그러니까 불전사기 바로 위의 나 번. 이것은 일부 수용으로 저희한테 의견을 냈는데. 일부 수용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교육부차관 최은옥** 고전번역사업 8억하고 번역인재양성사업 있는데, 고전번역사업 일부 불수용인 거지요.

○**진선미 위원** 일부 금액 얼마요?

○**교육부학술연구정책과장 채홍준** 학술연구정책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고전번역원에서 내년의 집행 가능성이라든지 물량을 봤을 때 6억 5400만 원이 좀 더 적정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선미 위원** 8억 5900만 원을 6억 4000만 원으로?

○**교육부학술연구정책과장 채흥준** 10억 9900만 원 중에서 고전번역사업에 4억 700만 원 그다음 번역인재양성사업에 6000만 원, 그래서 4억 6700만 원이 654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진선미 위원** 전체가 그러니까 4억 6700만 원만 낸다고요?

○**교육부학술연구정책과장 채흥준** 예, 나에서는 그렇게만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가 고전번역원과 함께 열심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다 질의하셨습니까, 진선미 위원님?

○**진선미 위원** 예.

○**소위원장 조정훈** 여기에 조금 중복이 있어서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고전번역원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교육상임위가 아마 처음일 것도 같은데, 항목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번의 박스 있잖아요. 산출내역을 보면 거기 인재양성지원 6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박스에도 인재양성지원이 6000만 원 있고 다음 페이지, 방금 얘기한 나 번 두 번째 박스에도 번역인재양성사업이 2억 4000만 원, 계속 인재양성사업이 중복해서 나옵니다. 이게 다른 인재입니까?

○**교육부학술연구정책과장 채흥준** 위원장님,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민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특수고전번역 5억 원을 빼면 6억 5400은 거의 1·2·3이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거의 1·2·3. 그러니까 1번의 2는 추가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교육부학술연구정책과장 채흥준** 예, 그렇습니다. 6억 5400억이 핵심 내용이고요.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가와 나의 번역인재양성사업의 중복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부학술연구정책과장 채흥준** 고전번역사업에서 4억 700만 원, 그다음에 번역인재양성사업에서 6000만 원만 갈라 내면 결과적으로 4억 6700만 원만 주시면 6억 5400에 포함되는 겁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이걸 다 정리하면 한국고전번역원 출연 예산 증액은 가·나·다·라 대해서 6억 5400이네요?

○**교육부학술연구정책과장 채흥준** 예, 그다음에 정책연구를 부대의견으로 증액해 주시면……

○**소위원장 조정훈** 6억 5400으로 증액을.

정리하시지요. 됐습니다.

나머지 토론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했지요?

지역인재정책관 관련 예산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지역인재정책관실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잠깐만요, 뭐 안 한 게 있습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73쪽의 19번부터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소위원장 조정훈** 그렇지요? 하다가 중단된 거지요?

73쪽은 수용하셨고.

○**교육부차관 최은옥** 73쪽 중의 가 번에서 국가연구소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과기부랑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서 저희 것만 변경해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연구소 부분만 제외하고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250억 증액 불수용, 59억 증액 수용.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리고 74쪽은 수용입니다. 75쪽도 수용이고요. 76쪽 다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나머지 이후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인재정책관 관련 예산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지역인재정책관실 23번부터 26번의 내용인데요.

첫 번째,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관련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내역사업인 한미대학생연수 사업 관련해서 5분위 학생들의 참여율과 예산지원 비율이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 비율 조정 등의 개선이 필요하고 예산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연번 24번 사항입니다.

사학기관 예결산 실태점검 관련 예산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7억 8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점검대상 확대와 점검 주기 단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나 번 항목에 대해서는 지금 대학생 주거실태 조사 실시를 위하여 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하단에 있는 박스에 필요 사업비 예산 산출 내역이 있습니다.

다음은 다 번 항목, 고등교육 대학재정정보 집계·분석·공시 관련 내용입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는 고등교육 재정지원에 대해서 조금 체계적인 재정 심층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인력 등 3억 1000만 원 증액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연번 25번 폐교대학 종합관리 사업입니다. 가 번 항목은 지금 폐교 기록물 관리 예산 등 폐교 이후의 후속 조치 비용 8억 3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나 번 항목입니다. 이 항목도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법 제정 시행에 필요한 추가 예산 7억 1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연번 26번 관련해서, 사립대학 경영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기숙사비 납부와 관련하여 납부관리 시스템 개발 및 보급을 위해서 2억 1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주로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정부 측 입장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23번 수용입니다. 24번도 수용이고요. 가·나·다 다 수용이고요. 80쪽의 25번 수용, 26번도 수용입니다. 다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80쪽의 가와 나가 지금 실은 거의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렇지요? 폐교대학 관리가 어떤 항목……

○교육부차관 최은옥 두 개 다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큰 항목으로 가지요. 똑같은 거니까. 큰 항목으로 정리하고, 26번.

○교육부차관 최은옥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여기는 불수용이 없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소위원장 조정훈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평생직업교육정책관 관련 예산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평생직업교육정책관실 연번 27번부터 32번 사항입니다.

지금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지금 3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디지털교육 수요자에게 연간 35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인데 예산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28번은 온라인 성인학습자 고등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사이버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9번,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희망사다리장학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희망사다리장학금 사업 내의 II 유형 대상자의 확대를 위해서 10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주로 학점은행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 요구 사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다음은 30번,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사업입니다. AID 집중과정 사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안 유지 의견. 31번, 가상실험실학습 콘텐츠 관련 사항에서도 AI 기본 교육 역량강화를 위해서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82쪽 수용입니다. 27번, 28번 모두 수용이고요. 83쪽 29번 수용입니다. 84쪽 30번, 31번 수용이고요. 85쪽의 32번도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문정복 위원님이 원안 유지 의견을 많이 내 주셔서 가지고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문정복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 수용.

○소위원장 조정훈 수용이 많습니다.

○문정복 위원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소위원장 조정훈 토론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책임교육정책관 관련 예산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상열 책임교육정책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번 33번, 교과형도서 개발 및 보급 사업 관련해서는 내역사업인 AI 디지털교과서 검정심사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발행사들이 납부한 검정심사 수수료의 반환을 위해서 35억 1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연번 34번,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 관련해서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내역사업과 관련해서 공주교육대 부설초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8억 3600만 원 증액, 제주사대부고 화장실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7억 원 증액 필요 의견.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전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화장실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6억 700만 원 증액 필요, 그리고 제주사대부고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비 5억 52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유아교육 지원 내역사업과 관련해서 공립과 사립유치원은 월 5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위해서 5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연번 35번, 동북아역사재단 지원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내역사업과 관련해서 고도화된 AI 응답체계 구축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동북아 역사·영토 교육 사업 내역사업과 관련해서는 전시 프로그램 운영 및 유물 구입 관련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91페이지, 동북아 역사·영토 교육 사업 내역사업과 관련해서 독도교육 성과 제고를 위해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라 번은 동북아역사자료 아카이브 구축 내역사업과 관련해서 영상 콘텐츠 제작 등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33번 수용입니다. 34번도 수용이고요. 34번의 88쪽, 89쪽까지 다 수용이고요. 35번 90쪽도 수용입니다. 91쪽도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위원님들 토론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여쭙보면, 90쪽의 가와 나가, 지금 일본 역사왜곡 대응 연구는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됐었고 나 번 동북아 역사·영토 교육 사업은 작년 예산 대비 7억 원이 감액돼서 올해 올라왔어요. 그런데 다시 10억 증액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저희가 사업평가를 하는데 사업평가 결과가 미흡으로 나와서……

○소위원장 조정훈 미흡?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소위원장 조정훈 그래요? 왜 미흡으로 나왔습니까?

○교육부예산담당관 김아영 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 같은 경우에 집행률 측면에서 저희가 정량평가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집행률 부분에서 많이 부진해서 그 부분에서 감점을 많이 받아 미흡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주면 잘 쓸 수 있겠지요?

○교육부예산담당관 김아영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토론하실 위원 더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학생건강정책국.

○전문위원 윤상열 학생건강정책국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36번, 학생건강 지원강화 사업과 관련해서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서 7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자살학생 심리부검을 내실 있게 실시하기 위해서 5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검토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번 37번, 평생교육 검정고시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제도의 개편 방안 연구를 위해 1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36번은 수용입니다. 37번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2억 원으로 대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위원님들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37번은 제가 수용하고요. 36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꽤 금액 차이가 큰 72억 원 증액과 5억 증액이 있습니다.

○**정을호 위원** 72억 원에 그게 포함됩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72억 원에 포함되는 걸로?

○**정을호 위원** 예.

○**소위원장 조정훈** 72억 원 수용하십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교원학부모지원관 검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상열** 교원학부모지원관은 연번 38번 관련해서 신규 사업으로 국가 AI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K-AI 에듀 인재 양성 모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예산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정부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38번은 저희가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수용이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38번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이 미래 교육과 교사의 역할이 변화되기 때문에 혁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고요. ISP가 지금쯤에는 그렇게 수립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교원양성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교원대에만 특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좀 더 필요성에 69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위원님, 수용하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교육복지늘봄지원국 관련 예산 검토보고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윤상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늘봄지원국 관련해서는 연번 39번 장애학생 교육 지원과 관련해서 국립공주대 부설 특수학교 내 생활관 운영을 위해서 생활지도원 인건비 8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다음이 영유아정책국이고 유아 늘봄, 누리과정, 어린이집 무상교육 등등인데요. 잠시 한 10분만 정회를 하고 환기 좀 시키고 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조정훈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영유아정책국 예산 관련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영유아정책국 소관입니다.

자료 40~51번 연번까지입니다.

40번은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지역의 차액 보육료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기 위하여 694억 9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41번은 통학버스 카시트 보급 관련하여 6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어서 42번은 유아사교육비 조사를 위한 15억 원 증액 의견, 43번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신규 수요 관련해서 1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44번은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사업인데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지원단가가 지금 28만 원인데 30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하는 내용이고 소요 예산은 629억 9600만 원 내용입니다.

다음은 45번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실현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4~5세 대상 어린이집 무상교육비를 사립유치원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서 841억 5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46번은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단가 인상과 관련이 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모보육료와 지원과 기관보육료 지원의 인상률에 따라서 3645억부터 592억 1400만 원까지 예산 증액 소요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47번 시간제보육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지역에 대해서 맞춤형 시간단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에 필요한 23억 1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보육사업관리 내용으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리사업 내용입니다.

교체 대상 하드웨어 관련해서 205억 2200만 원 의견입니다.

다음은 49번 어린이집 교원 양성 사업입니다.

지금 원장과 보육교사가 법정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교육비 지원 대상 증가분—보육교사 인원이 증가되기 때문에—13억 3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보육진흥원 운영지원, 50번 연번입니다.

지금 보육활동보호센터 운영비를 다른 사업에 포함해서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51번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역이 마번 항목까지 있는데요.

먼저 ‘가’ 항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관련해서 교사의 처우개선비 관련된 292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나번 항목은 281억 3100만 원 증액인데 이 부분은 인건비 지원 비율을 80%에서 90%로 인상하는 것에 따른 겁니다.

다음 다번 항목은 처우개선 중에서도 근무환경 개선이나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55억 8700만 원 증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라번 항목은 급식위생관리 사업 관련된 내용입니다. 급식위생관리 사업 관련해서 소규모 어린이집과 농어촌 어린이집이 운영 환경이 더 열악하고 일부 어린이집에만 지원하는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206억 1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41억 2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다음은 마번 항목인데 보조·대체 교사 지원과 관련해서는 해당 위원님께서 철회 의견을 주셔서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여기는 아주 증액 요구가 상당하네요.

정부 측 입장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96쪽입니다.

40번은 차액 보육료를 시·도에서 전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경기도만 저희가 국고로 지원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41번 수용이고요.

42번 수용입니다.

43번도 수용이고요.

98쪽의 44번은 692억이 어린이집만 책정이 된 거라서 단가 예상할 때는 유치원 분도 포함하면 금액이 1789억이 돼야 됩니다.

45번은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무상보육교육비 지원단가가 차이가 나서 표준교육비를 조사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것을 수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00쪽의 46번은……

○문정복 위원 잠깐만요. 44, 45 다 수용불가예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44는 수용불가는 아니고요,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정복 위원 유치원 증액이 여기 안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용불가예요 아니면……

○교육부차관 최은옥 어린이집만 하는 것은 불가입니다.

○문정복 위원 안 된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46번은 인상률이 다른 여러 개가 있는데요, 저희 안을 제시하라고 하신다면 부모 5%, 기관 5% 정도 해서 하면 610억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1쪽의 47번은……

○소위원장 조정훈 잠시만요. 46번은 부모교육료를 5% 더 지원하고……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기관도 5%.

○소위원장 조정훈 기관도 교육료를 5% 더 지원하면……

○교육부차관 최은옥 610억이 됩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610억이 나온다, 증액이? 그 정도를 제안하시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소위원장 조정훈 47번.

○교육부차관 최은옥 101쪽, 47번은 경기도만이 아니라 전국에 다 할 필요가 있고요. 이것도 전국에 다 하면 한 44억 9300만 원으로 저희가 추산을 해서 경기도만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102쪽은 48번, 49번 다 수용입니다.

103쪽, 50번도 수용입니다.

104쪽, 51번 모두 수용입니다. 마 번은 철회하신다고 하셔서요, 106쪽까지 다 수용입니다.

○문정복 위원 51번에 나 번도 281억 하는 것 수용하시는 거지요? 51번의 나 번.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어디를 수용하시는 겁니까, 큰 걸로?

○문정복 위원 2개 다.

○소위원장 조정훈 방법이 다른 거라…… 지금 106쪽을 보면 206억 증액은 모든 어린이집이고 김민전 위원은 영세시설부터 2000개소나 1만 개소나 이거거든요.

○문정복 위원 아니, 가하고 나하고 다른 거예요.

○소위원장 조정훈 지금 106쪽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문정복 위원 104쪽.

○소위원장 조정훈 죄송합니다.

104쪽은 다 수용하시고 106쪽의 라는 어떻게 하십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라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뭘로 수용이냐고요? 206억이 있고 41억이 있다고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206억 1600만원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모든 어린이집으로 가자?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소위원장 조정훈 이것만 해도 증액이 1000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진선미 위원 42번 관련해 가지고요, 강경숙 위원님께서만 15억이라고 하고 저희 다른 위원들은 13억으로 증액을 하는데 15억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그걸 좀 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강경숙 위원님은 15억을 고집하시나요? 저희는 전부 다 13억으로……

○소위원장 조정훈 계산 근거가 있으세요?

○강경숙 위원 근거가 특별히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교육부차관 최은옥 저희가 초중등 사교육비 조사하는 게 15억으로 하고 있는데요, 금액은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산출 예산 교육부랑 협의한 거라고……

○교육부차관 최은옥 초중등 예산에 준해서 지금 하신 것 같아요.

○강경숙 위원 준해서 하신 거고, 사실 사교육비 조사는 분명하게 해야 되고 실태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좀 아끼는 의미에서 13억으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조정훈 예, 13억으로 하십시오.

○백승아 위원 교육부가 13억으로도 충분히 조사하실 수 있어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저희가 정부 예산안 낼 때 13억을 냈었거든요. 그런데 반영이 안 돼 있고요. 13억으로 해 주셔도 좋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알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13억으로 하시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백승아 위원 가능하시다고 하니까.

○소위원장 조정훈 그다음에 98페이지 44번은 지금 어렵다고 하신 이유가 하려면 유치원까지 다 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그 말씀이신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맞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지금 이 예산은 어린이집 예산이고……

○문정복 위원 위원장님 질문에 제가 조금 추가 질의해도 되나요?

○소위원장 조정훈 예, 하시지요.

○문정복 위원 지금 표준보육료하고 표준교육비하고 용역 중이신 거지요, 차관님?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문정복 위원 그러면 표준보육료하고 교육비가 다시 산정해서 나오면 누리과정비가 당연히 상향 조정해야 될 거라고 저희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똑같이 동일 28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유치원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올려줘야 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언제 나와요? 이것을 어린이집은 먼저 해서 올려 주고 그다음에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는 반드시 상향 조정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추경이라도 유치원 부분은 따로 넣어서 해 주는 게 맞지 않겠어요? 나중에 이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경에 넣으려면 그만큼 예산이 더 많아져서 추경에 큰 예산을 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유치원보다는 어린이집이 훨씬 더 열악한 거고 유치원의 누리과정비를 30만 원으로 2만 원 단가 인상하는 거는 우선 본예산에 담아 주고 나중에 추경에 유치원 거를 넣어 주면 합리적일 것 같은데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요. 저희가 정책 연구 결과가 내년 3, 4월에 나올 예정인데 추경예산이 또 꼭 있을지는 저희가 자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 해 어린이집 먼저 가는 건데 그게 조금 저희는 부담스럽다는 생각입니다.

○문정복 위원 실제로 저희가 만 5세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유치원은 차액을 11만 원을 주고 어린이집은 7만 원을 주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누리과정 2만 원을 어린이집이 선 상향 조정한다고 해도 저는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저희 과장님, 잠깐……

○교육부영유아재정과장 지혜진 영유아재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누리과정 운영비는 누리과정, 즉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2012년부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통교육·보육 과정을 운영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동일한 단가를 지원해서 2012년부터 계속 지원해 주고 있던 부분이고,

다만 2022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단가가 28만 원으로 오랫동안 동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상향해 주신다면 어린이집, 유치원 모두 동시에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정복 위원 그러니까 유치원까지 하면 예산이 얼마라고요, 아까?

○교육부영유아재정과장 지혜진 유치원까지 하면 1789억 원……

○교육부차관 최은옥 1789억.

○문정복 위원 증액되는 금액만? 692억에서 유치원 하면 1789억, 그러니까 1789억을 추경에 다 담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먼저 담고 추경에 나머지 유치원 분 거 담으면 되잖아요.

○진선미 위원 추경이 되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지.

○문정복 위원 된다니까, 왜 안 되겠어.

○소위원장 조정훈 이거는 문정복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건 가야 되는 방향이고 일단 예결위에서 어떻게 일부라도 28만 원에서 지금 30만원 올리는 건데 29만 원으로 조율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 교육부 차원에서 이것을 거절하실 이유는 없어 보이는 데요.

○문정복 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 케파에서 이 예산이 크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좀 삭감하고 갈 수, 그러니까 반영하고 가지 않을 수 있지만 들어갈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차관님께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45번이만 4세-5세 무상교육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받으실 수 없다고 하는 게 용역 중이라서 그러신 건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저희가 표준교육비 조사하고 있는데 지금 7만 원, 11만 원 차이가 나서 지금 많은 민원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문정복 위원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인상을 하기에는 저희가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문정복 위원 인상을 하고 추가적으로 조정되는 비용을 나중에 더 부담하거나 삭감하거나 감액하거나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지, 만 4세-5세 무상교육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아동들의 전체 무상교육과 관련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이것을 반영하지 않고 간다라고 하면 2025년도에도 무상교육을 반영을 했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담지 않고 간다고 그러면 그건 굉장히 받아들이는 이미지가 다를 거라고 생각되는 데요. 이거 수용하셔야 되는 건데.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런데 표준교육비를 조사했을 때 어린이집에 11만 원으로 주는 게 못 미치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정복 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 유치원이 11만 원이고 어린이집이 2만 원이고 공립이 2만 원으로 책정된 금액 아니겠습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문정복 위원 그렇다라면 그건 기본 베이스로 가고요. 거기에 따라서 등락이, 폭이 조정된다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조정하면 되는 건데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교육부영유아재정과장 지혜진** 사실은 지금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워낙에 지원되는 재원이 다양하고 저희가 봤을 때는 어린이집에 현재는 표준보육비용보다 좀, 총액으로 하면 지자체나 국가에서 주는 돈들이 표준보육비용을 좀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표준보육비용이나 유아교육비를 이번에 함께 조사를 할 예정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좀 예산이 조정될 것으로……

○**문정복 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안 돼요. 어떻게 표준교육비하고 표준보육비가 넘어갑니까? 지금 한참 턱없이 부족하지. 실제로 물가인상을 제대로 반영해서 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70만 원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부에서 지금 60만 원에 맞춰 놓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다 해도 60만 원 안 되는데.

○**교육부영유아재정과장 지혜진** 유치원은 그런데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문정복 위원** 어린이집도 그렇지 않아요. 현장에서는 다 아는 얘기를 왜 교육부가 딴 소리를 합니까, 이거를? 그리고 만약에 그랬다라고 하면 2025년도 이거 박박 우기면서 안 했어야지요. 25년도에는 하고 26년도에 본예산에 담지 않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교육부영유아재정과장 지혜진** 내년도 예산도 어린이집은 7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유치원은 11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은 담겨 있는 부분인데 어린이집에 얼마를 더 줄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정복 위원** 그건 추가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내년 본예산은 기본을 잡는 거예요, 기본. 기본 담고 거기에 용역을 해서 추가적으로 돈이 더 부족하거나 더 남는대거나 그러면 그때 조정하시는 거예요.

○**소위원장 조정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정복 위원님 논의가 45번으로 옮겨갔는데 45번 항목은 지금 어린이집 7만 원, 사립유치원 11만 원은 이미 본예산에 담겨 있고 지금 저희가 추가 증액하는 것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을 7에서 11만 원으로 옮겨서 4-5세가 어린이집이든 사립유치원이든 다 11만 원 지금 교육부 지원이 되는 상황인 거지요? 그거는 여야 위원님들 합의하시면 그냥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증액 의결할까 하는데 어떠세요?

○**문정복 위원** 증액하셔야 됩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저는 동의합니다. 혹시 반대하시는 위원님도 있으신지…… 부처의 반대는 예결위에 가서도 반대하실 것은 자유지만 하여튼 저희 상임위는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아보육비 지원은 잠깐 보류하고 46번, 0-2세 증액에 관해서는 방금 저는 3-5세고 이건 0-2세인데 교육부차관 말씀하신 부모교육비 5%, 기관보육료 5% 정도로 해서 610억 정도로 동의가 되실까요?

○**문정복 위원** 이거 동의가 좀 어렵고요.

○**소위원장 조정훈** 더 올리자고요?

○**문정복 위원** 예. 지금 보시면 서지영 위원님 15% 인상, 문정복 10% 인상, 백승아 위원님 15% 인상, 김문수 위원님 2% 추가 인상은 또 뭘까요? 이거는 잘 모르겠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부모보육료 5%는 다 동의하는 거고요. 기관보육료에 대해서는 기관들은 15%를 요구를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5%를 인상하기가 어려운 거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5%, 5% 하는 거는 사실은 맞지 않고 저는 그래서 10%를 요구를 한 거

든요. 그래서 합당한 것은 부모보육료 5%, 기관보육료 10% 정도는 해야지 서로가 좀 합의되는 수준일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조정훈 위원님, 아시겠지만 참고로 이게 이미 올해 예산에서 전년도 대비 1000억 원 증가된 사업입니다.

○문정복 위원 그렇지요.

○소위원장 조정훈 그런데 또 1000억을 더 늘리자고 하시는 건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문정복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대한민국이 인구소멸국가인데 인구소멸국가에서 영유아보육료에 대한 국가의 과감한 지원은 출생률을 증가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책임지는 이런 정책이라고 하면 1000억이 뭐가 아깝겠습니까?

○진선미 위원 하나 여쭙보면 이 문제들과 관련해서, 이 2건 관련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기재부에 제안한 원래의 안이 있었나요?

○교육부영유아재정과장 지혜진 기재부에는 부모보육료 5%, 기관보육료 5% 이렇게 제출했었는데 실제 정부안에 담긴 것은 3%·3% 인상으로 담겼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러면 금액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교육부영유아재정과장 지혜진 만약에 5%·5% 이렇게 하면 610억 원이고 문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10% 하면 차액이 한 1093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5%·15% 하면 1586억 원 정도 됩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문정복 위원님 안으로 일단은 밀어붙이고 예결위에서 중간 정도로 5%…… 기재부가 3%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다는 거잖아요?

○교육부영유아재정과장 지혜진 맞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여유를 위해서 조금 더 올려서 5%를 목표로 하고 교육 상임위에서는 한 구천…… 지금 증액 이게……

○문정복 위원 증액이 364억……

○소위원장 조정훈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증액을 나중에 다 엑셀로 더해 보겠지만 막 조 단위로 넘어가면 이게 우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우스워질 수가 있어요, 전체가. 그래서 현실적으로……

○문정복 위원 위원장님, 실제로 저희가, 교육부가 보육이라는 업무를 가지고 오면서 총용량이 는 거지 이것은 보건복지에 있었어도 이 논의는 계속 지속될 논의였거든요. 그러니 보건복지에 있을 때보다 교육부에 왔을 때 저희가 좀 더 전향적으로 해야지 ‘이것 잘했고 유보통합 정말 애쓰는구나’ 이런 칭찬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위원장님께서 10%로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조정훈 그런데 계산이 조금 틀릴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아까 차관께서 부모 5%, 기관 5% 하면 610억이라고 하셨고 문정복 위원안은 부모 5%, 기관 10%. 부모는 똑 같고 기관만 5% 늘어나는데 그 차액이 610억에서 2000억이 됩니다.

○문정복 위원 아니, 1093억.

○교육부차관 최은옥 1093억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런데 여기 지금 문정복 위원 2047억 이렇게 써 있는 것 아닌가

요?

○진선미 위원 증액이 2047억이잖아요.

○교육부영유아재정과장 지혜진 영유아재정과장입니다.

추측하건대 정부안 3%를 감안 안 한 금액으로 생각이 되고요. 정부안 3% 반영되어 있고 그 베이스에 거기에서 추가 소요가 얼마나 했을 때 부모보육료 5%, 기관보육료 10% 하게 되면 1093억 5300만 원이 추가 소요가 됩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610억에서 1093억……

○진선미 위원 그런 것을 좀 정리해서 우리 최종 결정할 때 다시 고민하고 넘어가…… 스크린이 아직……

○소위원장 조정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개 안으로……

○진선미 위원 예.

○문정복 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가 보통 물가상승률을 3.5%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이런 기관들은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물가상승분을 적용 안 하고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2025년도에 추정으로 물가인상분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우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딱 3.5%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부모보육료는 기본적으로 한 3.5%에서 조금 더 올려서 5%, 그런데 기관보육료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관에서 요구하는 것이 너무 과하다 싶은 게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충선을 마련한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안을 좀 수용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입니다.

○진선미 위원 저는 수용.

○소위원장 조정훈 정책실은 일단 2개 안을 준비해 두시고요.

정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됐고 44번 유아교육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다 하자는 차관님 제안을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1789라고 그러셨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소위원장 조정훈 일단 1789를 증액하고.

45번은 지금 아직 이게…… 841억 원은 일단 어린이집에 가고 그다음에 연구용역이 나오면 거기서 조정하는 것으로 문정복 위원님 제안하신 거지요?

○문정복 위원 예.

○소위원장 조정훈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두 가지를 해 보고요 나중에 총액이 얼마인지 보고 조금 더 위원들끼리 조율해 보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자치안전정책관 관련 예산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자료 108페이지 교육자치안전정책관실 소관입니다.

연번 52번 보통교부금 관련 사항의 가변 항목은 영양교사에 대한 교직수당 가산금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75억 2700만 원 증액 필요 사항입니다. 나번 항목은 학교영양사 식

생활지도수당 지급 관련 사항인데요. 국립학교 대상 내용입니다. 증액 소요는 122억 8500만 원 내용입니다.

다음은 53번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입니다. 대전형 창업체험교육 거점센터를 구축 중인데 이것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13억 585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연번 54번 교육공무직원 처우 개선 내용입니다. 방학 중 소득절벽에 있는 교육공무직원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473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하고 분담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55번 전문상담사의 자격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26년 예산안에는 없던 내용인데요 전문상담사 처우 개선을 위하여 자격수당을 47억 21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월 10만 9300원 정도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저희 교사나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것은 아까 국립학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부랑 17개 시·도교육청이랑 집단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예산으로 이렇게 올리는 것을 찬성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게 52번 가·나?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52번 가·나하고요 54번도 해당이 되고 55번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53번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저희가 특별교부금 시책사업으로 하는 그 나름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여기서 대전형 창업체험교육을 특정해서 예산을 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항목은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진선미 위원 아니,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왜 자꾸 사람들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인색하게 구는지 잘 모르겠어요. 영양교사 문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700만 원 그 부분까지도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오래된 문제인데 이게 이렇게 계속 공전하는 것이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국립특수교육원 등 소속기관 예산 검토보고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윤상열 소속기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특수교육원 관련해서는 연번 56번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사업 관련해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내역사업 관련해서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서 10억 원 증액하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확대를 위한 10억 해서 총 20억을 추가 증액해야 된다는 의견과 후속조치를 위한 10억 원 증액해야 된다는 의견, 두 의견이 있습니다. 논의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3페이지 국립국제교육원 관련해서는 연번 57번 국제교육 교류협력 활성화(ODA) 사업과 관련해서 글로벌 코리아 스칼러십 내역사업에 90억 1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연번 58번 학생교육 교류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한국 유학 홍보 내역사업에 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국비유학생 선발·과건 내역사업과 관련해서 선발·과건을 확대하기 위해서 3억 77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이 있습니다. 연번 59번 특수외국어교육 진흥 사업과 관련해서는 온라인 교육에 집중하기 위해서 7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연번 60번 한국어능력시험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1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국립국제교육원 연수 및 교육과정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 운영 내역사업과 관련해서 실제 응시인원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29억 1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117페이지 국사편찬위원회 관련해서는 연번 62번 소속기관 청사 유지 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국사편찬위원회의 안정적·지속적 보존환경 조성을 위해서 5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한국사 연구·편찬 및 이해 증진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내 사료 조사·수집 내역사업과 관련해서 3억 3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스템 고도화 사업(정보화)과 관련해서는 적정한 사업비 반영을 위해서 6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111~112쪽 국립특수교육원 2건 다 동의입니다. 113쪽 57번도 수용입니다. 114쪽의 58번 가·나 다 수용이고요. 115쪽의 59번·60번 수용입니다. 116쪽 61번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다 수용하신 거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117쪽 62번 그리고 그다음 63번·64번 다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다 수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토론 있으십니까?

그냥 궁금해서, 특수외국어라는 게 뭐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영어 불어 독어 일어 아닌 여러 가지 제삼국 언어들을 특수외국어라고 합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증액 예산 검토까지 다 마친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예.

○소위원장 조정훈 그다음에 저희가 국가교육위원회 예산을 검토해야 되는데 부대의견까지 같이 하고, 안 그러면 잊어버리니까. 그다음에 좀 정리하고……

지금 의결은 못 하는 거지요? 아직 준비가 안 됐지요?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예. 지금 감액 사업 중에서 고려하시는 부분들을 먼저 마무리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럴까요?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예.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어려운 감액 사업 1페이지, 빨리 정리해야 엑셀 시트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서……

감액 있는 사업과 증액·감액이 있는 사업 12건 해서 27건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본경비에 대해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기로 했는데, 제 취지는 충분히 설명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서 기본경비 증액에 대해서는 제가 철회를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제 의도는 실은 이런 식으로……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당 위원님들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특정 인물의 적절하지 않은 예산집행이 기관에 패널티를 주는 쪽으로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번은 넘어가는 거고.

2번 교육정책 이해도 제고 이것도 기본경비니까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3번 기본경비 철회하고.

그다음에 4번, 고민정 위원님 6억 감소. 고민정 위원님이 여당 간사님인데 감액 요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선미 위원** 저는 아까 설득력이 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위원장 조정훈** 감액 요구가?

○**진선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딱 교육부와 관련된 게 아니라 병무청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소위원장 조정훈** 삭감하자?

○**진선미 위원** 아니, 감액이 아니고.

○**소위원장 조정훈** 그냥 두자?

○**진선미 위원** 예, 유지하자. 이거 그러면 몇% 정도인 거예요? 아까 93% 정도 다 받아들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6억이 97%예요?

○**교육부예산담당관 김아영** 예, 저희가 26년 총 예산이 53억 정도인데요. 거기서 지금 6억 하신 거라서 대충 한 18% 그 정도 됩니다.

○**진선미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설명하실 때 93% 정도……

○**교육부예산담당관 김아영** 예, 올해 그렇게 집행할 예정입니다.

○**진선미 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러면 얼마가 불용액이……

○**교육부예산담당관 김아영** 올해는 3억 안팎 정도로 현재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미 위원** 3억 정도?

○**교육부예산담당관 김아영** 예.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한 1~2억만 감액하세요. 2억 정도만 감액하시지요, 불용 안 나오게.

○**교육부예산담당관 김아영**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2억 감액으로 합의하셨고 이게 큰 게, 고민정 위원님이 130억짜리 감액 요구가 있는데 특히 경상대 진행률이 낮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올해 집행을 얼마 예상하십니까?

○진선미 위원 내년에 완공한다고 그래서 다 써야 된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문정복 위원 올해 못 쓰면 내년으로 이월해서라도 다 필요한 돈이라고 아까……

○소위원장 조정훈 진짜 전액 다 필요하십니까?

○교육부교육시설담당관 최문태 시설과장입니다.

이게 그 업체하고도, 공사 업체와도 계약이 돼 있는 상황이고 다 내년도 말까지 이전에 다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이상 없이 완공될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다 지불되는 돈이라서 전액 다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제안하는 게 전액 다 감액하되 만약, 제가 볼 때 심중팔구 내년에 추경이 있을 텐데 그때 집행률 봐서 집행 안 되면 이거 삭감합니다.

○교육부교육시설담당관 최문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회의록에도 남겨 두시고. 다들 기억해 두십시오.

○진선미 위원 너무 쉽게 얘기하시는데? 3월에 집행률이 그렇게 담보가 될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추경까지? 추경 시점까지?

○소위원장 조정훈 3월에 추경하십니까?

○교육부교육시설담당관 최문태 그때 집행률을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거니까 내년 말까지 집행이 저희는 다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소위원장 조정훈 내년 언젠가 추경을 하지 않겠습니까?

○교육부교육시설담당관 최문태 예, 추경할 때 집행률 보시고 연도 말까지 집행 가능한지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니까요.

진선미 위원님, 3월에 추경합니까?

○진선미 위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웃음소리)

○소위원장 조정훈 그렇군요.

6번 글로벌 이것도 기본경비니까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을호 위원님 요청하신 에듀테크 이것도 그냥 철회해 주시지요. 어떠십니까, 정을호 위원님?

○정을호 위원 철회하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부대의견에 이 부분들이 연속성장 순환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으로 해야 된다……

○소위원장 조정훈 부대의견으로 반환해……

○정을호 위원 예, 전반적 정도 수준으로 하는 부분들이 단순 행사로만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좀 달아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예, 부대의견으로 대체하고 감액 요청은 철회하시는 걸로.

그다음에 대학혁신 지원 1억 5000 감액 요구하셨습니다, 문정복 위원님.

○문정복 위원 어쨌까요?

○소위원장 조정훈 아까 1000억, 2000억 논의하셨는데……

○문정복 위원 어쨌까요? 차관님, 어떻게 해?

○교육부차관 최은옥 철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정복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소위원장 조정훈 철회하셨고요.

그다음에 정을호 위원님, 기관 평가……

○정을호 위원 어디에 몇 번째예요?

○소위원장 조정훈 9페이지.

○진선미 위원 기관평가 인증기구. 아, 이거 아까 철회했다. 철회했어요. 이미 임용이 됐다고, 구인 기간이 아니라.

○소위원장 조정훈 철회하셨고요.

10번 인천대학 그거는 진선미 위원님도 요구하셨는데 증액 내역사항 제출하셨나요?

○진선미 위원 저는 받았는데 못 읽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 주셔 가지고. 그런데 특별한……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조금 더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서울대랑 인천……

○진선미 위원 예, 그거 하나만. 2개가 다 왔거든요. 한번 위원장님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읽어 보고 이따가 마지막에 고민해 보도록……

○소위원장 조정훈 마지막까지 한번, 이거 하나 보류해 주시고요.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예.

○소위원장 조정훈 그다음에 계속 가겠습니다.

11페이지 기본경비 제가 철회하고요. 12페이지 기본경비 철회하고 그다음에 13페이지 이거는 수용하셨지요, 아까? 4500은 수용하셨고 14페이지 이거는 부대의견으로 전환했고요. 15페이지……

○진선미 위원 몇 번, 번호를 불러 주세요.

○소위원장 조정훈 14번, 이거 제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해외연수 이거 정을호 위원님.

○정을호 위원 이 부분은 아까 지적했듯이 외유성 출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억 6000만 원 전액을 다 삭감하기는 그렇지만 나름대로의……

○소위원장 조정훈 금액을 제안해 주시지요, 위원님께서.

○문정복 위원 1억 삭감?

○정을호 위원 1억 삭감은 그렇고 이게……

○진선미 위원 50%?

○정을호 위원 교육부에서, 왜냐하면 이 부분들은 아까 사업을 보더라도 외유성 출장이라든가 형식적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부적절한 부분이 많아 보이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이게 삭감이 되더라도 기관 운영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 1600이니까 5000 삭감하는 걸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예산담당관 김아영 저희 이번에 전자교탁 바꾸는 것만 좀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을호 위원 예, 전자교탁은 그렇게 하시고요.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그게 얼마입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8100만 원이 전자교탁 예산이고요.

○소위원장 조정훈 얼마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8100만 원.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3000만 원 삭감하면 됩니까?

○정을호 위원 아니요. 5000만 원 삭감하고……

○소위원장 조정훈 1억 1600 중에 8000이 필요하답니다, 지금.

○교육부차관 최은옥 8100만 원 빼고 3000만 원……

○정을호 위원 예.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3000 삭감 수용하시는 걸로.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정을호 위원 예.

○소위원장 조정훈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삭감이, 18페이지 1번입니다. 증액은 괜찮고 3000만 원 삭감 정을호 위원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정을호 위원 교육부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몰라도 학술원장 국감 때 제가 제기했던 부분들이거든요. 학술원장의 지금 무분별한 출장이, 거의 반절 이상 출장을 하셨고 이 부분도 고유 목적에 맞는지도 모르겠고 외부강의도 본인들이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원장실의 예산이 따로 책정되지 않았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고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대의견에 아까 제가 말씀한, 내가 질의한 내용을 부대의견 담아 주시고 이 부분들은 내년도에……

○소위원장 조정훈 알겠습니다, 또 꼼꼼히.

○정을호 위원 예, 꼼꼼히 다시 살펴보는 걸로 해서 철회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정을호 위원님 국정감사 스타일 이제 잘 아실 테니까 잘해 주시고요.

19페이지, AI 한국방송통신대학 저는 이거는 아직도 좀 불필요한 것 같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전액 삭감은 아니더라도 좀 금액을 낮춰 주셔서 제가…… 차관님, 진짜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AI 기반 원격교육 플랫폼은 진짜 온갖 데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이 아까 결정을 못 하셨는데.

○교육부차관 최은옥 사실 방송통신대는 그 기능 자체가 유일하기 때문에 감액을 조금 줄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알겠습니다. 그러면 2억 원 삭감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잠깐만요. 이게 지금 플랫폼 구축이라서 여기서……

○소위원장 조정훈 이게 ISP 사업입니다, 올해는. 그리고 2030년까지 쭉 이어지는 사업이거든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위원장님, 2억 원 살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조정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억 5000 삭감.

○교육부차관 최은옥 아니, 1억 500.

○소위원장 조정훈 예, 1억 500 삭감. 동의하셨고요. 그러면 고민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회계를 바꾸자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회계를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당장 회계 바꾸는 게 조금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하시고 내년에 저희가 확실하게 바꿔서 넣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고민정 위원에 대한 것은 부대의견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소위원장 조정훈** 내년 예산에서는 동 항목은 회계 항목을 바꾼다. 예, 됐고요.

그다음에 또 감액이 21페이지, RISE AI 기본 교육 93억 전액 삭감을 요구하셨는데 김대식 위원님이 지금 예결위 질의하러 가셔서……

○**교육부차관 최은옥** 이거는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 감액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을호 위원** 삭감 아님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삭감에?

○**정을호 위원** 아니요, 하지 말고.

○**소위원장 조정훈** 철회로.

○**정을호 위원** 예.

○**소위원장 조정훈** 일단은 철회로 해 놓고 김대식 위원님 오시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에 대한 서로 배려 차원에서.

그다음에 원안 유지……

○**교육부차관 최은옥** 위원장님, 18쪽에 교육학술정보원 건에서 아랫단에 6억 300만 원 증액하는 거 결정이 안 되었다고 저희 실무자가 얘기해서요.

○**소위원장 조정훈** 수용했는데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아,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필요 없으십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아닙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넘어갑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철회하겠습니다.

24페이지, BK21 4단계 사업 관리비 문정복 위원님 그리고 정을호 위원님.

○**문정복 위원** 그거는 저희가 부대의견으로 실제로 한국연구재단의 이사장이 사업 목록에서 외유성, 외유성이 아니지요. 불필요한 출장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이 예산은 그대로 수용하고, 다만 그 연구재단 이사장의 경상경비와 관련한 필수경비 그다음에 연수비 이런 내역들을 전체를 다 보고하는 조건으로 철회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고맙습니다. 부대의견 반영해 주시고요.

정을호 위원님.

○**정을호 위원** 문정복 위원님 의견에 같이 동의하면서 같은 부대조건을 달아 주시고요. 최대한……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하나의 부대의견으로 ‘두뇌한국21 사업 관련 진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련 자료를 국회에 소통한다’ 해 주시고 원안 유지.

또 경비 감액이 6번, 한국학중앙연구원 경상경비 2500만 원. 김용태 위원님은 원안 유지 요청하셨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번씩, 김용태 위원님은 어떻게, 원안 유지 입장이지요?

○**김용태 위원** 예, 저도 이걸 계속 원안 유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만 정을호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부대의견으로 하시겠습니까?

○**정을호 위원** 열심히 하시는 걸로 해서 철회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예산 감액 필요 요구는 철회하고 부대의견으로 아까 두뇌한국 사업과 유사한 워딩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경상경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 넘어가고.

김대식 위원님 글로컬 사업 이것에 대해서는 그때 논의를 충분히 한 것 같아서 이것은 철회하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 문정복 위원님, 16억 감액 요구하셨습니다, 이것.

○**문정복 위원** 이것도 사업목적에 맞게 써야지 연구재단이사장의 불필요한 쌈짓돈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부대의견드리고요. 꼭 국회로 사용 내역 보고해 주십사 하는 요청 드리면서 철회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감사합니다. 정을호 위원님도 같은 입장이실까요?

○**정을호 위원** 예.

○**소위원장 조정훈** 그다음에 나머지는 아까 얘기했지만 정부 원안대로 가기로 했는데 아까 문정복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발언하신 것과 저희가, 저희 당하고도 상의했는데 400억을 유지하면서 지원 대학을 3개에서 5개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국민의힘은 이견이 없습니다.

○**문정복 위원** 800억만 증액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400 곱하기 5 하는……

○**문정복 위원** 5개 하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동의하시겠습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소위원장 조정훈** 그렇게 해서 그러면 여, 야, 정부 다 합의한 걸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서울대 10개 만들기 증감 같은 건 철회하시고 그것만 증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서울대 출연 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철회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37페이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7억 감액 요구 있습니다, 정을호 위원님.

○**백승아 위원** 철회하신것 같은데? 아까 철회, 부대의견……

○**소위원장 조정훈** 예, 부대의견으로 정리되었고.

그다음에 11번.

○**문정복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소위원장 조정훈** 장학재단 출연, 박성준 위원님은……

○**문정복 위원** 9번 서울대학교 출연 지원은 감액 다 철회하시는 거지요?

○**소위원장 조정훈** 철회했습니다.

○문정복 위원 예,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39페이지 한국장학재단 출연. 박성준 위원님 이 감액은 좀 받기 어렵다고 말씀하셨고. 안 계셔서 그냥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 국립대병원 지원 126억 감액은 동의하셨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소위원장 조정훈 그다음에 41페이지 세종충남대 감액도 동의하셨고. 맞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소위원장 조정훈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증액이라 일부 수용, 일부 불수용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박성준 위원님 1000만 원 감액에 대해서 아까 수용하신 걸로.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수용했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됐습니다.

다 됐지요? 정리되고.

그리고 부대의견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부대의견 관련된 부처 의견 표 받으셨습니까?

전문위원님 부대의견 관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백승아 위원 증액은 안 하나요?

○문정복 위원 부대의견 넘어가기 전에……

○소위원장 조정훈 다시요.

○문정복 위원 부대의견 넘어가기 전에 아까 조금 미진한 게 있었어요. 명확하지 않은 게 있었어요.

영유아정책국에 96페이지…… 잠깐만요. 98페이지.

○진선미 위원 증액 부분은 아직 안 하지 않았어요?

○문정복 위원 아직 안 한 거예요?

○진선미 위원 예.

○소위원장 조정훈 증액은 다 정리됐고 제가 제안드린 건 98페이지 문정복 위원님 깔끔하게, 44번은 1789, 유치원하고 둘 다 해서 1789, 교육부가 얘기한.

○문정복 위원 지금 1789가 어렵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아니요.

○소위원장 조정훈 수용하는 겁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하려면 1789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정복 위원 예, 1789로.

○소위원장 조정훈 그다음에 99페이지 841은 수용. 우리가 그냥 여야 합의해서 통과시킬 거고.

○문정복 위원 84152도 수용.

○교육부차관 최은옥 정하셨어요, 수용은 아니고.

○문정복 위원 예.

○소위원장 조정훈 그다음에 100페이지는 문정복 위원님 말씀하신 천……

○문정복 위원 1093억.

○진선미 위원 지금 증액을 하고 있는 건가요?

○소위원장 조정훈 예, 증액.

○진선미 위원 증액, 다시.

○소위원장 조정훈 그 정도로 가자.

○백승아 위원 아까 증액에서 영양사 식생활지도수당……

○진선미 위원 영양사 2700만 원 해 주세요.

○백승아 위원 그것 분명하게 안 정해졌어요.

○소위원장 조정훈 잠깐만요. 그래서 일단 45번, 46번은 다 된 거지요?

○문정복 위원 예.

○소위원장 조정훈 영양사가 몇 번이지요?

○백승아 위원 3번.

○소위원장 조정훈 3번?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 수로?

○진선미 위원 46페이지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2700만 원.

이게 아까 정부가 왜 거부하셨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국립학교는 저희 교육부 소관이고 공립학교는 시도교육청 소관인데요. 교육부랑 시도교육청이랑 같이 해서 집단교섭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사 간에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가 없어서……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예산을 증액해도 쓸 수가 없다는 겁니까?

○백승아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노조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단체교섭권이 국회의 예산심의권보다 더 세나요? 국회에서 21년부터 23년, 24년, 25년 계속 예산안에 식생활지도수당 지급하라고 내려갔어요, 부대의견이. 그런데 교육감들이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국회 예산심의권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교육부가 하라고 공문 하나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써서 시행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노사관계 단체교섭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라서 할 수 없다 그러면 국회가 왜 필요합니까? 예산심의권이 왜 필요합니까?

○교육부교육자치협력과장 신광수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교육자치협력과장입니다.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18개 관청이 사측이 되고 그다음에 공무원 관련 3개의 노조가 노측으로 해 가지고 일대일 집단교섭을 하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교섭을 하는 이유는 18개가 각각 하게 됐을 경우에 공무원의 어떤 처우라든지 이런 데 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사측은 사측대로 노측은 노측대로 하나의 의견을 가지고 교섭을 하는 것이 됩니다. 교육부가 관할하고 있는 국립학교 직원이 9명밖에 안 되지만 만약에 교육부가 그 직원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수당을 줘서 임금을 인상하게 됐을 때 집단교섭의 전체적인 틀 자체가 깨져 버립니다.

○진선미 위원 그러라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백승아 위원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하라고 몇 년 동안 이야기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국회의원들이 땡땡땡 의결 통해서 나갔는데……

○교육부교육자치협력과장 신광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승아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게 만들어야지 교섭 중이라서 못 한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교육부교육자치협력과장 신광수 21년부터 24년 작년까지 계속해서 사측에 기존에 면허가산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 말고 별도로 수당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노조 측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조가 여기에 대해서 불수용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 받아들이니까 그런 거고요.

○백승아 위원 똑같은 말 하세요, 계속. 그러니까 국회 예산심의권보다 노조의 단체교섭권이 더 우선이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진선미 위원 위원장님, 저희는 의견은 다 들었어요, 이유도 충분히 들었고. 그런데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다 보니 지금까지 온 거라서 저희는 교섭단체와 관련된 협상에 영향을 미치라고 이것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교육위에서는 이제.

○김용태 위원 그러면 이것을 내려보냈다가 교섭이 안 되면 불용되는 건가요, 예산은?

○교육부교육자치협력과장 신광수 그런 형태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렇게 2700만 원을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교섭을 통해서 지금 여기서 담아 주신 연간 300만 원이 교섭에서 되면 지금 국립학교에 기본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학교당 7억이 조금 안 되는 돈이 있는데……

○백승아 위원 궁금한 게요 그러면 각종 수당은 교섭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교육부교육자치협력과장 신광수 공무원에 대한 수당들은 대부분 교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백승아 위원 그러라는 법이 있어요?

○교육부교육자치협력과장 신광수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법들이 있는데요.

○백승아 위원 그러니까 수당은 단체교섭을 통해서만 설정돼야 된다, 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냐고 여쭙보는 겁니다.

○교육부교육자치협력과장 신광수 그런 규정은 없고 그래서……

○백승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진선미 위원 그걸 논쟁할 건 아니고요. 교육부의 의견은 충분히, 이미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안 한 거니까 저희는 이번에 약간 균열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700만 원 불용분이면 다른 것에 비해서 훨씬 더 적은 양이고 어쨌든 교섭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메시지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것은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민주당 위원님들 입장은 알겠는데 제가 일단 예산을 짜는 원칙을 좀 봐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쭙볼게요.

아까 김용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유든 교섭에서 이게 동의가 되지 않으면 집행을 못 하는 거지요?

○교육부교육자치협력과장 신광수 맞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렇지요?

○**교육부교육자치협력과장 신광수** 예.

○**소위원장 조정훈** 만약에 이걸 안 넣었어요. 2700만 원을 증액 안 했는데 교섭에서 합의가 됐어요. 그러면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부교육자치협력과장 신광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립학교 같은 경우에 기본경비가 전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87억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42개 학교인데 그러면 학교당 약 7억이 조금 안 되는 돈이 기본경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 이 기본경비가 9명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걸 안 넣어도 교섭에서 동의가 되면 집행할 수 있는 거지요?

○**교육부교육자치협력과장 신광수**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시그널을 넣으라는 건데 예산이 그런 압박을 위해서 쓰는 수단은 아닙니다. 지출처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을 넣습니까?

○**백승아 위원** 제가 노조위원장이었는데요.

○**진선미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지요.

○**백승아 위원** 제가 노조위원장이었고 단체교섭을 해 봤는데 단체교섭을 통해야만 수당이 신설된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진선미 위원** 그리고 전체 집단교섭이라는 것도……

○**백승아 위원** 만약에 지급한다라고 나오면 예산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진선미 위원** 교섭이라는 것도 편의잖아요, 법률적인 게 아니라고요.

○**백승아 위원** 단체교섭에서 만약에 준다라고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진선미 위원** 법률적으로 의무적인 게 아니라고요, 본인들의 편의에 의해서 하는 거지.

○**소위원장 조정훈** 그런데 지금 부처는 노사 간에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부교육자치협력과장 신광수** 맞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만약에 수당을 지급하라고 단체교섭이 됐어요. 그러면 어떡해요, 예산이 없는데?

○**소위원장 조정훈** 제가 말씀을 좀 나누면 지금 이 17개 교육청하고 교육부하고 같이 해서 영양사의 처우 개선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부교육자치협력과장 신광수** 맞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17개 교육청의 입장까지 다 반영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진선미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왜 안 했어요? 그렇게 교섭하셨을 거잖아요.

○**교육부교육자치협력과장 신광수**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에도……

○**진선미 위원** 안 받은 거잖아요. 그전에도 안 된 거고 교섭이 다 안 된 것 아닙니까?

○**교육부교육자치협력과장 신광수** 어떤 내부 사정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제시한 수당액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어떤 것 때문에 노사에서 이것을 불수용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저희한테 명확하게 알려 준 바는 없습니다.

○**백승아 위원** 몇 년이 지속되고 있는데 알려 주지 않았다고 그러면 이대로 계속합니까?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압박의 포인트는 교육부나 그 협의체가 이걸 빨리 협의하라고 하는 압박이 맞지 국립학교 9명 만을 위해서 예산을 담고 이것을 교육청에서 따라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선미 위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백승아 위원 저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선미 위원 왜냐하면 지금까지……

○소위원장 조정훈 저는 이것은 예산을 쓰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선미 위원 저도 발언 좀 할게요.

○소위원장 조정훈 예.

○진선미 위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유사한 직역들, 특히 공무원, 공무원 저마다 다릅니다. 특히 돌봄직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은 훨씬 적고 어느 쪽은 많고 이런 차이들이 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어쨌든 몇 년 동안 계속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교육부에서 선례를 만들어서 교섭을 더 강화해서 다른 쪽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집단교섭이라는 게 언제부터 그렇게 중요했어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똑같이 다 진행이 됐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메시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한번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소위원장 조정훈 말씀하시지요.

○백승아 위원 위원장님, 본질은 이 식생활지도수당이 필요하냐 안 하냐 그게 본질이지 단체교섭은 부차적인 일입니다. 이 수당이 필요하면 교육부에서 지시를 내리는 것이고 저희 국회에서 그렇게 예산 심의를 했으니까, 보니까 지난 4년 동안 했구먼요. 내보냈으면 교육청은 그것을 실행을 해야지요. 그런데 안 됐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해야 되고 식생활지도수당이 필요한지 아닌지 그것을 얘기해야지 단체교섭 이야기는 좀 부차적인 이야기 같습니다. 이게 절대로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이전처럼 노력 조항이라도 부대의견으로 내려보내서 교육청이 시행하도록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소위원장 조정훈 하시지요. 왜냐하면 저는 큰 틀에서 두 분에 동의합니다. 영양사의 처우 개선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는데 지금 그렇게 하게 되면 17개 교육청과 교육부가 진행하고 있는 단체협상을 깨게 되는 겁니다.

○진선미 위원 깨는 것 아닙니다. 깨는 거 아니에요, 균열을 주는 거지.

○백승아 위원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진선미 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예결위도 있으니까 적어도 저희 단계에서는 통과시켜서 논의가 되도록……

○소위원장 조정훈 이것은 부대의견으로 해 주시지요.

○진선미 위원 부대의견은 이미 해 가지고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거라서요.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정복 위원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제가 서울대 10개 만들기에서 5개로 늘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좀……

○문정복 위원 좀 해 줘라. 빨랑 해.

(웃음소리)

○소위원장 조정훈 이것은 부대의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어떻게 정리가 된 건가요? 제가 못 들어서.

○소위원장 조정훈 부대의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러면 부대의견 매년 내려보냈는데 교육청에서 지키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지키게 할 것인지 교육부가 연구해서 보고해 주세요.

○진선미 위원 왜 갑자기 부대의견으로 내리세요, 위원장님. 이게 위원장님의 의견 안 이 아니었잖아요. 야당의 의견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백승아 위원 위원장님도 이것 신청하셨다.

○소위원장 조정훈 저도 여기에 포함했었습니다. 제 이름도 있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진선미 위원 그러니까요.

○소위원장 조정훈 그런데 제가 교육부의 설명을 들으니까 저는 설득이 된 거고요.

○진선미 위원 저는 안 되고.

○백승아 위원 저는 안 돼요.

○진선미 위원 두 사람이 안 되잖아요.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니까요.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라고요.

○진선미 위원 2 대 1인데, 2 대 1이잖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 안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정복 위원 해 줘라.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거점국립대학 하나 빼요.

○진선미 위원 아니, 그거랑 그거랑 왜 비교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소위원장 조정훈 이것은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이게 2700만 원이든 270억이든 공동으로 협의해서 금액을 맞추겠다는데 그것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쓰겠다는 게 예산 원칙에 맞습니까?

○진선미 위원 아니, 맞춘다고 늘 얘기했지만……

○백승아 위원 저는 압박하는 용도로 쓰는 거 아니에요.

○소위원장 조정훈 그런 취지로 얘기하신 거잖아요.

○백승아 위원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고요. 압박하는 게 아니라 식생활지도 수당이 필요하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리고 예산을 넣든 안 넣든 협의 과정의 결과에 따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진선미 위원 아니, 쓴다고 의지가 있으면 써도 되는 겁니다. 그게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소위원장 조정훈 그리고 협의가 되면 여기에 2700을 넣든 안 넣든 집행할 수 있는 거고 협의가 안 되면 2700을 넣든 안 넣든 집행할 수 없는 거고. 이것은 관계가 없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행위인데요. 저는 그렇게 예산 쓰는 건 아니라고 제자리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선미 위원 그러면 일단 보류하시지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부대의견으로 내려가는 것.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이걸 보류하시지요.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는 됐지요? 이제 부대의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아니, 부대의견 내려갈 수 없다고 보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아니요, 다른 부대의견들 검토하겠다고요.

○진선미 위원 예.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부대의견으로 자료에 첨부돼 있는 부분이 아니라 67건으로 새롭게 나누어 드린 자료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소위원장 조정훈 위원님들 다 받으셨나요?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예, 지금 다 배포가 돼 있습니다. 회의 중에 추가적으로 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별지로 나누어 드린 67건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 중에서 특이사항은 47번에 대해서 철회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을호 위원님께서 내신 의견이 철회 의견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부대의견과 관련해서 수정의견이 제시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까지 추가적으로 6건을 또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정리를 해서 소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듀테크 박람회 성과 제고, 학술정보원 출장관리비, 디지털 혁신 플랫폼 회계 이관 문제, BK21 사업단 관리비 투명성, 한국학 중앙연구원 사업비·관리비 투명성, RISE 관련해서 연구재단 사업비 관리 투명성 등 6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수용하는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요. 수정 제안하신 것과 그다음에 불수용안에 대해서 교육부 입장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저희 예산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예산담당관 김아영 예산담당관 김아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진행하시지요.

○교육부예산담당관 김아영 1번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받은 원안에 대해서 수정하는 문구로 ‘교육부는 재외한국학교 운영비와 저소득층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재외한국학교의 유치원·초등학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로 수정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백승아 위원님이 제안하신…… 1번이지요, 지금?

○교육부예산담당관 김아영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수정안 수용하시겠습니까?

○백승아 위원 예.

○소위원장 조정훈 진행하시지요.

○교육부예산담당관 김아영 2번입니다.

교육부는 특수외국어교육 진흥 사업에 따라 전문인력이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에 대해서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지금 번호를 보시면 1번 4번 뚝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용

된 건 여기 아예 나와 있지도 않고요. 4번·5번·6번을 일부 수용이라 그러는데 대안이 없네요. 이게 어떤 뜻일까요, 4번·5번·6번?

○**교육부예산담당관 김아영** 4번·5번·6번 저희 모두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원안 수용이신 거지요?

○**교육부예산담당관 김아영** 예, 원안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10번, 수용 곤란.

○**교육부예산담당관 김아영** 10번에 대해서 대체 워딩드리겠습니다.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으로 인해 교육기부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규사업 계획 시 충분한 검토를 거칠 것’으로 수정 제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이것은 수용할 수 있는 거지요, 수정안은?

○**교육부예산담당관 김아영**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동의합니다.

16번.

○**교육부예산담당관 김아영** 16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하여 재원부담 주체들의 재정 여건, 현행법 취지 및 일몰기한, 교육재정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교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로 수정 의견드립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다 알겠는데 노력이 아니라 ‘향후 계획을 마련한다’ 어떠십니까?

○**교육부학생맞춤통합지원과장 나현주** 일단은 ‘노력하여야 한다’로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사실 지금 당장 향후 계획을 저희가 내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소위원장 조정훈** 그건 제가 수용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계획 없이 노력하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냥 생각해 본다입니까?

○**교육부학생맞춤통합지원과장 나현주** 그러면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감사합니다.

18번은 추후 검토하겠다 이것 무슨 뜻일까요?

○**교육부예산담당관 김아영** 아닙니다. 저희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수용.

○**교육부예산담당관 김아영** 예,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19번은요?

○**교육부예산담당관 김아영** 19번에 대해서는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영양사의 수당 등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한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렇게 하고 수용하시는 거지요?

○**교육부예산담당관 김아영**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27-1·2·3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교육부예산담당관 김아영** 예, 동일 워딩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관련 위원님들 의견…… 동의하십니까?

○**정을호 위원** 동의합니다.

○**강경숙 위원** 이것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승아 위원** 노력 조항은 의미가 없어요. 다 노력한다야, 다 노력한다.

○진선미 위원 기존의 부대의견과 다른 게 뭐가 있지, 더 약해진 것 같은데.

○백승아 위원 노력한다는 안 하면 그만입니다. 단체교섭에서도 노력한다는 안 받습니다.

○진선미 위원 이것은 노력하다가 아까 다른 부대의견 때도 바꾸셨잖아요. 저는 이것은 조금 더 구체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안한 것 있잖아요. ‘지급하도록 한다’라든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거나, ‘노력한다’가 아니라.

○소위원장 조정훈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그러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영양사의 수당 등 처우개선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동의하십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강경숙 위원님, 정을호 위원님.

○정을호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로.

○정을호 위원 예.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수정하겠습니다.

30번.

○교육부예산담당관 김아영 30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안에 대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방학 중 비근무자들의 임금수준 및 근로형태 등을 파악하고 방학 중 비근무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방향을 정책연구하기 위해 노력한다’로 워딩 제안드립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알겠습니다.

31번.

○교육부예산담당관 김아영 31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협의회와 1. 중앙부처 공무원과 명절상여금 차이 해소 2. 학교 비정규직 합리적 임금체계 개선안 3. 방학 중 비근무자에 대한 대책 등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로…… 죄송합니다. 2번이 빠지고 명절상여금 차이 해소, 학교 비정규직 합리적 임금체계 개선안에 2. 방학 중 근무자에 대한 대책으로 정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2가 계속 나오고……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대책을 마련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교육부예산담당관 김아영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노력할 것’을 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대책을 마련한다’.

○교육부예산담당관 김아영 예, 그러면 ‘대책을 마련한다’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런데 2번이 2개가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육부예산담당관 김아영 처음 2번이 제외됩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예.

강경숙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강경숙 위원 예.

○소위원장 조정훈 37번.

○**교육부예산담당관 김아영** 37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 청소예산이 충분하여 확보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 노력한다’로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백승아 위원님.

○**백승아 위원** 아까 단체교섭 이야기하셨는데요, 단체교섭에서는 노력 조항은 안 받습니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이것은 수용이 안 됩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어떠십니까?

○**백승아 위원** ‘독려하고 지원한다’, 원안이 좋은데요. ‘독려하고 지원한다’ 이걸 강제로 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니까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거지 않습니까?

○**백승아 위원** 예, 그러니까 ‘독려한다’, ‘지원한다’ 이걸 강제가 아닌데 이게 왜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동의합니다. ‘독려하고 지원한다’로 하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독려하고 지원한다’, 수용하셨고요.

38번, 추후 검토.

○**교육부예산담당관 김아영** 38번 대체 워딩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전문상담사의 수당 등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한다’로 보고드립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진선미 위원님.

○**진선미 위원** 추후 검토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교육부예산담당관 김아영** 저희가 이 자료를 만들던 시점에서 계속 워딩을 협의 중이었기 때문에……

○**진선미 위원** 또 워랑 똑같겠지, 개선책을 마련한다.

워딩 다시 불러 줘 보세요.

○**교육부예산담당관 김아영** 예, 38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전문상담사의 수당 등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한다’로 보고드립니다.

○**진선미 위원** 여기도 또 노력한다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단체교섭이 어떻게 될 거라는 뭔가 가능성이라도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체적인 처우개선에 관한 입장들이 있으셔야 할 것 같고. 이건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전문상담사 관련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네.

○**교육부차관 최은옥** 직종이 하도 많아서 그걸 저희가 일괄 담지 못해서 그런데요. 앞에 27-1·2·3 그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로.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38번 수정 문구를 진선미 위원님께 한번 검토받으시고 동의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교육부예산담당관 김아영** 예.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보류하고요.

39번.

○**교육부예산담당관 김아영** 39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이 상임감사의 고액 교육비 사용, 외유성 해외 출장에 대해 제한하는 내규를 마련하도록 관리감독한다’로 보고드립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42번.

○**교육부예산담당관 김아영** 42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조교의 고용과 처우에 대한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관계부처 또는 대학과 협의하여 조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로 보고드립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백승아 위원님.

42번입니다.

○**백승아 위원**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방안을 찾아보고 연구하고 어떤 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지 강제로 얼마를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닌데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로 바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부예산담당관 김아영** 예, 가능합니다.

○**백승아 위원**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46번.

○**교육부예산담당관 김아영** 46번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48번.

○**교육부예산담당관 김아영** 48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영양사의 수당 등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한다’로 보고드립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정을호 위원님.

○**정을호 위원** 이 부분도 앞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마련한다’로 바꿔 주시고.

○**소위원장 조정훈** 아까 19번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 아닌가요?

○**정을호 위원** 예, 똑같으니까 노력한다를 이왕이면 아까 똑같은 워딩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예산담당관 김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19번하고 48번은 통합해도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이 똑같아서. 그렇지요, 정을호 위원님?

○**정을호 위원** 예.

○**소위원장 조정훈**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49번.

○**교육부예산담당관 김아영** 49번 보고드립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방학 중 비근무자들의 임금수준 및 근로형태 등을 파악하고 방학 중 비근무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방향을 정책연구하기 위해 노력한다’로 보고드립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보고받기로 31번하고 내용이 동일하다고 하시네요. 그렇지요?

○교육부예산담당관 김아영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31번 문구로 통합하면 어떨까요?

○교육부예산담당관 김아영 예, 괜찮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예, 내용이 똑같으니까.

50-1·2.

○교육부예산담당관 김아영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RISE로 이관된 사업들의 취지와 목적 등을 감안하여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로 보고드립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백승아 위원님.

○김대식 위원 마련한다가 아니고 마련하여야 한다?

○백승아 위원 지금 몇 번인가요? 죄송해요.

○강경숙 위원 50-1.

○김대식 위원 ‘마련한다’로 하지요. 마련하여야 한다보다 마련한다.

○교육부예산담당관 김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마지막 53번.

○교육부예산담당관 김아영 ‘교육부는 2025년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대해 26년 혁신 지원 사업계획 수립 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로 워딩드립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런데 이게 부대의견이에요? 뭘 하라고 해야지. ‘참고하여야 한다’지.

○교육부예산담당관 김아영 반영한다로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참고할 필요가 있다보다 반영한다?

○교육부예산담당관 김아영 예, 반영한다로 보고드립니다.

○김대식 위원 그래야 말이 맞아요.

○소위원장 조정훈 그런데 지금 이게 등록금 인상한 대학들을 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뜻입니까, 53번 내용이?

○김대식 위원 제가 한마디 할까요?

○소위원장 조정훈 아니, 그 내용에 대해서……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이 상태로 가면 대학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대학등록금이 교육부의 말도 안 듣고 대학에서 일률적으로 몇 프로 몇 프로 올리게 되면 이게 교육부 영도 안 서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차관 최은옥 저는 53번 부대의견은 좀 삭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예, 이건 삭제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김대식 위원 53번이요?

○소위원장 조정훈 예.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소위원장 조정훈 이걸 대학 등……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아마 사립대학이 과연 관련이 될 텐데 그 법정에서 허용한 등록금을 올린다고 어떻게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뜻인데 저는 삭제가 맞다고 봅니다. 차관님, 동의하시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리고 이거는 지난 25년 등록금을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등록금 정책을 새로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나간 것을 가지고 페널티를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삭제해 주세요.

○**김대식 위원** 그래서 삭제하고 그러면 이게 교육부도 영이 설 수 있도록 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해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맞습니다.

○**김대식 위원** 교육부에는 올리지 말라는데 우리는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 버리면 보면 교육부는 뭐냐고?

○**교육부차관 최은옥** 알겠습니다, 위원님.

○**소위원장 조정훈** 일단 이거는 삭제하고 그거 관련해서는 따로 논의하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보니까 다 수용이네요. 그렇지요?

○**교육부예산담당관 김아영**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원안 수용이신 거지요?

○**교육부예산담당관 김아영** 54번에 대해서요……

○**소위원장 조정훈** 54번…… 54번이 없는데. 아, 따로 있습니까?

○**교육부예산담당관 김아영** 지금 저희가 의견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보고드립니다. 54번 원안이 교육부는 서울대……

○**김대식 위원** 55번 아니에요?

○**교육부예산담당관 김아영** 54번이 지금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김대식 위원** 아, 추가로?

○**교육부예산담당관 김아영** 예.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니까 원래 1번부터 목록은 67건 이 파일에 돼 있습니다. 말씀하시지요.

○**교육부예산담당관 김아영** 54번이 추가로 과에서 의견 들어온 게 있어서 보고드립니다.

54번 원안은 ‘교육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위한 재정 지원이 일부 국립대학교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가 원안인데요. 저희 수정의견 드리는 부분은 ‘교육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국립대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로 의견 드립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예, 수용합니다.

부대의견 검토를 마쳤고 또 있습니까, 부대의견?

○**교육부예산담당관 김아영** 아니요. 63번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63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다음도 수용이라면서요.

○**교육부예산담당관 김아영** 예, 수용이었는데요. 지금 담당과에서 의견이 있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3번은 ‘교육부는 음악교과의 기본이수과목 중 국악이수를 의무화하는 고시개정을 추진한다’로 말씀드립니다.

○**김대식 위원** 추진한다?

○**교육부예산담당관 김아영** 예, 추진한다로.

○**소위원장 조정훈** 정을호 위원님.

○**정을호 위원** 앞전에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이름을 아까 거점국립대 그걸로 바꿔 주시는 거 어떨까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좋습니다. 명칭이 명확해야……

○**정을호 위원** 명칭을 명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것은 공식 명칭을 쓰시고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소위원장 조정훈** 또 정을호 위원님, 63번 부대의견 동의하시는 겁니까?

○**정을호 위원** 예.

○**소위원장 조정훈** 동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있습니까, 교육부?

○**교육부예산담당관 김아영** 64번입니다.

○**교육부인성체육예술교육과장 김호신** 64번 관련해서 저희 국악 교사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요. 우선적으로 저희 교사 자격증에 국악이 별도로 과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국악 교원이 별도로 양성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교원 연수에 대해서 국가랑 저희 교육청은 장려하고 노력을 해야 하지만 다만 법적 근거 없이 저희가 특정 분야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강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현행법에도 저희가 각 법률에 근거해서 교육을 의무화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생명이나 안전·폭력 그리고 교원 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아주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악에 대해서 일반 교사들에게 의무를 강제화하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렵고, 만일 이 부분이 또 국악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미술교과에도 전통미술 분야도 있습니다. 이러한 형평성들이 우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부차관 최은옥** 수정의견……

○**정을호 위원** 수정의견이 없습니다. 수정의견 뭐예요?

○**교육부인성체육예술교육과장 김호신** 죄송합니다.

수정의견은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과 예산 지원 등을 포함한 교원에 대한 국악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각 교육청이랑 협업해서 좀 더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기는 정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을호 위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로 바꾸시면 안 되나요?

○**교육부인성체육예술교육과장 김호신** 활성화 방안을요?

○**정을호 위원** 예.

○**교육부인성체육예술교육과장 김호신** 예.

○**정을호 위원** 감사합니다.

○**교육부인성체육예술교육과장 김호신** 그러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어떻게 국악 교원 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정을호 위원** 확실하게 활성화 방안을 마련……

○**교육부인성체육예술교육과장 김호신** 국악 교원이 아니라 교원에 대한 국악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교육부차관 최은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교육부인성체육예술교육과장 김효신** 예, 그런데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정을호 위원** 감사합니다.

○**교육부인성체육예술교육과장 김효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리고 다른 부처로 넘어가기 전에 김대식 위원님 오시면 확인하려고 하는 게 위원님, 21페이지 4번 지금 삭감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부처 간에 확인이 다 끝났고 하나 남은 게 21페이지 김대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93억 삭감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처는 철회 요청이 있고.

○**김대식 위원** 저는 수용입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정부안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거는 카이스트하고 그다음에 교육부하고 또 하나 과기부하고 확실하게 가르마를 타서 이걸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김대식 위원** 그렇게 하시겠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할 겁니다.

○**김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안대로 그렇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수용하시겠습니까?

○**김대식 위원** 예.

○**소위원장 조정훈**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육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끝났고 부대의견 6개 지금 작업 중인 거를 제외하고는 숫자 작업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과 상의해 본 결과 일단은 교육부는 조금 대기해 주시고 저희가 숫자 작업 끝내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대기해 주시고 저희가 국가교육위원회 예산 검토 많지 않을 테니까 끝내고 부대의견까지 추가로 검토하고 의결을 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조금 늦더라도 저녁 먹기 전에 정회 전에, 저녁 전에 한 7시, 7시 반 정도까지 가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교육부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조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액 사업은 없고 증액의견과 감액의견이 함께 있는 사업부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상열 전문위원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증감액 동시 요구 사업 하나, 증액 요구 사업 3개, 부대의견 2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증액의견과 감액의견이 함께 있는 사업입니다.

2페이지,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법정회의 등 운영 내역사업과 관련해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2기 구성 이후 시안 발표 계획이 지연되고 있고 산출물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회의운영비를 2700만 원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3페이지, 같은 법정회의 등 운영 내역사업과 관련해서 교육현안에 대한 긴급하고 집중한 논의를 통해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개정 등과 연계되도록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 1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 국민의견수렴 및 현장소통 활성화 내역사업과 관련해서 국민의견 수렴·조정 및 국민참여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8억 6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 국가교육과정 개발·고시 지원 내역사업과 관련해서 전문위원회 운영 및 모니터링단 연수 등을 위해서 1억 7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연구센터 운영 및 정책연구 내역사업과 관련해서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정부 측, 위원회 측 입장 주십시오.

○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 최수진 국가교육위원회는 지금 2페이지 증감액 사업의 내역사업, 법정회의 등 운영에 있어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위원회 예산 2700만 원 감액에 대해서는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이 저희 당초 일정과 부합하지 않게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으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해 1월에 새롭게 구성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는 매월 평균 2회 이상의 회의를 하면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마련을 위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이런 준비된 안을 좀 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폭넓은 국민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을 해서 올해보다 훨씬 더 많은 활동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부안과 동일하게 유지를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증액의견 주신 부분과 그리고 부대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고맙습니다.

마찬가지로 증액요청과 정부 동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파……

○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 최수진 위원장님의 결단을……

○소위원장 조정훈 감액요구를 한 유일한 사람인데요. 저도 싸우면서 배운다고 민주당 위원님들께 배운 것 같습니다.

25년 5월까지 시안 마련 논의를 하기로 했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졌습니다. 여러 가

지 정치적으로 격변의 시간을 지난 게 사실인데요.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고려하지 마시고 준비된 건 발표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미뤄지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것은 발표하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면 감액 요구를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 최수진 감사합니다.

전문위원회 위원들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깊게 논의하고 있고요. 전체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서 내년에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예, 알겠습니다.

증액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셨으니까 토론하실 분 없으시지요?

○백승아 위원 저 질문할 것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예, 백승아 위원님.

○백승아 위원 국교위가 출범 당시에 한 100명 정도로 계획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36명이신가요?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조직 규모 확대돼야 된다는 데 다들 공감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 행안부에 132명 증원 요청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협상하면서 어떤 내용을 지금 주고받고 계신지……

○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 최수진 행안부에 저희가 132명 증원 요청을, 수시직제 요청을 한 상황이고요. 행안부에서는 저희가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증원 규모는 확정이 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만 11월 중에는 어느 정도 증원 규모가 결정이 되고 예산안에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안부랑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승아 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예산이 마련이 돼야 증원이 되니까 이 예산안 처리 이후에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지점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행안부랑 딱 11월 안에는 협의를 하기로 약속이 된 건가요?

○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 최수진 예,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행안부에서는 증원 규모를 어느 정도 결정해 주실 예정이고요. 그 내용이 본예산에 반영이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아 위원 132명 동의하시던가요?

○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 최수진 저희 국교위가 너무 작은 조직이라서 조직 규모를 확대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해 주셨고요. 규모에 대해서는 조정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소위원장 조정훈 짧게 부탁드립니다.

○백승아 위원 예.

132명이라는 것의 근거가 없어요. 저희 의원실에만 공유가 안 된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부처에 어떤 인력을 배치하고 어떤 업무를 더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소통을 저희랑 더 하셨어야 된다고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야 저희도 도와드릴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국교위도…… 지금 예산 심의하는 저희도 모르는데 어떻게 증액이 되겠습니까? 그

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것 증액할 때, 저희도 공부를 해서 오는 거니까, 132명에 대한 근거가 뭔가, 저희랑 소통을 너무 안 하셨던 것 같아서 지적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산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끝난 거지요?

○전문위원 윤상열 아닙니다. 증액……

○소위원장 조정훈 증액은 다 동의하신 거라……

○전문위원 윤상열 아니, 증액만 있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증액만 있는 사업? 일독은 하시지요.

○전문위원 윤상열 증액만 있는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안전부에 132명 증원 요청과 관련해서 3개 사업에 대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국가교육위원회 인건비 관련해서 112억 2000만 원 증액 의견, 8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총액 대상 기본경비에 대하여 7억 9200만 원 증액 의견 그리고 마지막으로 10페이지에 총액 비대상 기본경비에 대해서 62억 400만 원 증액 의견 이렇게 3개 사업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이래서 백승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군요. 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것 제가 들으니까 행안부하고 아직, 협의가 돼야 되는데 제가 조금 모를 수도 있고, 다음 주 그리고 11월 말인데, 그러면 예결위에서 의결하는 게 지금 11월 마지막 주 예상하는데 그전에 합의가 되는 겁니까?

○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 최수진 저희는 그때까지는 결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만약에 넘어가서 여기에 안 담기면 증원을 해도 사람을 채용 못 하는 겁니까, 제도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 최수진 제도적으로는 내년에 추정 예산에 반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보다는 저희는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저희가 이것 일단 통과해 주고, 스탠바이 해 놓고 예결위 소위 논의할 때 상황 보자는 말씀이신 거지요?

○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 최수진 예.

○소위원장 조정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부대의견 2건에 대해서 검토는 필요 없고 정부 의견만 주십시오.

○국가교육위원회사무처장 최수진 부대의견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깔끔하게 끝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검토는 마쳤습니다. 그런데 행정실 보고에 따르면 교육부 예산 관련해서 소위 숫자를 좀 맞추고 최종 부대의견을 하는 데 필요 소요시간이 한 30~40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언했다가 7시에 속개해서 의결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정족수 맞춰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족수가 안 되면 다시, 큰일납니다. 그래서 각 당에서 참석 인원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위원 참석 인원?

○문정복 위원 다 올게요.

○진선미 위원 언제?

○소위원장 조정훈 7시. 행정실에서 시트 작업하는 데 30~40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회했다가 7시에 속개하고 7시에 속개할 때는 교육부하고 국교위 다 배석해야 되는 거지요?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회의중지)

(19시09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조정훈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됐고 의결을 하기 위해서 마무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산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과 교육부에 전달된 표에 의하면 저희가 증액이 약 53건으로 7892억 원이 증액됐고 감액은 7건으로 135억이 감액되어서 순으로 7756억 원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106조 정도 되는 교육부 예산의 약 0.7% 증액이 상임위에서 아마 의결될 것 같습니다. 많은데 워낙 106조다 보니 0.7%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보시고 혹시 이상 있으시면 지금 알려 주시고 안 그러면 의결하고요.

또 저희가 추가적으로 예산 감액하면서 감액을 대체하는 부대의견을 6건 했는데 2건을 통합해서 5건의 부대의견이 위원님들 보시는 유인물과 같이 배부되었습니다.

해당 위원님들,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문정복 위원 5번에 괄호 열고 ‘문정복’ 괄호 닫고가 빠졌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중요한 게 빠졌네요. 수석전문위원실과 행정실에서 큰 실수를 하셨습니다.

교육부, 문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위원장님, 좀 마이너한 수정인데요.

○소위원장 조정훈 ‘사소한’, ‘마이너’라는 표현보다는.

○교육부차관 최은옥 아, 소소한.

2번의 맨 끝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를 ‘집중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한다’라고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4번의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출연금 사업 중 경상경비의 집행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보다는 ‘집행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훨씬 좋지, 임팩트 있지.

○정을호 위원 너무 좋습니다.

○김대식 위원 ‘하야야 한다’ 좋지요.

○소위원장 조정훈 정을호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정을호 위원 예.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부대의견도 아마 위원님들과 관계자분들께서 다 동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추가 논의 없이 의결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백승아 위원 그……

○소위원장 조정훈 누가 ‘그’ 하셨지요?

○백승아 위원 접니다.

식생활지도수당, 아까 보류 상태였잖아요.

○소위원장 조정훈 예.

○백승아 위원 그래서 진선미 위원님께서 저한테 일임을 하셔서 진선미 위원님은 강하게 말하셨는데 저는 부대의견 제안을 지금 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조정훈 예, 드리시지요, 부대의견.

아, 여기 포함 안 돼 있군요?

○백승아 위원 예.

21년도부터 23·24·25년도에 이렇게 부대의견이 나왔습니다. 본회의 통과된 내용이 ‘교육부는 비정규직 학교 영양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시·도교육청이 적정 규모의 식생활지도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내려갔는데 이것을 앞에는 다 똑같이 하고 ‘마련하고 단체협상 등 반영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다’ 이 정도로 부대의견이 나가면 어떨까요, 차관님?

○교육부차관 최은옥 잠시만요. 저희 과장님한테 한번만……

동의합니다.

○백승아 위원 그렇게 반영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저 하나만 질문……

○소위원장 조정훈 잠깐만요, 이것 마무리하고.

내용 충분히 이해하십니까? 이것 출력 없이 의결해도 됩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회의록을 확인하면 되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백승아 위원 제가 끝나고 써서, 지금 드릴게요.

○소위원장 조정훈 다시 한번 천천히……

○백승아 위원 예.

이전 부대의견을 조금 변형한 겁니다.

‘교육부는 비정규직 학교 영양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시·도교육청이 적정 규모의 식생활지도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단체협상 등 반영 내역을 국회에 보고한다’.

○소위원장 조정훈 수용하셨고, 그러면 괜찮으면 거기다 여기 계신 위원님 6명 이름 다

넣지요, 힘을 실어 주는 차원에서.

(「예」 하는 위원 있음)

○백승아 위원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 놓친 것 같은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지출에서 감액이 됐는데 이 단위가 뭐지요?

○소위원장 조정훈 100만 원입니다.

○김대식 위원 100만 원입니까, 단위가?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예, 맞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것은 고객 지원 차원인데 왜 이것을 감액을 했지요? 이것은 정부에서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사학연금들은 전부 다, 사립학교 교직원들은 사립학교에서 다 자기네들이 회비 내 가지고 하는 건데 왜 이게 4500만 원이 감액이 됐지?

○소위원장 조정훈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님?

○김대식 위원 마지막 뒤에서 두 번째……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13쪽입니다.

○김대식 위원 정부에서, 전부 다 자기 회비 내 가지고 하는 건데 왜 고객 지원해서 4500만 원을 뺐지?

○교육부차관 최은옥 이것은요 담당 과에서 고객에 정보 알리고 하는 건데 지금 오프라인으로 발간하는 그런 자료들 그런 거 온라인화하고 하면 감액해도 가능하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아니, 요즘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하는 게 훨씬 임팩트가 있잖아요. 요즘 나와도 누가 뭐 책 보나, 볼까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면……

○김대식 위원 감액해도 된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고 감액해도 된다고.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 사업인가요?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수석전문위원께서 나눠 드린 부대의견 19번이 백승아 위원님께서 제안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백승아 위원님이 방금 구두로 말씀해 주신 걸로 대체하는 걸로……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제가 다시 한번……

○소위원장 조정훈 새걸로……

말씀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아까 논의하셨던 부대의견, 지금 회의 전에 논의하셨던 내용 중 의 19번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영양사의 수당 등 처우 개선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라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백승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완해서 넣는 것으로 의결하시면 더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백승아 위원 보완한 문구가……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문구를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백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같은 문항인가?

○소위원장 조정훈 말씀하신 것이 있으니까 회의록에서…… 변경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한 네다섯 가지 해야 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교육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교육부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교육부 소관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와 부대의견의 자구수정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사에 고생하셨습니다.

또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직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예산을 심사하는 시간이 촉박해서 행정실과 전문의원실 그리고 부처 그리고 위원님들이 그리고 아마 보좌관님들이 굉장히 며칠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다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8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강경숙 김대식 김용태 문정복 백승아 정을호 조정훈 진선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 윤상열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교육부

차관 최은옥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디지털교육기획관 김현주

교육시설담당관 최문태

예산담당관 김아영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장 최수진

중앙교육연수원

원장 이난영

임시회의록